

제438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임시회)

제 1 호

(임시회의록)

국회사무처

일시 2026년8월12일(수)

장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2025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9079)
 - 산업통상부 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 지식재산처 소관
- 업무보고
 - 산업통상부 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 지식재산처 소관
- 통상현안 보고

상정된 안건

- 2025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9079) 11
 - 산업통상부 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 지식재산처 소관
- 업무보고 11
 - 산업통상부 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 지식재산처 소관
- 통상현안 보고 11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성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말씀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 회계연도 결산 그리고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지식재산처의 업무보고, 산업통상부의 현안보고를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이 처음으로 출석하는 회의입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정부 측이 처음으로 상견례하는 자리인 점을 고려해서 우리 위원회의 소관 37개 공공기관의 기관장도 참석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소관 부처의 장관과 공공기관 기관장이 참석하셨으니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산업과 통상 또 중소·벤처 기업과 지식재산을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2025년도 결산과 또 부처 업무보고를 주재하게 되어서 엄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오늘 우리 산업과 경제가 처한 현실이 심각하고 또 위급합니다. 미중을 중심으로 한 기술패권 경쟁, 공급망 재편이 심화되는 한편 보호무역의 확산으로 세계 통상질서가 전례 없이 바뀌고 있습니다. 반도체, AI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조선, 철강 등 기간산업의 혁신을 동시에 이루어 내야 합니다.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소상공인이 우리 경제의 또 하나의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금융과 규제, 기술 사업화 등 지원체계의 변화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우리 기업이 개발한 기술과 아이디어가 제대로 보호되고 또 세계시장에서 새로운 가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전반에 대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저는 우리 산자중기위원회가 산업통상, 중소벤처와 지식재산과 관련한 정부 정책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협력할 부분에 대해서는 충실히 협력하고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자 합니다. 특히 메가특구와 같은 대규모 지역산업 정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실효성, 재정의 적정성, 지역과 산업에 미치는 효과를 꼼꼼히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의 출발점과 종착점은 결국 현장과 또 국민이어야 합니다. 기업은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원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청년들은 미래가 있는 일자리를 원하고 국민은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는, 삶 속에서 체감하기를 원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열린 자세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여야 위원님들과 지혜를 모아 대한민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재산처와 37개 공공기관의 공직자·임직원 여러분들께서도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산업과 중소·벤처 기업, 지식재산을 혁신할 수 있는 2년이 되도록 위원장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회의에서 간단하게 인사말을 하신 위원님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우리 위원회 소관 국무위원 그리고 정부위원 또 공공기관장이 모두 출석한 점을 고려해서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들어 보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철민 간사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민 위원** 장철민 위원입니다.

이렇게 하반기 산중위가 구성되고 첫 번째 업무보고, 첫 번째 전체회의 자리를 갖게 되니까 굉장히 설레고 기대되고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지금 세계 질서의 변화 그리고 우리의 경제·산업 구조의 변화 때문에 국가산업 정책의 틀 자체가 바뀌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국가산업 정책이 바뀐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정책목표만 바뀌는 게 아니라 정부와 기업의 관계 그리고 국회와 정부의 역할이 달라지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메가프로젝트나 여러 가지 산업적인 일들이 될 테고요. 그래서 그런 중요한 시기인 만큼 이 22대 국회 하반기 산중위는 정말로 초당적으로 우리의 실물경제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상임위로 꼭 만들고 싶다는 바람이 너무나 큼니다.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장님과 또 구자근 간사님 모두 워낙 훌륭하신 분들이고 또 국민의힘에서도 굉장히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함께하시는 만큼 이번 하반기 산중위가 정말로 성과를 내는, 그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리는 상임위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부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위원장 김성원 감사합니다.

다음, 구자근 간사님 인사해 주십시오.

○구자근 위원 구미시갑 구자근 위원입니다.

지난번 첫 회의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습시다만 후반기 간사를 맡게 되어서 책임감이 무겁다고 느껴집니다. 건설적인 상임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김성원 위원장님과 장철민 간사님과 함께 선배 위원님들 잘 모시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부에서도 김정관 산업부장관님을 비롯해서 정부부처 다 오셨는데, 이렇게 보니 반갑습니다. 뜨겁게 또 치열하게 논의하고 토론하면서 건설적인 상임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철민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메가프로젝트 관련해서, 물론 시대적·글로벌적 환경이 변했다 하지만 질차적 정당성이나 국민들의 신뢰가 앞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의를 받아서 함께 힘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현안들이 이렇게 많은 부분들을 하나하나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또 모범적인 상임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원 감사합니다.

두 분 간사님께서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권향엽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권향엽 위원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 권향엽입니다.

산업의 대전환 시기입니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6월 29일 날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산업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전통산업에 AI를 접목시키는 M.AX 산업입니다.

신산업과 전통산업이 잘 이어지고 상생해야 합니다. 또한 이 분위기가, 중소·벤처 기업이나 지식재산처에 연관되는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잘 이어져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글로벌 경쟁에서, 초격차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중심에 산자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위원님들과 함께 활동을 하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대한민국의 산업 대전환 잘 챙겨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원 감사합니다.

다음, 김도읍 위원님.

○김도읍 위원 우리 국민들께서 바라는 바대로 대한민국 경제가 성장하는 데 기여하는 상임위 또 그 구성원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원 다음, 김원이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김원이 위원 목포 출신 국회의원 김원이입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용인, 평택, 이천에 머물러 있던 반도체산업이 드디어 그 어마어마하게 높았던 장벽을 깨고 호남, 충청, 영남으로 확장될 그런 대규모 계획입니다. 대한민국의 산업생태계를 바꿀 수 있는 역사적 대전환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대한 호남·충청·영남 시민들의, 도민들의 기대감이 너무너무 크고 깊습니다.

저는 이런 호남·충청·영남 시민들의 기대감을 우리가 만족시켜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여야가 함께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힘 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박성민 전 간사님과 힘을 모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성원 제가 소개시켜 주려고 그랬는데……

박성민 전 간사님.

○박성민 위원 박성민 위원입니다.

전반기에는 김원이 간사님께 제가 여러 가지를 많이 양보도 하고 이해를 했는데 후반기에는 이제 평위원으로서 본격적으로 한번 붙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전반기를 되돌아보면 제정법을 일곱 건이나 해냈고 또 여러 가지 논란도 많았습니다마는 특히 대미 관세 관계에서는 저희들이 적극 협력하고 또 국익 앞에 함께했다는 그런 보람도 있습니다.

후반기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때로는 협력하고 때로는 야당으로서 그 몫을 확실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원 다음, 김의겸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김의겸 위원 앞서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해 주셨지만 3대 메가프로젝트 이게 단순히 산업의 대전환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전환점이고 좀 크게 보자면 문명사적인 전환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때에 산중위가 그런 대전환점의 꼭짓점에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두 달 전에 재보궐선거로 뒤늦게 합류했습니다. 많이 배우고 고민하고 그리고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성원 다음 서지영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서지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산 동래구 국회의원 서지영입니다.

산자중기위위원회에서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국가의 산업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도 우리 산업부 그다음에 중기부 외에 많은 공무원들께서 국가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부분들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돕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당 위원님들께서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서 굉장히 큰 기대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비전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큰 영화를 기획하고 있는 예고편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예고편이 화려했다고 해서 그 결과가 흥행이 되는가 여부가 달려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획하시는 모든 것들이 흥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면밀하게 지켜보고 그 절차와 과정에서 야당 위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원 다음 박희승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박희승 위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장님,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남원·장수·임실·순창 국회의원 박희승입니다.

산중위는 대한민국의 산업경쟁력과 기업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위원회…… 같이 하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는 어쨌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우리 큰 국가적 사업 아닌가 싶습니다. 여야가 기업과 국민을 위한 일에는 힘을 모아서 성과를 만들어 가는 위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반갑습니다.

○위원장 김성원 감사합니다.

다음 우재준 위원님.

○우재준 위원 대구 북구갑 우재준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산중위로 하반기에 왔다고 하니까 지역구 주민들이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저희 의원들끼리도 늘 산중위가 인기 상임위라고 이야기가 되는데 그것은 그만큼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 먹고사는 문제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만큼 산중위에 더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더 많은 책임감을 갖고 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나라를 잘 먹고 잘살게 한다는 데 있어서는 여기 계신 모든 위원분들이 한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뜻에서는 저도 여당 같은 마음으로 일하겠습니다. 하지만 또한 적절한 균형을 위해서 그리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게 하는 데 있어서는 야당 위원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원 다음 백혜련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백혜련 위원 백혜련 위원입니다.

아까 김도읍 위원님하고 인사를 했는데 김도읍 위원님이 ‘이제는 싸울 일 없겠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가 그동안 법사위나 행안위에서 많이 싸웠는데 산중위는 정말 싸우지 않는 상임위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저희가 싸워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야가 함께 합치하는 모범적인 상임위가 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위원장 김성원 감사합니다.

백혜련 위원님만 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윤한홍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윤한홍 위원 산업부 공무원들 반갑습니다.

중요한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이렇게 2년간 여러분하고 함께하게 돼서 반갑고, 하여튼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 위원님, 싸우지 않도록 협조 잘 부탁드립니다. 백혜련 위원님하고는 여러 번 상임위원을 같이 했기 때문에 아마 일이 잘될 걸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재봉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송재봉 위원 저도 전반기에서 후반기 산자중기위에서 같이 활동하게 돼서 스스로도 기쁘게 생각하고요. 또 오늘 새로 만난 여야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수도권 일극체제로 인해 생긴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 5극 3특을 중심으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전환이라고 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고, 그 수단으로 바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현재 발표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의 성공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경쟁력이기도 하고 또 국민의 삶과도 직결되는 그런 문제가 아닐까 싶어서 산자중기위에서 이 문제에서 만큼은 서로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서 좋은 성과를 거뒀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고요. 동시에 우리가 첨단전략산업에만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까 소부장 중심의 중소기업이라든가 또 소상공인이라든가 이런 분들 영역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소홀하지 않게 잘 좀 균형 있게 논의를 이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성원 감사합니다.

조지연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조지연 위원 경북 경산의 조지연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실물경제를 책임지는 산자중기위에 활동하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든지 또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는 의정활동을 하겠고요. 그리고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5극 3특으로 연계된 이 메가특구 사업이 진정한 균형발전의 측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구·경북의 역할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하는 그런 의정활동

등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원 감사합니다.

다음 오세희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오세희 위원 반갑습니다.

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위원장 김성원 역시 오세희 위원님밖에 없습니다.

○오세희 위원 전반기부터 후반기까지 산중위,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과 같은 이곳에서 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다양한 스펙트럼…… 매우 넓고 깊게 우리 산중위가 다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의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거시적 과제부터 중소기업, 골목상권, 소상공인 삶을 지키는 책임감도 큼니다. 민생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잘 살피고 위원님들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원 다음 최수진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최수진 위원 안녕하십니까?

중구 성동을 당협위원장 최수진입니다.

저는 과방위에서 드디어 탈출했습니다. 그래서 무한히 기쁩니다, 이 자리가. 치열하게 싸우고 2년 내내 싸우다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주 평화롭고 또 위원님들 보니 많이 든든합니다.

다만 저는 25년 동안 기업에서 일했고 5년 정도를 산업부에서 일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좀 더 친정에 온 느낌입니다. 하지만 지금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서 여당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진실게임을 여기서 시작할 거라 생각을 하고,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저희가 문제가 되는 것은 견제하면서 정말 민생과 국민을 위한 그런 상임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장님 잘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원 최수진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 임문영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임문영 위원 안녕하세요?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임문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장님을 모시고 우리나라 산업 성장의 핵심을 다루는 산중위에서 일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AI 시대는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시대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프리 힌턴 교수는 ‘인류가 지금까지 인류보다 더 똑똑한 것과 살아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보다 더 똑똑한 지능을 가진 존재와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세상은 지금까지의 성공 방식을 바꿔야 되고 또 지금까지 일해 왔던 방식을 완전히 바꿔서 새로운 프레임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거기 대상에는 산업뿐만 아니라 정치도 물론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시대, 새로운 특별한 경험들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에 국가에서 준비하고 있는 새로운 산업성장동력 그리고 또 특히 전 세계적으로 AI 기술패권 경쟁과 인프라 투자 경쟁에서 앞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특별한 대응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와 함께 그동안 우리 산업을 이끌어 왔던 제조업과 또 소상공인들의 역할들을 새롭게 개편해야 되고 대응해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어떤 지역도 어떤 계층도 소외되거나 낙오되지 않도록 새로운 산업 사회로 전환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성원 감사합니다.

다음 조국혁신당의 차규근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차규근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의 차규근입니다.

22대 국회 후반기에 산업 대전환의 시대에 대한민국 실물경제와 민생의 최전선인 산자중기위에서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의정활동을 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글로벌 통상 대전환과 내수 부진이라는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제 저는 우리 경제의 최전선인 산중위에서 실질적인 현장의 답을 찾고자 합니다. 거센 관세 파고로부터 우리 산업을 보호하고 AI 벤처 생태계의 경쟁력을 키우며, 무엇보다 한계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삶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의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원 감사합니다.

다음 전은수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전은수 위원 아산시을 국회의원 전은수입니다.

우선 김성원 위원장님 그리고 구자근 간사님, 장철민 간사님 그리고 선배 위원님들 모시고 산자중기위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 그리고 대한민국 대전환의 시기입니다. 지금까지 없던 일을 만들어내는 일이니 만큼 지금까지 있었던 것들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 내는 곳이 이곳 바로 산자중기위가 될 것 같습니다.

보궐선거로 막 들어온 만큼 더 적극적이고 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원 감사합니다.

다음 김종민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김종민 위원 위원장님, 축하드리고요. 산자위에서 좋은 역할을 맡아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메가 프로젝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부 정책이니까 야당이 비판할 수도 있고 하지만 이게 단순히 이름을 메가 프로젝트라고 붙여서 그렇지 이게 일종의 대한민국의 전략투자거든요. 그리고 지금 대전환의 핵심이 기업 대항전이 아니고 생태계 대항전, 국가

대항전이기 때문에 국가가 이런 전략적인 투자를 주도하고 전략 국가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약간 생존의 숙제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산업부가 단순히 한 부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끌고 가는 그런 부처다, 산업 그다음에 중기 그다음에 지식재산……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가 여기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전에는 우리가 추격 국가 그래서 배끼면 됐는데 지금은 우리가 피지컬 AI 1등 한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새로운 기회를 우리가 제일 앞장 서서 가야 되니까 그런 점에서 만만치 않은 길이다. 기술과 산업에서의 대전환도 잘 해결해야 되고……

제가 한 가지 산업부나 중기부에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기술산업만 해결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기술산업과 아울러서 일자리 문제, 소득 문제, 국토의 재편성 문제 이런 약간 산업부하고 관계가 없는 듯한 문제들이 다 연동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도 투자를 하게 되면 저는 일자리·소득 문제는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이번 기회에, 예전에 포항제철하고 울산 조선소 만들 때 이상의 그런 국가적인 대전환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동안에 고립됐던 또는 양극화됐던 국토 재편성을 한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장 김성원 1분 더 드리십시오.

○김종민 위원 그런 관점에서 우리 산업부가 단순히 기술산업에만 국한하지 말고 이런 민생, 그다음 국토 대전환 이런 문제도 같이 함께 고민하는 산업부, 중기부가 되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좀 드립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원 감사합니다.

차규근 위원님하고 김종민 위원님은 제가 특별하게 더 많이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진욱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정진욱 위원 광주특별시 동남갑 정진욱 국회의원입니다.

AI 시대 G3 강국의 기회가 왔습니다. 피지컬 AI에서 젠스황 이야기처럼 G2 또 G1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성공만이 아니고 저는 우리 국민 모두의 성공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황금시대를 열 새로운 기회를 반드시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산업부가 지금 하고 계시는 맥스 얼라이언스, 산업 대전환 정말 방향을 잘 잡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기부에서도 중소기업과 민생 현장 잘 지켜 주고 계시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메가 프로젝트로 대한민국 국토 공간을 드넓게 쓰면서 수도권 중심에서 지방 중심 성장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 있습니다. 호남·영남·충청 메가 프로젝트가 예정대로 반드시 실행돼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꿔야 합니다. 그 점에서 우리 산자위가 훌륭한 김성원 상임위원장님 그리고 또 장철민·구자근 간사님 모시고 있기 때문에 잘 될 걸로 생각합니다. 우리 산자위 내에서, 산자중기위 내에서 여야 협력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G3 국가로 나아가는 문을 활짝 열 수 있기를 간절하게 바라봅니다. 야당 위원님들과 함께 손잡고 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성원 감사합니다.

다음, 허성무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허성무 위원** 언제나 마지막이라……

(웃음소리)

창원 성산구 국회의원 허성무입니다.

얼마 전에 상반기 수출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전국 광역 시도별 실적까지 아주 세세하게 발표가 됐는데요. 상위권에 있는 시도는 반도체 팹이 있는 곳입니다. 반도체 팹이 없으면서 상위권에 랭크가 된 유일한 광역은 울산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불균형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결국은 우리 산자부든 중기부든 국가가 균형 발전하려면 가장 핵심이 산업의 균형 배치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업의 균형 배치를 위한 여러 노력을 이번 정부에서 해 주셔야 되는데, 특히 지역의 배치와 관련해서 5극 3특 위주로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실행을 통해서 골고루 발전하고 골고루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산업위와 산업부와 관련 부처들이 함께 일하는 그런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원** 감사합니다.

김정관 장관님,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인사말씀을 이렇게 다 해 주셨는데, 국민들의 의견 중에 반론이 있고 또 그것이 타당하면 반영하는 것이 옳은 태도지 한번 결정했으니까 그냥 무조건 고(go)한다라고 하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반론이 있고 또 반론이 있으면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하고 무조건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변경의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장관, 동의하십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원** ‘변경의 여지가 있다’ 이 말씀에는 동의하시는 거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위원장 김성원** 앞으로 우리 산업현장에 있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고 민생을 챙기는 그런 많은 토론이 있어서 정부 정책이 잘된 방향이라고 하면 저희가 속도감 있게 국회에서 지원을 해 줄 것이고 또 방향성이 잘못됐다고 하면 그 방향성에 대해서 정부도 전향적인 입장으로서 방향 전환을 통한 국익 실현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인사하지 못한 위원님은 다음 인사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우리 위원회에 신규 보임된 전문위원과 입법조사관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병섭 전문위원입니다.

다음으로 김혜미 산업정책조사관입니다.

다음으로 정용제 산업정책조사관입니다.

(인사)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결산 제안과 업무보고 등 보고사항이 많은 점을 고려해서 관련 의사일정

을 일괄하여 상정하고 소관부처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에 위원님 여러분들이 종합하여 질의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9079)

가. 산업통상부 소관

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다. 지식재산처 소관

2. 업무보고

가. 산업통상부 소관

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다. 지식재산처 소관

3. 통상현안 보고

(10시33분)

○위원장 김성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업통상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및 지식재산처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과 의사일정 제2항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3항 통상현안 보고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각 기관장께서는 참석한 간부와 소관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주시고 이어서 업무보고와 결산 제안설명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존경하는 김성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이후 처음으로 위원님들을 모시고 산업통상부의 결산과 업무현황 그리고 통상현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반도체, 조선, 자동차, 배터리, 원전 등 세계적인 산업 포트폴리오를 갖춘 산업강국입니다. 우리 선대의 헌신으로 물려받은 이 위대한 산업의 유산을 지키고 키워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것이 현세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정학적 위기와 무역장벽이 상시화되고 AI 혁명과 경쟁국의 추격도 우리 산업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 산업부는 중동 전쟁에 신속히 대응하며 국민 생활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상반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와 M.AX(제조AI 전환), 주력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도 본격화했습니다.

앞으로 산업부는 초성장·신공간, 대체불가 산업강국이라는 목표로 세 가지 방향, 산업은 더욱 키우고 우리 기업들의 경제영토는 넓히고 산업 기반은 다지고 이른바 이런 세 가지 방향으로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첫째, 3대 메가프로젝트와 M.AX를 통해 우리 산업을 더욱 키우는 일입니다. 산업부가 이른바 투자프로젝트 매니저를 맡아 기업투자를 밀착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제조현장의 숙련기술을 데이터화하고 AI와 로봇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풀스택 AI 팩토리까지 개발하겠습니다.

둘째, 대한민국 산업의 성장 무대를 지방과 세계로 더욱 넓혀 나가겠습니다. 권역별 성

장엔진과 메가특구를 통해 지방을 새로운 성장의 축으로 세우고 전략적인 경제책략을 바탕으로 해외 경제영토도 더욱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산업강국의 기반을 더욱 단단히 다지는 일입니다. 에너지와 핵심광물의 도입선을 다변화하고 비축 역량을 확충하는 한편 대기업과 협력업체가 함께 성장하는 산업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정책은 현장의 변화와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산업부는 작은 과제도 놓치지 않는 정성과 실행력으로 정책을 끝까지 쟁겨 나가겠습니다.

22대 국회 후반기에도 산업부는 우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함께 원팀이 되어 국가경제와 산업 발전을 위한 더 많은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메가특구, 재생에너지자립도시, M.AX, 산업·자원 안보체계 강화 등 산업부가 추진하고 있는 핵심과제를 위한 입법과 예산 그리고 많은 조언에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2025년 산업통상부의 결산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은 6조 5513억 원을 수납하였고 세출은 예산현액 12조 2594억 원 중 12조 1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 1458억 원, 불용 1134억 원입니다. 기금은 무역보험기금과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에서 5조 603억 원을 운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산업통상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현황과 결산은 기획조정실장이, 그리고 통상현안은 통상교섭본부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산업통상부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문신학 차관입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입니다.

박정성 통상차관보입니다.

오승철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박동일 산업정책실장입니다.

이민우 산업성장실장 전담 직무대리입니다.

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입니다.

권혜진 통상교섭실장입니다.

강감찬 무역투자실장입니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입니다.

정상용 정책기획관입니다.

김규성 지역경제정책관입니다.

최우혁 첨단산업정책관입니다.

나성화 무역정책관입니다.

다음은 참석한 공공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의락 한국가스공사 사장입니다.

손주석 한국석유공사 사장입니다.

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입니다.
 강경성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입니다.
 남한규 강원랜드 대표이사직무대행입니다.
 황영식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입니다.
 임종석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입니다.
 박경국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입니다.
 이상훈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입니다.
 최춘식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입니다.
 전운종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원장입니다.
 이용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원장입니다.
 강운주 한국디자인진흥원 원장입니다.
 윤종석 한국세라믹기술원 원장입니다.
 진길우 대한석탄공사 사장직무대리입니다.
 송현규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원장직무대행입니다.
 신재혁 무역안보관리원 원장직무대행입니다.
 조영훈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원장입니다.
 김용만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원장입니다.
 김태권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원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산업부가 갈 길은 멀고 할 일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현장과 국민 그리고 장철민 간사님이 말씀하신 국회와 정부 역할, 구자근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건설적인 상임위, 말씀들을 깊이 유념하면서 산업통상부가 우리 산자위와 함께 더 건설적인 상임위, 정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조실장께서 업무·결산 세부 보고 해 주십시오.

○산업통상부기획조정실장 오승철 산업통상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업무현황을 먼저 보고드리고 이어서 2025회계연도 결산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업무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 주요 정책 추진계획 순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2쪽입니다.

산업통상부는 상업·무역·통상, 산업기술 연구개발, 원전 수출 및 자원산업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1252명, 현원은 1182명입니다.

실별 주요 업무와 조직도는 3~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산업통상부의 2026년도 본예산은 9조 4342억 원입니다.

7쪽입니다.

중동 전쟁 위기 극복 등을 위해 지난 4월 1조 98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소관 법률은 총 85개이며 법안 심사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산업통상부 소관 공공기관은 총 20개입니다.

다음, 업무 추진실적입니다.

11쪽입니다.

중동 전쟁에 대응하여 대체물량 확보와 비축유 스와프 등을 통해 원유와 나프타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였습니다.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필수 석유화학제품의 공급도 차질 없이 유지하였습니다.

상반기 수출은 4963억 불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외국인투자도 증가하였습니다. EU 철강 협상에서는 타 국가 대비 상대적으로 유리한 쿼터를 확보하였으며 대미투자특별법 제정과 한미전략투자공사 출범,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 등을 통해 한미 간 전략산업 협력 기반도 마련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를 중심으로 1609조 원 규모의 지방투자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전국 170개 사업장에 AI 팩토리를 확산하는 등 M.AX를 본격화하고 주력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도 가시화하였습니다.

14쪽,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초성장과 신공간, 대체불가 산업강국 비전하에 4대 성장축과 2대 공간축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와 M.AX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권역별 성장엔진을 중심으로 지방주도 성장을 본격화하겠습니다. 글로벌 산업·경제안보 협력도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정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대도약과 초성장 실현을 위한 4대 성장축 전략입니다.

17쪽입니다.

1600조 원 규모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고 반도체, AI로봇, AI데이터센터 분야의 투자 걸림돌을 관계부처와 함께 해소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제조현장의 숙련기술을 데이터화하고 AI와 로봇이 자율 운영하는 풀스택 AI 팩토리를 개발하겠습니다. M.AX법도 마련하여 제조AX 확산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첨단산업과 주력산업의 초격차 기술력 확보와 AI 전환도 촉진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산업·자원 안보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 원유와 나프타의 도입선을 다변화하고 비축 역량을 확대하겠습니다. 핵심광물은 국내개발과 재자원화, 국제 협력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기술유출 방지와 수출통제 대응을 강화하고 산업자원안보기금과 산업안보원을 신설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산업생태계 함께성장 프로젝트와 산업성장펀드를 통해 앵커기업과 협력업체의 동반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중견기업의 혁신성장도 촉진하겠습니다.

미래 유망 품목, 전략 품목에 대한 수출 지원을 강화하고 석유화학과 철강의 사업 재편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다음은 2대 공간축 전략으로서 지방 주도 성장과 경제영토 확장 추진 계획입니다.

22쪽입니다.

권역별 성장엔진을 선정하고 메가특구와 범부처 7대 패키지를 통해 성장엔진 투자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권역별 거점 산업단지는 M.AX 클러스터로 조성하고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정상외교 성과를 바탕으로 주요 국가의 산업통상자원 협력을 구체화하겠습니다.

대미 투자는 국익에 부합하는 프로젝트를 선별하여 추진하고 한미 간 관세합의, 이익 균형 유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동 정세 변화 속에서 새롭게 열리고 있는 산업협력의 기회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CPTPP 가입 추진을 검토하고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하여 해외 무역장벽과 우리 기업의 애로에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5회계연도 결산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 개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과 2쪽의 일반현황은 앞서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3쪽, 결산 개요입니다.

총수입은 2조 1356억 원으로 수납률은 85.7%이며 총지출은 9조 8961억 원으로 집행률은 97.4%입니다.

5쪽, 회계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은 6조 5709억 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99.7%인 6조 5513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2조 2594억 원이며 이 중 97.9%인 12조 1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쪽, 세출예산 주요 변경내역입니다.

2024년에서 2025년으로 이월된 예산은 65억 원이며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기후에너지 환경부로 이체된 예산은 3530억 원입니다.

전용 72억 원은 인건비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며 고준위 위원회 운영을 위해 편성한 예비비 20억 원은 조직 개편에 따라 전액 이체되었습니다.

7쪽입니다.

2025년에서 2026년으로 이월된 예산은 1458억 원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외투기업 투자 보류 등이 주요 사유입니다.

불용액은 1134억 원이며 지특회계의 집행잔액과 일부 사업의 계획·설계 지연 등이 주요 원인입니다.

다음, 8쪽부터 21쪽의 회계별 세부 운용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무역보험기금과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은 사업비 5639억 원, 기금운영비 1939억 원, 여유자금 4조 2658억 원 등 총 5조 603억 원을 운용하였습니다.

기금별 세부 운용 현황과 재무 결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 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통상교섭본부장, 통상 현안 세부 보고해 주십시오.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안녕하십니까?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대미·대EU 주요 통상 현황과 대응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이어서 통상조약의 주요 진전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한 통상조약법에 따라 최근 타결된 통상조약의 주요 내용과 신규 통상조약의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대미 통상 현안입니다.

미국의 관세조치에 대응해 정부 출범 직후부터 협상을 본격 추진하여 지난해 11월 최종 타결하였습니다.

상호관세 및 자동차관세 인하, 반도체 관련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 등의 관세 혜택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정부는 한미 전략 투자 특별법 제정 등 합의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강제노동 관련 301조 등 추가 관세조치와 비관세 현안에 지속 대응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관세 분야에서 미국은 현재 한국 등 16개국을 대상으로 과잉생산 관련 301조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고위급 협의 등을 통해 기존 관세합의의 이익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 전달하고 있으며 조사 절차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대미 전략투자는 우리 업계 수요를 바탕으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미측이 제안한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정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프로젝트의 상업적 합리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부 위원회의 심의·의결과 국회 보고 절차 등을 충실히 진행하겠습니다.

비관세 분야에서는 공동설명자료 합의사항에 구체적 이행계획을 미측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분야에서는 우리 규제가 특정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고 모든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적극 설명하면서 신중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대EU 통상 현안입니다.

EU는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를 대체하는 새로운 수입규제 제도를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무관세 쿼터가 크게 축소되는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정부는 EU와의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 국가 쿼터 207.3만t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는 EU의 주요 철강 수입국 가운데 기존 대비 국가 쿼터 감축률이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또한 공용 쿼터까지 활용할 경우에는 총 가용 물량은 최대 380.9만t으로 우리 업계의 EU 시장 접근 여력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확보된 무관세 쿼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업계

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는 타결된 통상조약입니다.

올해 6월 세르비아와의 협상을 타결한 데 이어 7월에는 몽골, 8월에는 방글라데시와 잇따라 원칙적 타결을 선언하며 우리의 통상 네트워크를 지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몽골 CEPA입니다.

몽골은 풍부한 광물자원과 높은 성장잠재력을 보유하여 공급망과 시장 다변화 측면에서 전략적 가치가 높은 나라입니다.

이번 협정으로 90% 이상의 높은 자유화 수준을 확보하여 자동차, 건설장비, K-소비재 등의 수출을 확대하고 핵심광물의 공급망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르비아와의 CEPA는 우리나라가 발칸 지역에 마련하는 최초의 통상협력 기반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르비아는 자동차부품 등 제조업 기반과 EU 인접성, 광범위한 FTA 네트워크를 갖춘 유럽시장 진출의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이번 협정으로 반도체, 전기차, 차량부품과 K-푸드, K-뷰티 등의 시장 개방을 확보하고 광물자원 공급망 안정화와 AI,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의 협력 기반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한-방글라데시 CEPA입니다.

방글라데시는 세계 8위에 1.7억의 인구 대국이자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서남아의 주요 시장입니다.

지난 8월 통상장관회담 계기에 원칙적 타결을 선언하며 철강, 석유제품, 자동차부품 등 우리의 주력 수출품과 K-푸드의 시장 접근을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청각, 의료, 건설 등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고 우리 기업의 투자 보호도 강화하였습니다.

정부는 세 협정 모두 2027년 하반기 발효를 목표로 해서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한-EU 디지털통상협정, 즉 DTA입니다.

한-EU 양측은 일곱 차례 협상을 거쳐 지난해 3월 협상을 타결하고 금년 6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정식 서명하였습니다.

이번 협정을 통해 무역문서 전자화 등 전자상거래를 원활화하고 온라인 소비자 보호, 사이버 보안 협력 등을 통해 디지털경제 신뢰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전과 소스코드 보호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EU 디지털시장 진출 기반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양측의 국내 절차도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대응하겠습니다.

마지막 8페이지입니다.

복수국 간 그린협정, 즉 GEPA 추진 계획입니다.

정부는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와 협의를 진행하여 우리나라의 협정 참여에 대한 기존 참여국들의 지지를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경제적 타당성 검토와 공청회 개최, 대외경제장관회의의 심의·의결 등 협상 참여를 위한 국내 절차도 마쳤습니다.

GEPA는 환경·저탄소 상품의 무역을 촉진하고 관련 표준인증 등 그린경제 분야의 협

력을 강화하는 협정입니다. 이번 국회 보고 이후에 협상 참여를 선언하고 중견국들과 함께 그린경제 분야의 새로운 통상규범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중소벤처기업부 보고 전에 이언주 위원님, 다 인사말씀 먼저 하셨거든요. 한번 인사말씀 하시고 그다음에 중소벤처기업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언주 위원 반갑습니다. 이언주 국회의원입니다.

경기 용인정 지역구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원 다음,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행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행 1차관 노용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과 함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 속에서 중소·벤처 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 쉽 없이 달려왔습니다.

올해 초 모두의 창업을 추진해 국가창업시대로의 첫발을 내디뎠고 1분기 역대 최대의 벤처펀드 결성 등 유례없는 벤처투자 성과 달성을 통해 창업 열풍을 뒷받침했습니다.

중소기업 수출 역시 K-뷰티 집중 육성 등에 힘입어 26년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64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중동전쟁 등 어려운 여건에도 동행축제 개최 등을 통해 소상공인 경기 회복세를 유지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으로도 당면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중소·벤처·소상공인에 성장의 온기를 확산하기 위해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첫째, 지역상권 활성화로 소상공인 성장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상권의 씨앗인 로컬 창업을 활성화하고 수도권 활력을 지방상권으로 확산하는 모두의 지역상권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내수 활성화와 민생 온기 확산을 위해 하반기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을 개최하겠습니다.

둘째, 창업과 벤처투자 활성화로 경제 활력을 촉진하겠습니다.

2차 모두의 창업은 지원 규모를 2배로 확대하여 창업 열기를 더욱 확산하고 실패가 자산이 되는 생태계 구축을 위한 재도전 성장사다리도 강화하겠습니다.

모태펀드를 중심으로 연기금 등 민간자금을 결집하고 글로벌 펀드를 지속 조성하는 등 안정적인 벤처투자 기반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셋째, 신성장 분야 육성과 AI 혁신을 통해 중소기업의 도약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신안보, 제약바이오, 기후테크 등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에게 다년도, 대규모 묶음형으

로 지원하여 글로벌 혁신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AX 선도모델 확산, 스마트제조 전문기업 육성 등 중소 제조 AX 혁신 생태계를 강화하고 지역산업 특성을 반영한 지방정부 주도의 AX 프로젝트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기술보호·상생협력으로 동반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올 상반기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하였고 기술탈취 신문고를 개설하는 등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술탈취 근절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상생이 전통 제조업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고 플랫폼, 금융 등 다양한 생태계로 확산되도록 정부가 선도적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 회계연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1984억 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예산 현액 9조 6415억 원 중 9조 6347억 원을 집행하였고 63억 원은 불용하였습니다.

기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등 3개 기금에서 총 28조 134억 원을 운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2025회계연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의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을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업무현황과 결산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중소벤처기업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권 제2차관입니다.

김우중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박용순 중소기업정책실장입니다.

최원영 소상공인정책실장입니다.

이순배 정책기획관입니다.

조경원 창업정책관입니다.

김정주 소상공인정책관입니다.

이은청 상생협력정책국장입니다.

이어서 공공기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입니다.

권형택 기술보증기금 사장입니다.

인태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입니다.

김영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원장입니다.

유종필 창업진흥원 원장입니다.

원영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회장입니다.

이대희 한국벤처투자 대표이사입니다.

이태식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이사입니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장입니다.

이일용 공영홈쇼핑 대표이사입니다.

박마루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김성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조실장, 업무 결산 세부 보고해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기획조정실장 김우중 중소기업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업무현황보고 후에 2025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 중 일반현황과 정책 추진 여건은 자료로 대체하고 6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성장사다리와 성장의 온기 확산으로 모두가 성장하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 구현이라는 비전하에 4대 추진 전략을 설정했습니다.

관련한 세부 추진 과제들을 순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첫째, 지역상권 활성화로 소상공인 성장 생태계 구축입니다.

지역의 특성과 자원에 기반하여 소상공인을 성장 단계별로 육성하고 관광 콘텐츠 등을 상권과 결합하여 지역거점 상권을 육성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하반기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을 통해 내수에 활력을 더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경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선제적으로 포착하여 경영진단, 멘토링 등 맞춤형 정책 안내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폐업 소상공인은 채무조정을 돕고 경영 위기 소상공인은 신속한 취업과 재창업을 통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두 번째, 창업·벤처투자 활성화로 경제 활력 촉진입니다.

2차 모두의 창업은 인원을 2배 확대하고 기관 다변화, 지원범위 확대 등 한층 보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주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창업도시 여섯 곳을 추가 조성하고 비수도권 전역에 2조 원 규모의 지역성장펀드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혁신 스타트업의 스케일업을 가속화하고 재도전 생태계를 강화하겠습니다.

AI·딥테크 유망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해 차세대 유니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한편 재도전 성과사례 확산 등 실패해도 괜찮은 재도전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연기금 등 민간자금이 유입되도록 모태펀드 제도를 개선하고 존속기간 연장을 통해 안정적 투자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 신성장 분야 육성, AI 혁신을 통한 중소기업 도약입니다.

신안보, 제약바이오, 기후테크 등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에게 400억 원 이상을 집중 지원하여 글로벌 혁신기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의 유망기업 등을 위한

성장사다리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제조AI 전문기업 육성 플랫폼 구축 등 AX 혁신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지방정부 주도의 AX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AX를 촉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중소기업 강점 분야를 중심으로 수출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K-컬처에 기반한 뷰티, 푸드, 패션 등 혁신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수출 단계에 따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고속 성장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행정제재 강화, 과징금 도입 등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성과공유제 대상을 모든 기업 간 거래로 확대하는 등 자발적 상생협력 생태계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상생협력의 범위를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겠습니다.

플랫폼 분야 상생협력을 위한 법제화를 추진하는 등 기업생태계 전반에 상생의 공기가 확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선 지식재산처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기획조정실장 김우중 위원장님, 결산 쪽……

○위원장 김성원 결산, 예.

○중소벤처기업부기획조정실장 김우중 바로 이어서 중소기업부 2025회계연도 세입 세출 및 기금결산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체하고, 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개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0.97조 원으로 이 중 20.9조 원을 집행하였고 4억 원 이월, 677억 원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회계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2014억 원 징수결정, 1984억 원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총 9조 641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9조 6348억 원 집행, 4억 원 이월, 63억 원 불용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은 1788억 원 징수결정, 1760억 원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9조 1910억 원입니다. 이 중 9조 1851억 원 집행, 4억 원 이월, 55억 원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은 357억 원 편성 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223억 원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4148억 원 편성, 4140억 원 집행, 8억 원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기금 결산입니다.

3개 기금 전체 집행액은 28조 134억 원입니다.

다음, 20쪽입니다.

기술보증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수입과 지출 모두 계획 대비 4067억 원 증가한 3조 7147억 원입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수입과 지출 모두 계획 대비 1조 562억 원 증가한 12조 7157억 원입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수입과 지출 모두 계획 대비 4조 4970억 원 증가한 11조 5830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중소벤처기업부 결산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선 지식재산처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재산처장 김용선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2대 국회 후반기 산중위 구성 이후 처음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현황과 2025회계연도 결산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 시장은 AI·반도체와 같은 첨단산업을 필두로 한 기술패권 경쟁의 각축장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날로 심화되면서 지재권이 통상 무기화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외적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지금의 경제회복세를 확실한 성장으로 굳히기 위한 새로운 돌파구가 절실한 시점이며 이를 위해 지식재산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특허출원은 AI, 바이오 등 첨단기술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역대 최고치인 26만 건을 기록하였습니다. 부족한 자원과 협소한 시장이라는 불리한 경제적 여건을 오직 기술력 하나만으로 돌파해 온 대한민국이 지금 어려운 경제적 여건 속에서도 또 다른 돌파구를 찾아가는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식재산이 그 가치를 충분히 발휘해서 우리 경제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이 있습니다. 지식재산을 활용한 수익 창출 역량 부족, 대·중소기업 간 기술 탈취와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 한류에 편승한 국내외 위조상품 유통 그리고 AI 확산에 따른 특허출원의 증가와 새로운 유형의 권리침해 행위 등은 우리가 극복해야 할 새로운 도전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하반기 지식재산처는 우리의 일상에서 시작된 창의적 아이디어와 지식재산이 국가 경제성장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의 전 주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국민의 아이디어와 기술이 거래, 사업화를 통해 수익의 원천이 되어 기업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하고 해외 기술 유출과 위조상품 유통에 강력하게 대응하는 등 우리 기술과 브랜드의 가치를 안전하게 지켜 나가겠습니다.

지식재산행정 전반의 AX를 가속화하고 심사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를 통해 기업의 권리 확보를 지원하고 지방의 향토자산과 특화산업을 지식재산으로 연계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이어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7713억 원을 수납하였고 세출은 예산현액 7899억 원 중 7670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228억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지식재산처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2025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해서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은 향후 정책 추진과 재정 운용에 충실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업무현황과 결산 내용에 대해서는 차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식재산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연우 차장입니다.

박현희 기획조정관입니다.

김일규 지식재산정책국장입니다.

김용훈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입니다.

이어서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시형 한국발명진흥회 상근부회장입니다.

강병삼 한국특허정보원장입니다.

최규완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입니다.

윤병수 한국특허전략개발원장입니다.

신상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입니다.

김명섭 한국특허기술진흥원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원 다음은 차장, 업무보고·결산보고 해 주십시오.

○지식재산처차장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입니다.

먼저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1쪽부터 5쪽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중점 추진 과제입니다.

올해 지식재산처는 국민의 아이디어와 지식이 든든한 자산이 되는 나라를 목표로 4대

분야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아이디어와 지식이 돈이 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국민의 아이디어를 성장의 동력으로 전환하는 모두의 아이디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우수 아이디어를 최종 선정하고 신속한 권리 확보와 함께 창업, 사업화, 정책 반영을 후속 지원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부처·지자체와 공동펀드를 조성해서 지방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려 가는 한편 지식재산 담보대출 취급 은행 확대, AI 가치평가를 통한 패스트트랙 도입을 통해 중소기업 성장의 마중물을 제공할 것입니다.

9쪽입니다.

대학·공공연 TLO의 역량을 강화하고 민간 거래기관을 육성하는 등 지식재산 거래체계를 고도화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지식재산의 해외 수익화를 위해 해외 특허 확보를 지원하고 수익화 전문기업 육성에도 힘쓰겠습니다.

10쪽입니다.

우수 기업과 기술을 지키는 방패가 되겠습니다.

지난 6월에 출범한 기술 유출 전담 수사조직을 본격 가동하고 기술경찰의 수사 영역을 대·중소기업 기술 탈취와 첨단기술 해외 유출 등 기술범죄 전 범위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을 통해 공정한 지식재산 시장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K-브랜드 정부 인증제도를 도입해서 해외에서 우리 기업 제품을 정부가 직접 인증하고 기업과 함께 위조상품에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AI 모니터링과 부처 협업을 통해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을 차단하고 생활 밀착형 위조상품에 대한 수사도 강화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해외 특허 괴물과 악의적인 상표출원으로 인해 우리 기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범정부 차원의 분쟁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종합 대책과 법적 기반도 마련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AI 대전환에 지식재산이 앞장서겠습니다.

특허 데이터를 분석해서 피지컬 AI 분야 특허전략지도를 구축하고 표준·원천특허를 선점할 수 있는 R&D 전략을 제공하여 AI 기술력 확보를 위한 최적의 길을 제시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우수 심사단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심사 대기 기간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청년 창업자, 메가 프로젝트와 같은 분야는 초고속 심사를 통해 빠른 권리화를 지원하겠습니다.

AI 시대에 부합하는 법·규범을 정비하는 한편 지식재산행정 전 분야의 AX도 가속화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지식재산으로 지역의 미래를 열겠습니다.

지방의 향토자산과 특화산업 기술을 지식재산으로 보호하고 이에 기반한 창업, 사업화 전략을 지원하여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우겠습니다. 또한 지방 기업의 지식재산 거래, 사업화, 보호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해 3대 권역별 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AI를 활용한 발명 활동이 확산되도록 초중고부터 AI 발명 교육을 확대하고 지식재산과 기술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차세대 영재 기업인 교육도 확대하여 창의적인 지역 인재를 키우겠습니다.

17쪽입니다.

해외에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주요 수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식재산행정시스템 수출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지식재산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이상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5회계연도 결산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의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결산 개관입니다.

2025회계연도 지식재산처 예산현액은 총계 기준 7899억 원입니다. 이 중 97%인 7670억 원을 집행했고 불용액은 228억 원, 이월액은 1억 1000만 원입니다.

총수입은 6436억 원으로 전년 대비 329억 원이 증가했고 총지출은 561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4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으로 5쪽, 회계별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7743억 원을 징수결정하여 7713억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30억 원은 미수납되었고 불납결손액은 없습니다.

세출은 7883억 원을 편성하여 예산현액의 97%인 7670억 원을 집행했고 228억 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6쪽에서 17쪽까지의 회계별 세부 운용 현황과 19쪽에서 27쪽까지의 재무결산 요약 설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 개요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회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항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산업통상부와 지식재산처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약본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부 소관, 1쪽부터 3쪽까지의 결산 개요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요.

4쪽 검토 사항,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산업기술정보화및정책지원은 연구용역사업의 지속적인 지원 발주로 전체 예산 대비 18.9%에 달하는 예산이 이월 및 불용되고 전체 예산 대비 59.4%에 해당하는 예산이 수익계약으로 집행되고 있으므로 연구용역사업 집행체계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기업수요기반차세대연구자도전혁신산업기술개발은 신규과제 선정을 사업 첫해에만 실시하도록 설계되어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지원이 이루어지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사업 추진 방식을 개선하여 신규 신진연구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로봇산업기술개발은 국비 대부분이 12월에 교부되어 연말 실집행률이 13.4%에 그치고 있으므로 실제 집행 가능한 연구 기간에 맞추어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석유비축사업출자는 2026년도 비축유 구입을 위한 정부 출자금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된 이후에 제5차 석유비축계획이 수립되어 국회가 비축계획에 관한 충분한 정보 없이 출자금 예산을 심의하게 되고 정부와 한국석유공사 간 연차별 비축유 구매 비용의 분담 기준도 명확하지 않으므로 석유비축계획 수립 시기를 개선하고 정부 출자금과 공사 자체 재원 간 분담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국광해광업공단 출자는 내역사업인 국가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구축사업의 공사비 및 감리비가 전액 미집행되었고 26년 6월까지도 착공하지 못하였으므로 향후 출자금 교부 시 출자기관의 연내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확인하여 교부 규모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6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지역균형발전지원의 내역사업인 균형발전 정보협력 및 성과확산과 균형발전사업 조사·분석·평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아닌 일반 사업출연금임에도 자체 사업비의 15%를 간접비로 계상하여 기관운영경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간접비 기준을 비R&D 사업 출연금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하고 적정 수준의 간접비가 계상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무역보험기금입니다.

기타경비와 관련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에 해당하는 민간기금 출연금을 미편성하고 매년 연말에 여유자금 중 일부를 기금운용계획변경을 통해 출연금으로 조달하는데 국회 심의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을 계획안에 편성하고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국회 예산안 심의 기간 이전에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지식재산처 소관입니다.

9쪽입니다.

WIPO 국제의무부담금은 연례적으로 예산안 편성환율과 실제 집행환율의 차이로 발생하는 원화경비 부족액을 차년도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국제사회의 신뢰도 제고 등을 위해 당해연도 예산으로 완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는 내역사업인 AI모니터링 단속 및 재택모니터링단 단속을 1분기에 실시하지 않고 있는데 위조상품에 대한 차단 조치가 적시에 실시되지 않을 경우 국민과 기업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모니터링 단속의 공백 기간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성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병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섭 전문위원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주요사항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요약본 3쪽, 공통사항입니다.

먼저 중소기업부의 정책금융사업은 유사한 정책목적의 사업이 여러 세부·내역사업으로 분산 운영되어 정책수요자의 사업 탐색에 어려움이 있으며 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제3자의 부당 개입을 초래하는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분산된 융자·이차보전 사업의 운영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보조금 집행에 있어 관련 법령·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수출지원기반활용 사업, 기업가형소상공인육성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산보고서 제출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문제가 있었고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 소공인특화지원 사업은 보조금을 최소 2회 이상 분할하여 교부하도록 규정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보조금 집행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등 집행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4쪽, 일반회계입니다.

민관공동창업자 발굴육성 사업은 팁스(TIPS) 선정기업의 후속 투자유치율이 2021년 이후 하락 추세에 있으므로 민간운영사의 전문성과 투자역량을 활용하여 유망 벤처·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고 자금 회수 및 재투자로 이어지는 벤처투자 선순환 구조를 조성하기 위해 정부 재정투자 이후 후속 민간투자 및 회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6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지식산업센터 사업은 연례적인 사업 추진 지연 및 보조금 실집행 부진 문제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집행 상황을 보다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고 각 지역별·연차별 사업 추진 상황에 맞는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부처 차원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입니다.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사업은 제2회 추경을 통해 NEXT UNICORN PROJECT 펀드 조성을 위한 출자재원 총 3000억 원을 증액하였으나 2026년 5월 현재 투자 실적은 결성 총액 대비 8.4%에 불과한 상황으로 향후 추경 편성 시에는 사업의 시급성과 집행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증을 강화함으로써 재정 투입과 실제 정책성과 간 괴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7쪽, 기술보증기금입니다.

혁신선도형중소기업투자 사업은 창업 초기 기업, 지방 소재 기업, 기계장비·소재·화학 등 전통 제조업 분야 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이 민간 벤처캐피탈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으로 민간 투자시장이 충분히 기능하지 못하는 영역을 정책금융이 보완하는 등 사업의 정책적 필요성과 양호한 투자 성과에도 불구하고 신규 투자 규모는 연간 700~900억 원 수준에 머물고 있으므로 혁신기업의 성장기반을 강화하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출연 확대 등 기금의 모험자본 공급여력을 보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8쪽,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입니다.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은 이용 건수 등 양적 지표 중심의 성과관리에서 벗어나 창업·경영개선 효과 등 질적 성과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지자체·민간 서비스와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차별화된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홍보·교육을 통해 플랫폼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성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대체토론과 질의가 있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간사 위원님 간의 협의에 따라서 5분간 답변 포함해서 주질의를 하신 후에 희망하시는 위원님에 한해서 5분간 보충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 주재 미래비전 국민보고회 참석을 위해서 12시 50분부터 4시 30분까지 이석하는 것에 대해서 간사 위원님 간 협의가 있었고 위원장이 허락했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의도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첫 번째 질의지요.

권향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위원 위원장님, 자료 좀……

○위원장 김성원 구자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구자근 위원 자료제출 요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저께 정부 여당이 아직 발의도 되지 않은 메가특별법 관련해서 연내에 제정하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에 이게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부분을 자료제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부처 간 협의하는 과정에서 자료제출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대략적인 자료제출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연내에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것이, 예정된 것처럼 공언을 하고 있는데 이게 혹시라도 상임위 패싱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아는 부분들이라서 강하

게 유감을 표시하고.

아시다시피 지금 반도체 팹 투자 관련해서 대통령과 정부에서 선정한 것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했는지 또 후보지를 대상으로 어떻게 심사 평가를 했는지 또 정부 투자 결과, 얼마나 국고예산이 지원될지에 대해 도무지 감감이입니다.

그래서 메가특별법과 관련해서 특별법 초안하고 정부 협의 내역 그리고 주 52시간, 기간제 확대 등 노동특례 관련 검토자료 그리고 법률자문 및 검토내역 등의 자료를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자료제출 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원 다음, 최수진 위원님.

○최수진 위원 자료제출 관련해서 저도 추가적으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산업부에 자료제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이 아예 없습니다. 할 수 없는 건지, 왜 안 주는 건지, 문제가 뭔지 그것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주는 것이 당연한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서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를 했었고 후속 조치로 보고자료를 분명히 냈을 텐데 기본적인 회의 자료부터 시작해서 동 사업 부처 내부보고서, 또 기업에서 했다고 자꾸 핑계를 대시는데 그러면 기업에서 보고했던 내용 이런 기본적인 자료부터 시작을 해서, 물론 앞으로 계획이나 용수, 전력, 인력 그런 구성계획은 없다고 해도 실제로 2030년까지 하게 된 사유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제가 지금 제출을 하겠습니다—이 자료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는 부분, 왜 그러는지 그리고 실제로 있는 자료 무엇인지 이것에 대한 파악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김성원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요구 자료에 따른 자료제출은 부처에서 성의를 가지고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문신학 차관님을 비롯한 중소기업부차관님 그다음에 지식재산처도 마찬가지고요. 차관님들께서 책임지고 성실하게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 지금 자료제출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하실 것은 빨리해 주시고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가서 위원님들께 직접적으로 말씀드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홍 위원님.

○윤한홍 위원 장관님, 자료 하나만 주실래요?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호남 반도체 입지가 윤석열 정부에서 확인됐다 이렇게 하면서 어떤 기사를 하나 공유했어. 그 기사에 보면 2023년도 시행된 산업통상부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공모 과정에서 광주·전남이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하는 내용이 그 기사에 담겨 있거든요. 그 자료 좀 주실 수 있습니까?

○위원장 김성원 장관님은 이따가 보고회 가시니까 문신학 차관이 좀 챙겨서 윤한홍 위원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원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권향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향엽 위원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지역구 국회의원 권향엽입니다.

먼저 산업부장관님과 이하 관계 공무원님들 그리고 소관기관장님들, 상반기에 중동전

쟁 신속 대응을 위해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부장관님, 8월 3일 날 세제 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한다는 것인데 해당 품목이 바로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 소재, 인공지능, 로봇 6개 분야입니다. 전제는 중요성, 유망성, 필요성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그런데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산업의 균형 배치가 중요하다고 말씀들 하셨는데 모호한 게 핵심 소재입니다, 세제 발표안에 있어서요. 자세한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담는다고는 하지만 철강과 석유화학 등 전통 주력 산업에 대한 지원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장관님, 전통 주력 산업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외에 직접적인 지원이 더는 없는 건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 위원님 말씀처럼 철강과 석유화학 원재료도 그 어느 부분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세법이나 시행령 개정 사항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향엽 위원 5국 3특 메가프로젝트 그다음에 전통 주력 산업에 대한 지원은 각 산업과 생태계가 서로 극대화되어야 더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철강은 조선과 재생에너지 등 국내 전후방기업과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관님, 저는 핵심 소재를 잘 분류해서 철강 산업도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산업부는 어떤 전략으로 재정부와 협의하실 계획인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핵심 소재, 특히 철강 같은 경우는 우리 모든 산업의 기초이자 기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생산세액공제 제도를 만들면서부터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특히 철강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저탄소 이게 철강 분야에서도 앞으로 유망 사업이고 석유화학 같은 경우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사업을 재편해야 될 때 핵심 분야라는 입장이고 그게 결국은 국내 생산, 국내 생산이 결국 일자리, 이게 다 연결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부처 협의 그리고 또 이게 꼭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향엽 위원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관님, 또 보니까 작년 12월에 로봇, 방산, 이차전지 분야를 중심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광양만권, 저의 지역구이기도 합니다만 이차전지 분야의 소재·부품 특화단지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지금 현재 소위원회에서 검토 중에 있고요. 저희들이 일정상으로는 한 9월, 10월 정도에 조정위원회를 거치고 나서 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지정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권향엽 위원 당초에는 7월경 이렇게 결과 발표를 한다고 그랬는데 한성숙 국무총리께서 총리가 되시고 이러면서 조금 더 늦어진 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업부가 현재 5국 3특 성장엔진을 준비하고 있고 업무보고에서도 보니까 8월 중에 협의회를 거쳐서 최종 발표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준비는 잘되고 있으시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권향엽 위원 구두로 확인한 내용입니다만 산업부가 5극 3특 성장엔진을 먼저 준비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이와 적합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 맞습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클러스터나 그 지역이 같은 집적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는 중이고요. 딱히 그에 연관된 건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5극 3특의 성장엔진에 대한 부분하고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하고 연계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권향엽 위원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저도 공모 시에 로봇이라든가 방산, 이차전지 분야가 우선순위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관계 부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경우는 반도체, 우주발사체, 군공항 이전 같은 대형 사업이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광양만권 이차전지는 추가 지정이 어렵다고 하는데 산업부 입장 맞습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그런 내용들은 면밀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이차전지도 어느 분야보다도 중요한 분야라고 저희들이 인식은 하고 있어서 그런 분야는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향엽 위원 전통산업들에 대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통성과 연계성을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만권 이차전지 특화단지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위원장 김성원 감사합니다.

오늘 장관께서 이석을 해야 되니까요 위원님들 양해말씀 좀, 질의시간을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김도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읍 위원 장관께 여쭙겠습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 이것 정부에서 지원이 있습니까? 지원이 있다면 얼마가 있습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정부에서 지금 현재 그런 내용들이 구체적인 지원이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로 인프라 지원, 입지 지원 그리고 산업이 빨리 지속적으론 추진돼서 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 그리고 관련되는 규제나 인프라……

○김도읍 위원 그러니까 지원은 있다는 이야기인데 추계로 얼마 정도 지원을 합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지금 현재 구체적인 규모는 아직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추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도읍 위원 대략 얼마 정도 추계합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지금 현재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

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아직 한창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도읍 위원 지금 업무보고서 12쪽에 보면 호남권 반도체 성장 거점, 삼성 425조, SK 470조, 이것은 회사가 부담하는 거예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러면 정부는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회사가 투자를 하겠다는 투자계획입니다.

○김도읍 위원 이것 확정된 거예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유동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되고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이렇게 여쭙보겠습니다.

호남권 반도체 성장 거점, 누가 제안했습니까? 중요한 질문입니다. 누가 제안했습니까? 회사가 했습니까, 아니면 장관님이 했습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반도체 투자 거점 그 자체는 기업들이 일단 주도적으로 먼저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도읍 위원 기업이 광주로 가겠다고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기업 입장에서……

○김도읍 위원 정확하게 말씀을 주십시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기업 입장에서 반도체 생산기지가 필요했고요 생산부지가 필요했고……

○김도읍 위원 기지가 필요하다는 것까지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광주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 누가 먼저 제안을 했냐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했습니까, 장관님이 했습니까? 아니면 삼성전자가 했습니까, SK하이닉스가 했습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그게 저는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김도읍 위원 주무 장관께서 그걸……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저희들 생각에는 누가 제안했다 그러기보다는 저희가 일단 기업 입장……

○김도읍 위원 아니, 그러면 청와대의 이재명 대통령하고 이재용 회장하고 최태원 회장하고 우연히 만나서 이것 발표한 거예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다양한 부지를 저희들이 제안한 건 맞고요. 그 부지를 선정한 건, 이 부지가 괜찮겠다 하는 것은 기업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 줬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런데 그게 말이 안 맞는 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공시 내용을 보십시오. 이게 억지로 공시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공시된 내용들이 됩니까? 현재 상황에 따라서 공시가 되지만 추후에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또 이사회 승인을 거쳐야 할 사항이다, 그러니까 가변성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공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기업이 제안을 했다? 장관님 말씀 잘하셔야 돼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기업이 제안했다고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제가 기업은 입지가 필요했고……

○김도읍 위원 아니,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에는 서남권이라고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될 광주를 꼭했다는 거예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기업은 부지가 필요했었습니다.

○김도읍 위원 부지가 필요하다는 건 알아요. 인력 또 물, 전기, 모든 조건이 성취가 되는 그런 부지가 필요한 건 맞아요. 그런데 왜 광주냐고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거기에 대해서……

○김도읍 위원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정리합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정부에서 제안을 한 거지요.

○김도읍 위원 누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정부가 제안을 한 겁니다.

○김도읍 위원 그러니까요. 정부가 제안했다고 그 말을 왜 이때까지 끝나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제가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기업은 부지가 필요했고 필요한 부지에 대해서 정부가 제안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정은 기업이 했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러니까 광주를 들고 왔다는 거지요?

그런데 장관님하고 고용노동부장관하고 이 회사들의 이익에 대해서 의견이 나뉘어요. 그런데 상당히 조심스럽지만 이 정부가 교묘하게 이걸 강요하는 거예요. 첫째, 지금 분명히 두 회사는 변동 가능성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국민들께 공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28년까지 군공항을 이전해라, 계획도 없어요. 그러면서 김영훈 장관은 또 어떤 이야기를 하나면 세금을 가지고 압박을 해요. 초과이익 분배를 압박해요. 이게 뭐냐? 나중에 직권남용을 피해 가기 위해서 청와대는 피하고 고용노동부하고 총리실의 사회대개혁 연대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 이런 말씀까지만 지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원 감사합니다.

장관님, 나중에 속기록 찾아보십시오. 장관님 답변에 기업이 먼저 제안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2개월 전에 최태원 회장이 국회에 와 가지고 호남 쪽으로 갈 계획 없다고 말씀하셨고 2개월 뒤에 3대 메가프로젝트가 발표가 됐어요. 나중에 한번 보시자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원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이 위원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SK하이닉스하고 삼성이 용인·평택·이천 이런 데 있는데요. 지금 현재 계획까지는 지어야겠지요. 현재 계획돼 있는 건 지을 텐데 그 이외에 추가로 지을 여력이 있습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아쉽게도 없습니다.

○김원이 위원 그러니까 용수·전력·부지 다 안 되는 거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김원이 위원 사실 그런 여유만 있으면 지금도 수도권에서 지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용수·전력·부지 이런 데서 근본적인 한계에 봉착한 거지요? 그 비용 들어서, 그 돈 들어서 물건 만들어 갖고는 더 이상 경쟁력이 없는 거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김원이 위원 그래서 결국은 다른 대체 대안을 찾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까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부지가 필요한데 정부하고 협의한 거겠지요. 그래서 기업과 정부와 이런 것들이 골고루 협의하면서 나온 과정이지요? 그 과정에서 광주 군공항이 새로운 반도체 클러스터로서의 최적지로 결론 난 것 아니에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김원이 위원 삼성이나 SK하이닉스나 LG 등등의 초거대 기업들이 정부 말 들어요? 정부가 팔 비틀면 비틀어집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그런 세상은 아닙니다.

○김원이 위원 그분들이요 미국의 트럼프가 그렇게 강요하는데도 안 하고 버티고 있는 그런 기업들 아니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김원이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산업의 변화에 따라서 노동환경이나 노동시간, 노동형태가 변화해 오고 있습니다. 1970년대에는 봉제라든가 가발, 신발이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이어서 노동집약적 노동형태를 가졌었고요. 또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들어오면서는 석유화학, 철강, 내연 자동차 이런 것들이 중심적인 우리나라의 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노동시간과 노동환경이 조성됐지요.

이제는 2000년 넘어오면서 새로운 산업으로 전환됐습니다. 반도체, AI, 이차전지, 전기차 이런 식으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거기에 맞는 새로운 노동환경, 노동시간, 노동형태 이런 것들이 필요해지고 있는 거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김원이 위원 한번 묻겠습니다.

그래서 노동자의 비중이 예전에 이른바 블루칼라와 화이트칼라로 나눈다면 노동자 비중이 연구개발 노동자가 지금 현재 노동자들 내에서 어느 정도 비중입니까? 산업부장관님께 여쭙기는 좀 그런가?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제 머릿속에 있는 숫자는 한 20% 내외의 언저리……

○김원이 위원 1980년대, 90년대하고는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연구개발 노동자들의 비중이 늘어난 거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원이 위원 거기에 맞는 새로운 노동환경들을 조성해 나가야 될 텐데 연구개발 노동자들의 평균 노동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연구개발이라고 딱히 지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주 50시간제 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원이 위원 그렇지요. 반도체 특별법이 통과됐는데도 그때도 52시간 예외 조항 논란이 있었는데 혹시 반도체 특별법이 통과된 이후에 연구개발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습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김원이 위원 그렇지요? 저는 사실은 반도체, AI, 이차전지, 자율주행, 전기차 이런 산

업에 맞는 노동시간, 노동형태, 노동환경 이런 것들에 맞는 노동에 대한 규정들이 새롭게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실제 정부에서 메가특구 특별법을 준비하면서 폭넓은 근로시간 특례를 담을 계획이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말씀드리기 조심, ‘폭넓은’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조심……

○김원이 위원 근로시간 특례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김원이 위원 어떤 게 논의되고 있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대표적으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이런 내용이라든지 현재 유연근무시간 제도라든지 다양한 형태에 대해서 서로 논의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이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현재 주 단위인데 그것을 월이나 분기, 반기로 늘리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논의되고 있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일단 다양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원이 위원 그리고 장기 탄력근로제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부처 간 협의 중입니다.

○김원이 위원 거기에 포함해서 52시간 예외 조항까지 논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김원이 위원 저는 솔직히 쪽 얘기했던 대로 산업환경이 바뀌어 왔고 항상 그 산업환경이 바뀌어 오는 만큼 노동의 형태라든가 노동환경, 노동시간도 변화해 왔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강제적으로 하기보다는 산업부와 산업계와 노동계가 이제는 만나서 충분하게 대화를 나눠야 되는 그런 단계가 와 있고 그 과정에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문제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충분히 논의할 때가 됐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말씀한 대로 산업계와 노동계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 산업부, 고용노동부가 지금 머리를 맞대고 긴밀하게 논의 중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원이 위원 이게 새로운 노동형태를 만들어 내는 것이어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갔으면 하는 기대입니다.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원 김원이 위원님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기업의 팔을 비틀었는데 비틀릴 수가 있냐라고 질문하셨는데 팔 비틀었는지, 어느 정도로 비틀었는지, 그래서 기업이 비틀렸는지 국회가 밝혀 내야지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김의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의겸 위원** 앞선 위원님들 반도체 이야기 많이 하셨는데 저는 로봇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장관님께서 로봇 짜르를 해 보고 싶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의겸 위원** 그 이유가 뭐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로봇산업이 새로운 산업인 데다가 관련되는 규제, 입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공백 상태처럼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느 누군가는 책임지고 한번 전체 그림을 그려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김의겸 위원** 그만큼 성장 가능성이 크고 해 볼 만한 산업이다 이런 의미시겠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김의겸 위원** 그 연장선에서 장관님께서 휴머노이드 점유율을 현재 1%에서 20%까지 끌어올리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얼마 전에 방문한 엔비디아 젠슨황도 퍼지컬 AI 시대에 한국보다 더 준비된 나라가 없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가 객관적인 조건도 갖추고 있고 또 의지도 충만해 보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실제로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선 장관님께서 며칠 전에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회의 때 공공구매에 대해서 700대, 1000대를 말씀하셨고 대통령께서도 부족하지 않냐 이런 지적을 받으셨습니다. 짜르 치고는 조금 꿈이 너무 소박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예산 문제 때문입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일단 예산 문제가 가장 큰…… 정부가 구매, 공공 부문이 구매하는 부분이다 보니 사실 그것도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했던 부분인데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더 크게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김의겸 위원** 휴머노이드 점유율 2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사실 현대차가 먼저 깃발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차만으로는 되지 않고 현대차가 뼈대를 세웠다면 피와 살이 되는 게 결국 부품업체들, 다양한 부품업체들이 생태계를 갖추고 클러스터를 만드는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하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부품업체의 국산화율이 40%에 멈추고 있고, 정부는 그걸 지금 몇 퍼센트까지 끌어올리겠다 그런 의지가 있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특히 주요 핵심 부품, 액추에이터부터 센서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꼭 저희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수준까지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의겸 위원** 중국의 경우를 보면 베이징·선전·상하이·광저우 이런 곳에 앵커기업도 있지만 수백 개, 수천 개의 클러스터가 조성이 돼서 부품이 필요하다 그러면 오전에 주문하면 바로 오후에 나오는 그런 굉장히 역동적인 생태계가 구성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런 방식으로 가야겠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김의겸 위원** 그래서 최근에 산업부에서 K-로봇 실증공유센터 이걸 만들어서 생태계를 만들어 보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고는 있는데 이게 기획예산처 단계에서 제동이 걸리

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타를 거치지 않았다 등등의 이유인데 지금 로봇산업의 진화 주 기라고 할까요 이런 걸 보면 예전에는 1년, 2년 이런 단위였는데 지금은 6개월 또 최근에는 3개월 단위로 발전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타라든지 중기재정계획, 총사업비 관리제 이런 통상적인 1년 단위의 예산 시스템 사이클로는 이렇게 빨리 발전하는 산업을 뒤쫓아가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되는데 생각이 어떠세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시고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예산 당국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로봇 산업이 전북 그리고 대구, 어떻게 보면 두 지역으로 이렇게 기둥으로 딱 서 있는 부분이고 서로 지역별로도 나름대로 클러스터로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어서 잘 키우면 좋겠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시대는 정말 빨리빨리 변하고 있고 하는데 우리 예산은 1년 단위로 하는, 1년도 굉장히 긴 시간인데 저희도 그런 부분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의겸 위원 이걸 제 지역구 문제뿐만 아니라, 우재준 위원님 제 앞에 앉아 계시고 또 공교롭게도 제 옆방이십니다. 옆방이신데 대구와 새만금이 같이 로봇산업의 중요한 두 기둥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장관님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시고 특히 K-로봇 실증공유센터 한 번 더 챙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원 감사합니다.

다음, 박성민 전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민 위원 박성민 위원입니다.

장관님, 광주 반도체가 정부에서 6월 29일 날 800조 계획 발표했고 7월 6일 날 청와대에서 결정했다 이렇게 됐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박성민 위원 사전에 어떤 절차를 통해서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까? 통상적으로 메가프로젝트라고 하는 그런 국가적인 큰 프로젝트를 하려면 지방정부에서도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용역이나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발표를 할 텐데 정부에서는 어떤 절차를 거쳤습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작년 말부터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업들은 반도체 수요가 거의 폭발하다시피 하고 있는 상황이라 부지가 필요했고……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어떤 절차를 거쳤냐고요.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이런 것 당연히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지금 현재 있는 단계는 그 단계는 아니었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안 거치고 발표부터 먼저 했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기업이 필요했고 지금은 일종의 기업이 필요한 부지를 정부가 제공한 형태인 것 같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래서 청와대에서 먼저 발표부터 하고 23일 뒤인 7월 29일 날 입지정책 심의·의결을 받습니다. 받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너무…… 지금까지 산업부에서 대미 관세도 했고 심해 자원개발이라든지 이런 것 여러 가지 했는데 보면 정책이나 발표보다는 절차상도 그렇지만 무조건 내지르고 보자 이런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후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현 정부 대통령께서 너무 서두르고 있는 것 아닌가.

어제 세종에서 국무회의 하셨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박성민 위원 장관께서도 대통령께 광주 펍을 3년 이내에 1차 완공하겠다고 했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반도체 경쟁력을 잃을 것 같습니다.

○박성민 위원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절차를…… 그것 구마모토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구마모토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업계에서도 최대한 빨리해 달라는……

○박성민 위원 부지도 2028년도에 조성한다고 돼 있고 특히 전력이나 용수 문제가 당장 그렇게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장관께서는 3년 이내에 펍을 완공하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시는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다분히 정치적이다, 2028년도 총선이나 2030년도의 대선을 겨냥한 정부의 인기성 정책 아니냐 국민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제가 정치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반도체를 담당하는 산업부장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는 29년, 30년도 느리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느리지요. 느린데 절차를 보면 보통 8년, 10년 이상 다 걸려서 그렇게 운영되고 준비가 되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부지 선정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력이 거기 충분합니까? 어떻습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전력은…… 그러니까 일단 과정을 좀 설명드리면 예를 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업입지 단지를 정부가 정하고 기업이 들어오는 과정을 거치는 게 아니라 기업이 땅이 필요했고 부지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지가 어디가 적절하냐? 부지 중에서도 말씀하신 전력, 용수……

○박성민 위원 그 부지는 광주 군공항이 왜 전국에서 가장 적합했다고 생각합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일단 그 부지가 수용 이슈라든지 그런 이슈가 없고 그렇게 평평하게 한 300만 평 정도 가지고 있는 부지를 찾기도 쉽지 않았고 그리고 전력이나 용수 면에서도 현재 가장 빨리 얻을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박성민 위원 부지도 마찬가지고 전력도 마찬가지고 용수도 마찬가지고 다 부족한 그런 여건입니다마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좋습니다. 호남 쪽에도 이런 산업을 일으켜야 된다 하는 차원은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마는 그런 말씀을 왜 전혀 안 하시고 계속 억

지만 하고, 사실은 호남 쪽도 어느 정도 재생에너지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전력 문제라든지 이런 걸 한번 해결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왜 전혀 안 합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말씀 안 드린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것…… 저는 반도체도 담당이고 지역균형도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 두 가지를 같이 할 수 있는 지역이 그 지역이 된 거라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국민들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말씀을 해 주시고 절차도 좀 꼼꼼하게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위원장 김성원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아까 김도읍 위원 질의 때는 ‘기업이 먼저 제안을 했다’라고 하시고 지금 박성민 위원 질의에는 ‘기업에 필요한 부지를 정부가 제공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그것 제가 김도읍 위원님 그때……

○위원장 김성원 제가 아직 얘기 안 끝났어요.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기업이 부지를 필요로 한 것은 맞는데 광주를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2개월 만에 바뀐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서 하나하나 밝혀 나가실 텐데 자꾸 말 돌리지 마시고 투명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셔야지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위원장 김성원 다음은 차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혜련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원 예,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백혜련 위원 제가 김성원 위원장님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면서 제가 볼 때는 위원들 간의 질의 내용에 과도하게 개입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이 질문과 답을 정하시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장관에게 요구하면 장관으로서는 굉장히 답변에 대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회의를 진행하실 때 그 부분을 약간 고려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원 예, 알겠습니다.

차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규근 위원 장관님, 유통산업발전법 그것 산업통상부 소관 법률이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차규근 위원 유통산업발전법 그리고 무역위원회하고 국가기술표준원 다 산업통상부 소속이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차규근 위원 그것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쿠팡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쿠팡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한번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쿠팡에 중국 판매자들이 있는데요. 중국 판매자들의 입점 심사기간이 단축된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모르겠습니다.

○차규근 위원 이게 작년 12월 달에 개인정보 유출로 쿠팡 탈퇴가 많이 이루어질 시점에 쿠팡에서 중국 현지 입점 설명회를 개최했어요. 그래서 올해 1월 30일에 샤먼 설명회에서는 한국에 법인이 없더라도 입점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입점 심사기간이 최장 45일에서 최소 하루로 단축이 이렇게 파격적으로 됐습니다. 아마 추격 업체들 의식한 그런 조치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우리 소상공인들은 사업자 등록을 하고 통신판매업 신고하고 KC인증 받고 세금 내고 시작하는데 중국 판매업자들은 한국에 법인이 없어도 이렇게 입점을 해서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중국 판매업자들이 유한회사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아주 작게 표시돼 가지고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또 문제가 뭐냐 하니까 아이템 위너라는 게 있는데 이게 같은 상품으로 묶이면 단 1명의 소비자에게 보이는데, 그리고 위너가 바뀌면 앞선 판매자가 수년간 쌓은 리뷰와 별점이 그대로 넘어간다는 거지요. 이런 문제도 혹시 보고를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지금 위원님께 처음 듣습니다.

○차규근 위원 그러신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차규근 위원 이것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한 해외 판매자가 몇 곳이고 그중에 국내 법인도 없는, 이런 책임 주체가 없는 곳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국내 법인이 없다 보니까 제품의 하자로 인해 가지고 손해배상 판결을 받더라도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KC 안전번호까지 도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국가기술표준원 아까 산업부 소속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차규근 위원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KC 인증번호 도용 실태점검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것도 좀 챙겨 봐 주십시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러겠습니다.

○차규근 위원 그리고 오늘 아침에 쿠팡에서 온 무선이어폰 하나 무작위로 열어 봤는데 이것 화면 한번 보시면 로켓 배지에 별점 4.5, 상품평 3917개, 88% 할인, 내일도착, 아마 대부분 국민들은 혹해 가지고 바로 구매를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로켓배송이 아니라 판매자로켓입니다. 그러니까 하자가 생기면 쿠팡은 ‘우리는 중개만 한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자 때문에 손해배상 판결을 받더라도 국내 법인이 없으니까 집행을 못 하는 문제가 생기고 우리 소비자의 피해가 지금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손을 대는 부처가 지금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작년 9월 언론 취재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내부 정책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 또 특허청은 판매중지 절차는 민간 영역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사이에 온라인 플랫폼 분쟁조정은 올해 상반기에 442건인데 작년 같은 기간 200건에서 121% 늘어났고요. 지난해 전체 분쟁 조정에서 온라인 플랫폼 중에 쿠팡이 최대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통산업발전법이나 또 무역위원회나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통상

부 관련 법률과 기관이지 않습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차규근 위원 그래서 지금 쿠팡이 한 손에는 미국이라는 방패를 들고 또 국내법 집행을 미국 기업 차별이라는 통상 문제로 바꿔 놓았는데 다른 한 손으로 이렇게 하루 만에 중국 판매자를 들여놓았습니다. 그 방패와 창 사이에 우리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관련해서 세 가지를 장관님께 요청드립니다.

첫째로 유통산업발전법 7조의4에 근거해서 온라인 플랫폼 입점 판매자 실태조사를 바로 착수해 주십시오. 그다음 두 번째로 무역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유통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직권조사에 착수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통상 대응과 별개로 소비자, 입점 소상공인 보호대책을 마련해서 조만간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위원회에 또는 저희 의원실에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한번 관련 법하고 말씀하신 내용들 면밀히 살펴서 필요한 부분들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규근 위원 좀 잘 챙겨 주십시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위원장 김성원 차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승 위원 반갑습니다. 남원·장수·임실·순창 국회의원 박희승입니다.

이번에 광주 등 반도체 대규모 투자는 특정 지역의 산업단지 조성을 넘어 수도권에 집중된 반도체산업을 지방으로 확산하는 국가 산업전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도체산업은 생산시설만으로 완성되지 않으며 전력, 용수,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물류, 인력 등이 함께 연결되어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산시설이 위치한 지역만이 아니라 인접 권역의 기존 산업기반과 자원을 연계하는 광역적 산업생태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특히 서남권은 지역별로 전력·용수 공급 여건과 산업기반이 서로 다른 만큼 행정구역을 넘어 자원을 공동 활용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아마 특정 지역의 전력, 용수 등 자원을 활용하면서 자원을 제공하는 지역에는 산업 고용, 기업 유치 등의 효과가 충분히 돌아가지 않는다면 새로운 지역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이번 투자를 개별 산업단지 사업이 아니라 서남권 전체를 하나의 첨단산업 생태계로 연결하는 광역 산업전략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지금 현재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박희승 위원 그래서 지역별 강점에 따라서 생산 또 소부장, 연구개발, 에너지인력 양성 기능을 분담해서 권역별로 산업 분업 모델을 검토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반도체는 대표적으로 전국이 사실상 반도체클러스터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에 생산거점이라면 충청권이 패키징거점이고 지금 서남권이 새로운 생산거점으로 돼 있다면 구미반도체는 소부장…… 또 소부장 같은 경우는 산업이 이렇게 대규모로 커지다 보니까 지금 예를 들면 전북 같은 경우도 반도체 소부장에 굉장히 여러 업체들이 같이 담겨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전국이 반도체클러스터를 해도 지금 충분하지 않을 정도로 그런 산업이 커지고 있는 분야라고 생각

합니다.

○박희승 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런 소부장 기업들은 광주 인근에만 자꾸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아까 말한 대로 이런 광역 산업전략을 잘 만들어서 또 수도권 일극뿐만 아니라 또 호남 지역에서도 특정 지역만 개발하는, 그래서 또 불만이 생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살펴보겠습니다.

○박희승 위원 그리고 2025년 산업통상부 공모사업 352건을 분석한 결과 시행 지역이 특정된 사업이 127건, 총 7727억 원에 달합니다. 인구감소지역은 선정 건수로는 전체 26%를 차지했지만 예산 규모는 13.8%에 그쳐 사업 규모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구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단지 등 일정한 산업기반을 전제로 하는 사업이 상당수를 차지하면서 산업기반이 취약한 지역은 정부 지원을 통한 산업기반을 확충할 기회 자체를 얻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산업기반이 있는 지역은 정부 지원을 통해 더욱 성장하고 기반이 부족한 지역은 공모사업에서 배제되면서 산업 격차가 다시 확대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현재 산업통상부 공모사업이 이러한 지역 간 산업기반 격차를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저희 산업부를 전체를 다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그런 기본 방침을 모든 부처가 마찬가지로 하지만 저희 산업부는 특히 하고 있는데 혹시 미처 저희들이 발견하지 못하거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제도도 바꾸고 예산편성이나 이런 내용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다 마찬가지로 지입니다마는 저희 부의 확고한 방침이 지방을 중심으로 가겠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고는 있지만 혹시 우리 실무자들이나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거나 하면 이야기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희승 위원 그래서 산업단지나 대규모 기업이 없는 지역도 참여할 수 있는 별도의 정책적 진입 경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정성적 평가지표를 반영한다든지 이를테면 산업기반 취약지역을 위한 지역특화사업 트랙을 신설한다든지 지역별 공모사업 선정 및 예산 현황의 정기적인 공개, 국회 보고 등을 추진할 의향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좋은 아이디어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들, 특히 지방 부분에 대해서는 낙후지역 그리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다고는 하는데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지영 위원 부산 동래구 서지영 위원입니다.

아까 김도읍 위원님 질의에서 장관님께서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아까 메모를 했었는데요. 김도읍 위원님께서 지역을 어떻게 선정했냐, 누가 했냐라고 질문하셨을 때 장관님께서 기업 주도적으로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질의응답이 이어

진 다음에 뭐라고 하셨냐 하면 ‘다양한 부지를 저희가 제안을 한 건 맞고요, 그 부지를 선정한 것은 기업이 최종적으로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관님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기업이 먼저 제안을 한 거 맞습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그러니까 그 제안이 광주를 제안한 건지 아니면 부지가 필요하다고 제안한지에 따라 제 답변이 좀 달랐던……

○**서지영 위원** 그러면 나중에 추가적으로 답변 제대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다양한 부지를 제안했는데 최종적으로 기업이 선정했다 했습니다. 그러면 장관님, 다양한 부지를 제안한 것은 산업부입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

○**서지영 위원** 그 다양한 부지는 어디어디였습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제가 딱히 답변을 드리기는 좀……

○**서지영 위원** 그러면 장관님 오후에 오실 때 그거 체크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러겠습니다.

○**서지영 위원** 다양한 부지를 어디를 제안했는데 SK와 삼성이 어디를 선정을 한 것인지, 그 과정에서 어떤 논의가 오간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장관께서 답변을 오후에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오전의 이 논란들이 깔끔하게 해소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서지영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에 질문드릴 것은 최근에, 오늘 업무보고 보니까 당초에 메가특구법 관련해서 보도가 나왔던 것은 원래 8월 초에 법안을 제출한다고 했었는데 오늘 업무보고에서는 연 내라는 표현으로 바꿨고 최근에 강훈식 실장도 연내에 제출한다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보도에서. 왜 늦어졌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거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에 대한 부처 협의 과정에 있습니다.

○**서지영 위원** 그러면 최근에 7월 27일 날 고용부가 기노위 위원들에게 노동 규제 완화에 관한 내용이 담긴다는 보고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그것이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구자근 위원님께서 메가특구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처의 절차나 진행 상황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산업부는 위원들에게 그런 자료 제공을 못하고 있고 고용노동부는 그것을 국회의 몇몇 위원들에게 보고하는 걸까요? 고용부가 하는 걸 산업부는 왜 못 합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지금 그 법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산업부 소관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 관련되는 부처가 그 상임위하고 논의하는 과정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국토부 안건도 있고, 국토부 내용도 있고 기후 환경부 내용도 있고 고용노동부 내용도 있고 보건복지부 내용도 있습니다.

○**서지영 위원** 알겠습니다.

고용부가 보고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양 부처에서 모두 다 사실은 부인을 했지요. 그런

데 재미있는 게 7월 27일 날 이 보도가 나가고 나서 8월 3일 날 양대 노총에서 엄청난 반박 성명을 냈습니다. 그러니 바로 8월 5일 날 고용부장관은 기자간담회를 해서 황당무계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고용부장관의 발언이 굉장히 회자가 됐었는데요. ‘반도체특별법에서도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이 안 들어가면 양꼬 빠진 찌뽕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없는데도 어마어마한 실적을 내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건강한 토론이 어렵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부장관의 입장에 대해서?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고용노동부장관 입장에서는 저렇게 보실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은 합니다.

○서지영 위원 그런데 장관께서는 바로 그다음 날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하셨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서지영 위원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열심히 일해 성취하겠다는 사람들의 의욕과 의지를 제도가 꺾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장관님의 견해와 소신은 변함없으시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습니다.

○서지영 위원 그러면 메가특구법이 적용이 되고 이 프로젝트가 진행될 때 노동관계에 대해서 유연한 정책을 도입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산업부장관으로서 밀어붙일 의사가 있으신 겁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그런 논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서지영 위원 누구와 하고 있습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지금 고용노동부장관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서지영 위원 제대로 부처 간의 협의가 잘 되기를 바라지만 지금의 양상은 고용부장관과 산업부장관께서 정 다른 산업적·노동적 사고를 가지고 대치하고 있는 듯이 보이고 그 사이에 양대 노총이 굉장히 저항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가 있었지요? 민관합동회의 있었지 않습니까? 그 회의에서 주 52시간 규제 완화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잠깐 나왔었습니다.

○서지영 위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비공개 회의라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서지영 위원 공개할 수 없는 내용입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부처 간에 서로 지금 공개적으로 이야기했던 내용과 비슷한 수준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서지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적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혜련 위원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부지 선정과 관련한 질의를 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장관님, 정말 우리나라의 반도체산업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단기간에 급속

하게 수출이 되고 더 많은 생산이 필요한 상황이 됐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습니다.

○백혜련 위원 그러면서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추가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검토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이 먼저 추가 생산할 수 있는 부지 같은 것들에 대한 그런 검토가 이루어진 건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그렇지요.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시간이 급한 상황입니다.

○백혜련 위원 그래서 광주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부지를 제안을 한 것이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부지를 찾고 있었고요. 저희 입장에서 그렇게 급하게 기업들이 찾으리라는 생각은 못했었습니다, 미처. 그런데 기업들이 그만큼 지금 현재 생산이 긴박한, 급박한 상황입니다.

○백혜련 위원 그 상황에서 마지막 광주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정부나 산업부의 어떤 압박이라면 압박 그런 것들이 있지는 않았나?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저도 이게 정치적으로 논의되는 것에 대해서 좀 당혹스러운 입장인데요. 기업 입장에서 하루라도 더 빨리 들어갈 수 있는 부지, 그러니까 전력이나 용수가 다른 지역보다 더 빨리 갈 수 있고 비교적 빨리 구할 수 있는 부지가 필요했던 거고 그게 어떻게 보면 광주하고 맞아 떨어진 부분이고 조금 전에 있었습니다만 그게 정부 입장에서는 국가균형발전하고도 같이 여러 가지 맞아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백혜련 위원 제가 봐도 지방의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광주가 굉장히 많은 적절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전문가가 아니고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 토지도 지금 군공항 부지잖아요. 그런 경우에 수용의 문제라든지 그런 거에서 훨씬 더 자유롭지요, 굉장히. 그리고 굉장히 넓은 땅입니다. 그리고 용수 문제에 있어서도 충분한 용수가 있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력 같은 경우는 광주지역 같은 경우에 재생 에너지가 어떤 지역보다도 전남 쪽으로 해서 풍부한 지역으로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토지·용수·전력에 있어서 광주가 어떤 지역보다도 저는 굉장히 우수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미 늦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일본과 대만 그리고 미국까지도 보면, PPT 띄워 주세요, 그 법.

(영상자료를 보며)

사실 우리가 반도체특별법이 올해 1월에야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2022년 8월 1일 날 시행해요, 경제안전보장추진법. 대만 같은 경우는 2023년 1월 1일, 미국 반도체·과학법이 2022년 8월 9일이에요. 우리가 법만 해도 지금 다른 경쟁국에 비해서 훨씬 더 늦은 출발인 거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습니다.

○백혜련 위원 사실 저는 국회가 반성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반도체특별법 통과시키는 데 이렇게 많은 시간 걸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메가특구도 8월에 할 거를 왜 연내로 바꿨나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시는 데 저는 8월에 절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준비가 안 돼서도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국회에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 국회에서 지금 8월 달에 법안 내면 통과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정부에서도

법안을 내 주시고 국회에서 치열한 토론을 거쳐서 좋은 법안이 통과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속도전이에요. 장관님도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속도전이다 말씀하셨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습니다.

○백혜련 위원 그래서 지금 무엇보다도 정말 빠른 시간 내에…… 이 반도체 호황이 솔직히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이럴 때 지금 빨리 우리가 승기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빨리 속도전을 해야 될 것이고 거기서 제가 하나 꼭 요청드리고 싶은 게 부처 간의 칸막이입니다.

지금 메가특구법도 그렇고 이게 산업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여러 가지 진짜, 국토부 그리고 고용부, 모든 부처가 같이 연관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 부처의 이기주의를 가지고 자기가 주도권을 쥐겠다고 하면 절대 이 산업이 속도전을 가지고 추진될 수가 없어요. 산업부가 전담 매니저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전담 매니저의 역할도 내려놓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실까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습니다. 속도를 낼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진짜 부처 칸막이도 정말 좋으신 말씀이고요. 정말 속도만 낼 수만 있다면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재봉 위원 장관님, 그동안 반도체산업의 경우는 지방의 수많은 도시들이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한 많은 노력을 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삼성·SK 수도권에만 꼭 짓겠다 고집하는 바람에 지금 용인·평택 반도체클러스터가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여기는 전력·용수 문제 또 엄청난 추가적인 비용 부담 이런 걸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풀어야 될 숙제가 많은 거잖아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습니다.

○송재봉 위원 그래서 반도체기업들의 입장에서 볼 때도 미래에는 전력과 용수 공급, 인프라가 원활히 잘 갖춰진 지역을 가는 것이 여러 가지 인력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의 부분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더 중요한 요소가 된 거 아닙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맞습니다.

○송재봉 위원 특히 호남지역을 선택한 이유는 전기도 중요하지만 그중에서도 재생에너지가 풍부하기 때문에 더 큰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것도 동의하시나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습니다.

○송재봉 위원 같은 전기라도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이 더 기업의 입장에서 유리한 지역이 되는 거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송재봉 위원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정부의 정책 의지,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 추구하는 지역주도성장, 국가균형의 발전, 특히 지방소멸시대에 산업을 통해서 지역의 경쟁력을 키우고 또 산업의 경쟁력도 키우자라고 하는 그 전략적 목표와 이번에 호남지역에 반도체 투자 이런 것이 잘 맞아떨어졌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습니다.

○송재봉 위원 그런 면에서 저는 정말 이번에 정부가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불가능할 걸로 생각했던 것을 우리 정부가 이제 가능성을 만들어 냈다, 그래서 이 가능성의 영역에서 현실의 영역으로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을 실현하려면 속도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3년 내에 착공을 한다고 하셨나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준공입니다.

○송재봉 위원 그렇게 준공까지 가능한가요, 정말?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일본이 채 27개월 걸렸습니다. TSMC 구마모토 발표하고 나서 완공까지 27개월 걸렸는데 마음 같아서는 우리가 일본보다는 더 빨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송재봉 위원 그렇지요. 이렇게 속도를 내고 또 기업의 입장에서 봐도 그것이 기업의 이익과 직결되는 거 아닙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습니다.

○송재봉 위원 그리고 이익이 나니까 간 거잖아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송재봉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같이, 엇그제인가요? 메가프로젝트 2차 민관합동점검 회의에서 K자형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도 메가프로젝트 투자가 대기업 중심으로만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소부장기업·중소기업이 산업생태계 전반으로 확산하는 상생 협력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습니다.

○송재봉 위원 저는 그것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반도체 분야의 소부장 기업의 또 반도체 기업의 어떤 국내 자급률 이런 것이 20% 내외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맞나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 정도 됩니다.

○송재봉 위원 그런데 이것이 애초에 2022년인가 정부가 보고서 발표할 때는 약 50%까지 올리겠다 이런 발표도 있더라고요.

지금은 어느 정도 목표를 잡고 계신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지금도 그 정도는 가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송재봉 위원 그것을 언제까지 가겠다 이런 목표는 있나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2030년 정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송재봉 위원 그렇지요, 그 목표를 향해서 빨리 가야 되겠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송재봉 위원 저는 결국은 반도체 생태계의 건강성, 특히 소부장 기업의 경쟁력이 있어야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에 지속 가능한 경쟁력이 생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려면 정부가 사실 이 분야에 훨씬 더 강하게 투자도 하고 지원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여러 가지 통계를 보니까 반도체·제조업체 수가 오히려 줄고 있다 이런 통계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소부장에 대한 우리 정부의 투자와 관심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좀 체계적인 점검을 하고 전략적인 지원 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반도체 특별법에 의해서 시행령이 시작되고 클러스터 지정을 하도록 돼 있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송재봉 위원 그런데 이 클러스터 지정이 이미 그 규모가 갖춰진 데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하게는 지금 충북이라든가 또 충남 이런 데는 이미 클러스터가 지정될 만큼의 생산과 여러 가지의 소부장 기업이 집적돼 있는데 이런 쪽도 신속하게 클러스터 지정을 해서 이 지역의 경쟁력도 키워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지정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예를 들면 충북뿐만 아니라 구미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그렇게 잘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고려해서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재준 위원 대구 북구갑의 우재준 위원입니다.

장관님께 다시 한번 저도 질문하겠습니다.

광주 반도체 부지 누가 제안을 했습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이슈가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당황스럽기는 한데요.

○우재준 위원 정부가 제안했습니까, 기업이 제안했습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그러니까 기업은 부지를 찾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이런 부지가 있다는 것은 정부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재준 위원 후보지를 정부가 제안했다는 거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우재준 위원 그 후보지 안에 어디 어디가 있었습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그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조금……

○우재준 위원 그러면 이것 질문만 물어보겠습니다.

호남 이외의 지역이 있었습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있었습니다.

○우재준 위원 어디가 있었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제가 답변드리기 좀……

○우재준 위원 구미도 있었습니까? 구미 있었습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답변드리기 좀 곤란합니다.

○우재준 위원 구미에 반도체 특화단지가 5산단이 있지요. 168만 평이고 전부 다 부지 공사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우재준 위원 해당 부지를 지금 구미시장이 평당 1000원에 분양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용수와 전력 모두 풍부합니다. 지금 용수·전력 추가로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모두가 완비되어 있습니다. 구미는 원래부터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많은 지역입니

다.

구미 검토한 적 있습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구미는 소부장 반도체 단지로서 앞으로도 굉장히 유력하게 커 갈 지역입니다.

○**우재준 위원** 아니, 구미시장이 이것을 지금 유치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검토한 적 있습니까? 의도적으로 배제한 겁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재준 위원** 그러면 검토했습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168만 평은 지금 현재 기업이 수요로 하고 있는 그 면적에 매우 부족합니다.

○**우재준 위원** 매우 부족하다고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우재준 위원** 얼마나 필요한 거지요? 옆에 추가 부지도 더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2산단도 있다라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일단 지금 부족합니다.

○**우재준 위원** 통상교섭본부장님께 하나 여쭙보겠습니다.

한미관세협정 때문에 지금 미국에 투자해야 되는 상황이지요?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예, 그렇습니다.

○**우재준 위원** 지금 미국으로부터 투자를 빨리 하라는 압박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지금 양국 간에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재준 위원** 오늘 업무 현안보고 2페이지 보니까 미 측이 신속 발표를 압박하고 있다는 점이 나와 있네요.

어제 기사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 기사 보셨습니까? 미국 상무부장관이 미국에 반도체공장 지으라고 이렇게 발표한 것 혹시 보셨습니까?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예, 확인은 했습니다.

○**우재준 위원** 장관님께 여쭙보겠습니다.

지금 광주 군공항 부지에 이번에 반도체 짓겠다고 하고 있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우재준 위원** 광주 군공항 부지 안에 미군이 있지 않습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우재준 위원** 미군 어떻게 내보낼 겁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그것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국방부에서 미군과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재준 위원** 미국은 지금 방금 제가 보여 드렸듯이 오히려 미국에 투자하라고 하고 있는데 미군이 호남에 반도체 지어야 되니까 나간다고 이렇게 협의를 해 줄까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한번 결과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군 관련된 사항이라 제가

직접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한 사항인데 한번 진행 상황을 좀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재준 위원 이 부분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우재준 위원 이 부분 검토한 적 있습니까? 그 부지 선정함에 있어서 이 부분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고요, 국방부에서 검토했습니다.

○우재준 위원 산업부는 그 부분을 검토도 안 하고 그냥 합니까? 왜냐하면 산업부는 지금 미국하고 통상 협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제 이야기는 그게 저희 소관이 아니라 거기를 소관하고 있는 국방부에서 미군과 협의했다고 말씀……

○우재준 위원 아니, 그러면 미국하고 그런 게 협의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미국이랑 협의가 잘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도 안 하고 부지를 선정했습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그 내용을 제가 국방부로부터 받은 정보는 있는데 그 내용을 제가 직접 드리는 것보다는 국방부가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재준 위원 미국이 지금 통상 교섭하면서 자국에 투자하라고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이 왜 굳이 나가 줘야 될지…… 자기들은 그냥 안 나가겠다, 미국에 투자하라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할지 그 대안이 있습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그 부분은 조금 기다리시면 국방부에서 알릴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재준 위원 다시 여쭙보겠습니다.

이 부지 선정함에 있어서 충분히 검토한 것 맞습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충분히 검토한 것 맞습니다.

○우재준 위원 총 몇 평이 필요하지요, 지금?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좀 더 유보하겠습니다. 기업들이 요구하는 것은……

○우재준 위원 그런데 168만 평이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그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기업들은 지금……

○우재준 위원 삼성전자나 SK 두 기업 중에 하나만이라도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냥?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그 정도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성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희 위원 장관님, 애쓰십니다. 고생 많습니다.

저는 좀 다른 얘기 해 볼게요.

반도체·이차전지, 우리 주력 산업에 필요한 불소계 소재 핵심원료 형식에 대해서 오늘 질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T 자료를 보면 지금 우리가 중국 의존도가 99%입니다, 형식은. 그리고 무수불산 갈

은 경우는 95%, 맞지요?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울산 온산에 무수불산 생산공장을 하고 있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오세희 위원 지금 준공 예정이고, 그러면 이게 더 수요가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준비가 필요한데……

우리나라에 형석 생산을 추진하는 광산 있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오세희 위원 거기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강원도 춘천에 있습니다.

○오세희 위원 춘천 보고형석광산 맞습니다.

PT 자료를 보면 지난 8월 7일 보도한 내용이에요. 강원도민일보가 ‘국내 유일 형석광산 지켜라’ 이렇게 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게 13년 동안 투자액을 들여서 60억 원이 넘었는데 광산을 오래 하니까 이게 시추와 광산 개발을 앞둔 시점에 자금난이 있어요. 이걸 인지했으니까 중국 업체에서 다수가 매입을 하려고 의향을 밝힌 상태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매입을 하는데 중국에 이걸 해서는 안 되겠지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오세희 위원 그래서 여기는 매입이…… 보도에 따르면 춘천의 보고형석광산의 가채 매장량이 35만t 그리고 추정 매장량은 70만t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강원도민일보가 했지만 우리가 보면 중국, 미국, 일본…… 중국에서는 이것을 수출허가 관리 품목 지정했고 미국에서는 핵심광물 지정했고 일본은 호주에 투자를 해서 15% 확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형석을 단순 수입해서 비축광물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략광물로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맞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오세희 위원 그래서 텅스텐을 보면 캐나다 알몬티사가 운영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걸. 그렇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오세희 위원 이게 지금 연간 2100t인데 앞으로 15년간 전량을 미국으로 반출이 돼,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는 전량 수입을 하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이런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보고형석광산을 포함해서 국내에서 부존하고 있는데 해외 의존도가 높은 광물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고요. 지금 영월하고 춘천하고 두 군데가 하고 있지만 하나는 이미 캐나다 알몬티사가 하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형석을 조달청 비축품목에 그쳐서는 안 되고 핵심광물로 지정해야 된다, 그래서 국가공급망 차원에서 이것을 관리해야 된다 이 생각하고.

또 나머지 세 번째는 개발 가치가 확인된 광물은 R&D 정책금융 국내 수요 기업에 투자, 장기 구매를 좀 유도해서 국내 생산 기반의 확보 방안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지금 사실 위원님 말씀하고 저희들이 가는 방향하고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서 필요한 것들이 예산이 있어서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께서 좀 도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개발 가치가 있는 R&D 수요 기업과 투자하고 장기 연계하는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번에 예산당국하고 협력해서 산업자원안보기금을 하나 만듭니다. 별도로 이것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할 때도 위원님이 많이 도와 주십시오. 저희들 가급적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오세희 위원** 그래서 저번에 8월 7일 날 보도된 강원도민일보가 우려한 것처럼 우리 유일한 형석광산을 우리가 지켜야 되고 그것을 중국의 업체가 매입하지 않도록 빨리 앞서서 우리가 선제 활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매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한홍 위원** 장관님, 회의 가신다면서요? 아직 시간이 있나 봐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한홍 위원** 내가 마지막 질문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제가 20대 국회 때 산자위에서 했거든요. 그때도 여야가 매일 싸웠어요. 산자위는 싸우는 데가 아니에요, 원래. 정책이고 경제인데 그때는 왜 싸웠느냐? 탈원전 때문에 싸웠어요. 문재인 정부가 그냥 정치적인 이유로 탈원전 밀어붙이니까 산자위에서 탈원전을 가지고 4년 내내 싸웠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정부가 또 호남에 반도체 간다고…… 이것도 경제적으로 출발한, 경제성이나 경제적인 마인드로 출발한 게 아니고 정치적인 이유로 진행하다 보니까 계속 국회와 산업부에서 지금 논쟁이 되는데 아마 이것 때문에 또 계속 시끄러울 것 같아요. 장관님은 계속 저질러 놓은 물을 설명해야 되니까 힘들 것 같고.

그런데 이게 장관님 보기에—내가 질타하는 것 아니에요—호남에 물이 없는데 물 공급이 가능해요, 반도체 공장 하는 데?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짧게만 해 주세요. 가능해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가능하고 지금 반도체 4개 썽 하는 데 일 60만t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호남 쪽에서 한 100만t 정도는 하겠다……

○**윤한홍 위원** 물 가능해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가능하다고 합니다.

○**윤한홍 위원** 이것도 보면 내가 참 신기한 게 문재인 정부 때 보면, 영산강보를 이명박 정부에서 만들었잖아요. 그것도 보 없애라고 계속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야기를 했다고, 보 해체하라고. 그런데 그것 해체했으면 지금 꿈도 못 꾸는 거지요?

그런데 반도체 하려면 전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때 또 탈원전 한다고 해서, 원전은 절대

로 해서는 안 된다고 여기 산자위에서 민주당 위원들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원전 없애야 된다, 하면 안 된다 했던 겁니다.

지금 반도체 하려고 하면 전기 없으면 안 되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윤한홍 위원 전기도 공급이 가능해요, 호남에?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호남은 지금 전력이 남아도는 지역입니다.

○윤한홍 위원 그래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윤한홍 위원 다행이네.

지금 경상도를 가면 어떤 이야기를 하나면 호남에 물도 없고 탈원전 한다고 해서 풍력, 태양광밖에 없으니까 경상도에서 물하고 전기를 호남에 다 공급해 줘야 호남에 반도체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됩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아마 지금 현재 상황에서 호남 내에서도 일종의 자급자족이 가능합니다.

○윤한홍 위원 가능해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윤한홍 위원 하여튼 잘할 수 있다고 하니까 좋은데, 그런데 너무 끌려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업무 스타일이 나는 옳지 않다고 봐요. SNS에 먼저 질러 버리잖아요. 대통령이 SNS에 먼저 글을 올려 버리면 우리 공무원들이 문제점이 있어도 지적을 못 해요. 그렇지 않아요? 대통령이 먼저 답을 줘 버리면 공무원들은 그 정책에 잘못이 있거나 문제점이 있어도 ‘이게 문제점이 있다’, 지적을 못 해요. 그 역할을 장관이 해 줘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공무원들 다 다쳐요, 정권 바뀌면.

이란·미국 전쟁 나니까 석유 최고가격제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것 지금 계속하고 있다고. 그것 단기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맞습니다.

○윤한홍 위원 그것은 시장경제에 맞는 정책이 아니잖아요. 아주 일시적이고 단기적으로 해야 된다고. 수십 년 동안 해 보지 않은 정책을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올려서 바로 했다고. 지금 어때요? 정유업계하고 정부하고 지금 그 손해액 가지고 싸우고 있지요? 예?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싸우는 것은 아니고요. 싸우는 것 아니고 지금 정산을 하는 거지요.

○윤한홍 위원 아니지. 기업은 시장가격에 비추어 보면 손해가 많으니까 돈 더 달라고 할 거고 나중에 소송할 것 아니에요, 어쨌거나. 정부는 원가가, 계산해서 손해를 최소화해 가지고 적게 주겠다, 기업은 많이 달라, 소송하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예를 들어도……

반도체도 마찬가지라고. 기업들은 공시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을 보면 딱딱하지 않아요. SK나 삼전에서 보면 이것은 전혀 검토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다고, 밀어붙이니까 기업들도 어쩔 수 없이 끌려가고 있는 상태인데…… 상식적인 이야기지요.

아까 국방부에서 미군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국방부 자료에는 협의한 적 없다고, 서면자료가 와 있어요, 지금. 장관은 그것도 지금 정확하게 모르고 그냥 변명만 하고 있거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간이 다 돼서 그런데, 나중에 문제없도록 잘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잘하세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원 다음 순서가 임문영 위원님, 조지연 위원님, 이런 순서인데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장관께서 대통령 주재 미래비전 국민 보고회에 참석을 하셔야 되는데 또 가시면서 식사도 조금 하셔야 돼 가지고 질의는 오후에 다시 속개를 하는 걸로 하고, 임문영 위원님하고 조지연 위원님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장관 오셨을 때 조금 더 많은 배려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간사위원님 간 협의와 또 위원장 허가에 따라서 산업부장관께서 이석을 할 예정입니다.

회의 개의 후에 상당 시간이 경과한 점을 고려해서 15시에 속개해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회의 역시 국회방송을 통해서 TV와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되고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그러면 주질의 순서에 따라 이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주 위원 차관님이 대신 답변을 하시는 거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이연주 위원 어제 여당의 메가특구 특위에서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방문을 했었는데 굉장히 빠르게 클러스터 진행이 되고 있어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산단은 부지 매입이 거의 완료가 되어 가는 것 같고요 SK 일반산단은 1·2호기는 이제 가동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전력과 용수 문제에 차질이 없도록 잘 진행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보도를 보니까 메가특구와 관련해서 약간의 잡음이 들리고 있어서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메가특구라는 것은 지난 대선 때, 제가 그때 같이 하고 있었던 경제성장위원회에서 메가샌드박스라는 명칭으로 구상을 했었던 건데요.

아시다시피 샌드박스라는 취지는 절차법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은 구체적인 것을 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해당 광역단체하고 기업체에서 합의가 어

느 정도 됐을 때 그것을 제안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법에서 다 일일이 규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왜 이게 아직 입법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논란을 벌이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게 절차법인데 실제적인 내용을 가지고 지금 논란을 벌일 내용은 아니다, 그래서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이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산업부하고 국무조정실이 공동으로 관계부처 간에 포함된 사안들에 대해서 이견이 완전히 다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저희들이 구체적인 내용들을 아직은 보고를 못 드리고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이언주 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샌드박스라는 것은 절차를 규정하는 것이지 구체적인, 실제적인 내용은 그 당사자, 나중에 그것을 신청할 자치단체와 그 회사 그리고 그 당사자들이 거꾸로 신청해서, 그래서 받는 쪽에서 그때 가서 논란을 벌이든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할 내용이기 때문에 입법 단계에서는 추상적인 내용이 규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토론을 할 계제 자체가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프로젝트별로 메뉴판식의 인센티브나 요청사항들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신청하는 광역지자체나 기업체가 그걸 선택해서 신청을 하면 그 심의 과정부터.....

○**이언주 위원** 그것 너무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쓸 필요가, 규정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절차법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을 하시기는 했는데요. 세제개편안이 발표가 됐는데요. 여기에 보면 세제개편안에 태양광, 풍력,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AI 로봇부품, 6대 분야에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만 구조 전환이 시급한 석유화학, 정유, 철강이 빠져 있다. 이것은 아까 권향엽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미국에 보면 IRA법 같은 경우에 사전에 세액공제를, 미사용 공제액 같은 경우에 사전에 필요한 시기에 투자재원으로 공제를 미리 쓸 수 있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도 배터리라든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캐즘이 있는 경우에, 배터리라든가 이런 경우에 쓸 수 있게 한다면 이런 것들도 우리가 전략산업에서는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문제들은 산업통상부가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 드리는데,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검토를 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것처럼 미국의 IRA법 등에 의하면 적자를 본 기업이라 하더라도 해당 기업이 되면 그 적자 부분에 대해서도 크레디트로 해서 유동화를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라든지 그러한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계 당국과 논의 과정에서 산업부 측에서는 요청을 하기는 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이 세계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하고도 일부 연관이 있어서 처음에 시행을 할 때는 가장 확실한 것들 위주로 해 놓고 그다음에 그 시행 과정을 좀 보면서 추가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은 보완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논의 과정을 거쳤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연주 위원 혹시 시간이 더 되나요? 추가시간이 혹시 더 되나요?

.....

○위원장 김성원 예, 더 드릴게요.

○이연주 위원 1분 더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지금 이란 전쟁 와중인데요. 사실 원유 경로를 다변화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또 정유설비 같은 경우에 다른 처리 유종을 늘리기 위해서 투자를 좀 더 추가해야 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프타도 마찬가지고요. 이럴 때 이 부분을 위한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 세계개편안에 좀 추가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이 개정 과정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철강이라든가 수소환원제철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포함해서 저는 이 분야도 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 전에 우리가 전쟁 초기에는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 개편안에서는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말씀 주신 것처럼 세계개편안 쪽에는 빠져 있고, 대신 저희들 예산에는 다변화와 관련해서 정제 설비 투자에 대한 지원방안이나 특히 R&D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들은 예산안 쪽에, 정부안 쪽에 현재 반영돼서 예산 당국하고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액공제 부분에 대해서도 국회 논의 과정 등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산업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원 수고하셨습니다.

문 차관님, 답변 좀 빨리하세요, 명료하게. 아셨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원 다음, 임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문영 위원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임문영입니다.

세계는 지금 반도체를 국가 생존 전략으로 보고 있고 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지나친 과밀화 또 포화상태가 부동산 문제라든지 자원의 불균형적인 문제들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이를 시장에 그대로 맡겨둘 경우에는 경로의존성에 따라서 굉장히 불균등한 국토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런 문제 때문에 대한민국의 균형발전과 AI 전략을 미래성장동력으로 만들기 위해서 메가프로젝트를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그렇습니다.

○임문영 위원 실제 메가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주도형 성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AI 시대에는 지역이 주도해서 성장하는 시대고 국토균형발전뿐만 아니라 각 지역이 특화된 산업정책을 가지고 발전을 해서 이걸 모두 연결시키는 그런 산업으로 확

대해 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 메가프로젝트에서 특히 호남권, 광주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삼는 것은 기업들의 미래 투자에 대한 발목을 잡는 것이고 또 정상적인 기업활동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충청권은 392조 또 영남권은 312조에 이르는 많은 투자가 준비되고 있고 또 다양한 분야에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 같은 경우에는 피지컬 AI와 관련해서는 전혀 투자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반도체 팹 내기가, 워낙 공장에 대한 투자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일종의 착시현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다양한 산업들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준비도 철저히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말씀처럼 서남권이 893조로 발표가 됐으니까 800조를 빼면 93조 부분이어서 피지컬 AI 부분이 포함되지 못한 부분은 서남권 쪽에서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문영 위원 그리고 실제로 반도체가 성장을 하게 되면 그 반도체를 통해서 생긴 수익과 또 그때 만들어진 메모리나 반도체들이 결국은 우리의 가장 장점 중의 하나인 제조업으로 흘러 들어가서 제조업의 산업 AX를 만들어 오고 피지컬 AI의 성장을 도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동의하시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그렇습니다.

○임문영 위원 이와 같이 3대 메가프로젝트는 지역 주도 성장과 국토균형개발 그리고 앞으로 AI의 국제 경쟁을 대비한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국가전략을 정치적 공세로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가장 빨리 실행할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데요. 특히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전남·광주가 우리 지역 중에서 유일하게 행정통합을 이룬 곳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산업 투자에 있어서 행정통합이 가져오는 이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행정적인 부분 쪽은 빼고 경제적인 부분만을 말씀드리면 메가 경제권으로서 좀 더 큰 프로젝트와 전체 광역권에서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훨씬 더 효율적이고 의미가 있어질 거라고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임문영 위원 맞습니다. 차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권을 키워서 경제적 규모를 달성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특히 행정통합을 이루면서 가장 허들이 되는 인허가라든지 또 지역 간의 갈등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행정통합을 하는 것이 굉장히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장점 때문에 광주가 선택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국에서 유일하게 행정통합을 이뤄 내고 또 실제로 그 준비를 한 광주의 호남 반도체 팹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정치적 공세가 없이 빠른 실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성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지연 위원 경북 경산의 조지연입니다.

차관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조지연 위원 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장관님이 계시면 로봇산업에 대해서 여쭙고 싶었는데 로봇 차르를 자청하신 장관께서 지금 잠시 이석을 하신 관계로 차관께서는 자동차산업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산업이 반도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이런 전후방산업과 정말 밀접한 연관을 가진 국가기간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자동차산업을 떠받치고 있는 무수한 자동차부품 기업들이 또 있습니다. 그렇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그렇습니다.

○조지연 위원 자동차부품 기업들이 내연차 부품, 미래차 부품 그리고 앞으로 로봇산업의 어떤 전환의 계기에 자동차의 부품기술과 칠팔십 % 유사한 로봇산업 부품으로 확대 나가는 도전이자 기회인 전환을 맞고 있는데, 차관님께서서는 메가프로젝트와 오늘 업무보고 자료 다 꼼꼼히 다 보셨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그렇습니다.

○조지연 위원 메가프로젝트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대경권의 자동차부품 업체가 로봇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있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오늘 이 업무보고 자료에도 보면 18페이지에 부품기업 사업전환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메가프로젝트에 나와 있는 자동차부품 기업의 로봇산업으로의 전환 그리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자동차부품 업계의 사업전환이 같은 맥락으로 제가 이해해도 됩니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당연히 그렇습니다.

○조지연 위원 당연히 그런 것치고는 혹시 부품기업 사업전환의 어떤 세부내역들, 사업들, 미래모빌리티 확산 제도 기반 지원사업들, 이 사업 내역들도 다 차관님께서 검토를 하셨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다만 지금 저희들이 그 세부적인 방안들이 최종적으로 완성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보고드릴 수 있게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가장 필요한 일부가 좀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조지연 위원 올해…… 그런데 이것 메가프로젝트에도, 대통령께서도 역점사업으로 두고 있는, 5극3특의 역점사업으로 두고 있는 메가프로젝트의 일환으로도 들어와 있는 내용이고 아까 전에 그 사업의 일환으로 이해해도 된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기재부에 부처의 예산을 얼마 신청하셨습니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잠깐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조지연 위원 147억 한 이삼천만 원 정도 하셨어요. 저는 0이 빠져 있는 줄 알았습니다. 147억 원으로? 그러면 도대체 미래차 사업전환을 어떻게 하는 것이지라고 해서 세부내역사업들을 받아 보니까 이게 또 앞뒤도 다 맞지도 않아요.

그래서 몇 개사 지원…… 예산을 정확하게 모르실 테니까 몇 개사 지원하시는지 차관님 모르시겠네요? 이 지원사업으로 몇 개사 정도 지원되는지 아십니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를 기억 못하고……

○조지연 위원 새만금에 로봇부품 클러스터 가는 것 그래요. 좋아요, 좋은데 대경권에는 자동차부품 업체가 로봇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 지원을 하겠다라고 명시해 놓고 지금 주무차관께서 이 내용을 모르고 있다라는 것은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래차로 부품기업의 매출이 50% 이상 나오는 일정 수준에 도달한 기업과 80% 이상 되는—아주 초기 단계에 있는 1·2차·3차 협력사들이겠지요—이런 협력사들을 100개사를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그러면 얼마 정도의 예산을 할당해서 100개사를 지원하느냐 이 내역들을 보면, 정작 산출내역을 보면 5개소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3억 2000만 원 들어서 5개소 지원하겠다.

그리고 아까 전에 미래차 부품 50% 매출 나는, 이상 되는 어느 정도 일정 수준에 도달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40개사인데 이것은 1개사당 1억 지원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합니까? 그리고 이걸로 실질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동차업계가 정말 미래차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시대적 과제이자 당연히 해야 되는 수순인데 충분한 지원과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을 이런 식으로 확보해서는 정말 키우고 싶어 하는 AI·로봇산업도 저는 낙망이라고 봅니다.

차관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지금 지적해 주신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몇 개 그다음에 1억씩이라는 답변을 못 드려서 우선 송구스럽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석유화학·철강 구조조정 다음에 제일 중요한 파트가 자동차부품의 사업전환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산업부가 부품사들의 사업전환, 미래차의 사업전환도 있지만 말씀해 주신 로봇 파운드리 전환 부분에 대한 정책 전환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조지연 위원 위원장님, 1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 김성원 예.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사업전환과 관련된 예산이 그렇게 적게 들어가 있는 부분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좀 다시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그것 외에 저희들이 R&D 쪽에서도 별도로 지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까지는 좀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는 별도로 다시 한번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조지연 위원 의원실에 보고를 꼭 해 주시고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조지연 위원 지금 자동차부품 그러니까 자동차산업을 관장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산업부에서?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자동차산업과입니다.

○조지연 위원 자동차산업과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조지연 위원 자동차산업과만 이것 다 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내연차 부품기업도

있고요 내연차에서 미래차 가려고 하는 부품기업도 있고요 내연차에서 로봇산업으로 가려고 하는 부품기업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내연차와 미래차만 자동차과에서 하는 것 같아요. 내연차에서 로봇산업으로 가는 인공지능과 이런 AI와 접목된 그 산업은 다른 부서에서 또 하고 있는, 자료 요구를 해서 저희가 받아 보니까 그런 인상을 매우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처 칸막이 없애시고 저희한테 다시 한번 자동차부품 업계의 사업전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이후에 자료를 꼭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반기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주제로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할 겁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위원님, 제가 한말씀만 좀 올리면 지금 현재 내연기관차의 부품이 세부적으로 하면 한 3만 개 됩니다. 그런데 전기차가 한 1만 5000개 정도 됩니다, 부품 수로. 그러면 거기서만 해도 2분의 1로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기차가 모듈화되면 더 줄어들기 때문에 사실은 3분의 1 정도로 줄어든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자동차부품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는데 우리 부품사들이 지금 현재 한 1만 7000개……

○**조지연 위원** 차관님, 그렇기 때문에 로봇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지원을 다 온전히……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조지연 위원** 예, 맞춤형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147억 원으로는 죄송한데 메가에 메가라고 이름 붙이기 너무 궁색하다라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그 부분을 제가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별도 보고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원** 조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 차관님, 여기는 토론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조지연 위원님께서는 별도로 한번 찾아뵙어 가지고 상세한 답변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원** 다음은 허성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성무 위원** 창원 성산구 허성무입니다.

차관님,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잘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허성무 위원** 2023년·2024년 윤석열 정부에서 열두 군데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3개와 세종시 4개를 빼고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경남만 지정이 안 돼서 작년 국감 때 이 자리에서 제가 장관님께 강한 질타도 드리고 경남에 방위산업을 지정해 달라는 요구를 했을 때 장관님께서 흔쾌히 그렇게 하겠다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PPT 하나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바로 부처에서 열심히 하셔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개최해서 방위산업도 넣자 이렇게 하셨고 그래서 산업부가 작년 연말에 공모도 했습니다. 그리고 2월 달에 경상남도가 공모에 응했고 전문가들이 파견 와서 실사도 하고 다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잘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는데 문제는 이렇게 제출하고 다 했는데 더 이상 진행이 안 된다는 거지요. 원래는 7월 달에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어서 하려고 통과시켜서 지정을 하려고 했는데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 그 안에 소위원회가 있는데 소위원회가 대여섯 차례 열렸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결론이 안 났다는 것 아닙니까. 소위원회에서 결론을 못 내리니까 차관님이 주재해서 차관님들이 회의하는 위원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 위원회는 아예 열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전체 총리 주재 위원회는 더더구나 안 열리는 거고 이렇게 되니까 계속 미루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올 2월 달에 경남 차원에서 VIP 주재 타운홀미팅 때 장관께서 3/4분기 이내로 꼭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 9월 달까지 하려면 1개월 반밖에 안 남았습니다. 1개월 반 남았는데 소위원회 개최하고 그다음에 차관님 주재 회의 통해서 다 이것 통과시키고 마지막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까지 가서 통과돼야 되는데 이것 가능하겠습니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남은 기간 최대한 좀 속도를 내겠습니다.

한 가지가 사정이 좀 있는 게 5극3특 성장 엔진이 이제 곧 발표가 되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허성무 위원** 그것과 관계없이 이것 먼저 진행된 것 아닙니까? 먼저 진행된 건 빨리 해 주는 거고 5극3특은 3특대로 가는 거고 가다가 만나면 만나는 거지 그것 때문에 이게 늦어진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연계성 부분 쪽을 추가로 검토하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무조건 연계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시간이 조금 소요됐다는 죄송하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허성무 위원** 당연히 이것저것 검토하시고 또 유사한 게 있으면 연계도 해야 되고 그런 줄로 보니다마는 그 논의가 나오기 전에 이것 먼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지적된 사항으로 가는 건데 할 일을 먼저 해 주시고 나중에 부분적으로 중첩되거나 이런 것은 얼마든지 조정되는 건데 빨리……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속도를 내겠습니다.

○**허성무 위원** 속도를 내 주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게 왜냐하면 기업들은 다 준비하고 있고 3개의 선도기업과 40개 정도의 협력기업들이 이미 다 확정이 돼 있는 거고 이 기업들이 투자를 할 건데 그러면 빨리 특화단지 지정이 돼야 그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혜택이 있을 거고 정부에서도 투자를 할 것 아닙니까. 정부투자도 미뤄지고 뭐도 미뤄지고 기업들도 그러면 시간, 기회비용도 날아가 버리고 투자계획도 미뤄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장관께서 작년 국정감사에 있어서 약속했고 그리고 지난번 2월 타운홀미팅에서도 대통령께 보고했던 게 차질이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허성무 위원 자신 있습니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최대한 속도를 내겠습니다.

○허성무 위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쭙보겠습니다.

그러면 왜 소위원회에서, 첨단 항공엔진과 관련된 특화단지가 되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그러면 경쟁해서 신청한 지역도 없고 이 자체에 대해서도 이견도 없는데 왜 소위원회에서 몇 달째 대여섯 번 회의가 열리면서 결정이 안 되고 있습니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아까 말씀처럼 5극3특과의 연계 부분 쪽을 추가적으로 같이 검토하면서 최종 결정을 미루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5극3특 성장 엔진 부분 작업이 거의 끝났기 때문이에요 그다음에 연계 작업도 거의 끝났으니까 최대한 속도를 내서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성무 위원 차관님 말씀대로 하면 5극3특은 다른 지역에는 다 도움 되지만 거꾸로 여기는 지금 방해되는 것 아닙니까, 진행하는 데. 왜 경남만 그러면 계속 이런 피해를 봐야돼요. 윤석열 정권 때는 경남만 배제하고 열두 군데 광역시도에 다 해 주고 우리 정부…… 죄송합니다. 이재명 정부 와서는 또 그런저런 검토 때문에 늦어지고……

저도 1분만 더 주세요.

○위원장 김성원 예.

○허성무 위원 이것 우리 경남도민들이 받아들이 수 있겠습니까?

5극3특 자꾸 핑계 대시는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아닙니다. 속도를 내서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성무 위원 소위원회가 대여섯 차례나 열려서 검토가 되었다는데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논의 내용을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성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수진 위원 최수진입니다.

차관님, 왜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한 장도, 한 글자도 보내지 않습니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제가 지시를 했는데……

○최수진 위원 빨리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에 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뒤에서 지금 보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최수진 위원 뭐 하십니까? 진짜 보낸 지가 언제인데 이런 식으로 일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죄송합니다.

○최수진 위원 지금 광주전남, 수도권에 이어서 제2의 반도체 생산기지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아주 큰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광주전남을 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업적 입지의 조건이 왜 거기일까 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을 어느 누구도 풀어 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선거용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지 제가 지금부터 한번 질의를 통해서 밝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관님께서서는 원전산업정책관도 하시고 실제 문제인 정권에서 탈원전정책에도 앞장서신 분입니다. 에너지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특히 지금 물론 기후에너지부로 넘어가기는 했지만 실제로 에너지 쪽에 가장 비전 있고 그 미래에 대해서 미래 전환을 이끌어 갈 책임자다 이런 명분으로 차관이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보면 지금 호남 반도체 전력 공급에서 전기가 남는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GW 이런 식으로 하는데 실제로 보면 아시다시피 발전량과 송전할 수 있는, 직접 반도체 팩에서 쓸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은 다르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그렇습니다.

○최수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송전 능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지금 바로 팩 4기를 바로 할 수 있는 송전 능력이 되지는 않습니다.

○최수진 위원 그러면 2030년에 지금 현재 있는 것이 13곳 중에서 12곳이 이미 포화상태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계획 갖고 계십니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기후부가 만든 자료를 제가 읽어 보니 충분히 그 시기까지 남부권의 송전 능력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하는 게 기후부의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수진 위원 본인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수진 위원 그러면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송전탑이나 송전관을 묻을 때 주민들의 반대나 그 외의 다양한 환경적인 요건, 환경분석 이런 것들 안 하고 그냥 막 만들면 되는 겁니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당연히 그 과정들을 거치는데……

○최수진 위원 거쳐서 이렇게 빨리 된 사례가 실제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지금까지 없던 사례를 패스트트랙으로 해서……

○최수진 위원 해 보겠나?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빨리 완성하고자 하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최수진 위원 그래요. 정부의 입장이지요. 그러면 전문가로서 실제로 이게 가능하다는 거를 묻고 있는 겁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지금 말씀해 주신 13곳 중의 12곳 대비 지금 하고자 하는 광주 쪽에서는 송전선로가 논의되고 12곳에 대비 굉장히 짧은 상황입니다. 그것도 쉽지는 않지만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수진 위원 희망 고문을 하시면 안 되고요. 국민들을 기만하시면 안 되고요. 사실 이런 이런 어려움은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산업부의 기본적인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먼저 발표해 놓고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러면 계획 갖고 와, 그런데 계획도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이것 진짜 맞네 하고 정말 장밋빛을 그릴 수 있을까? 저는 그것에 대한 분명히 의구심을 갖습니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은 너무나 잘 알 것이고 우리나라의 기술이 거기까지 될까요? 재

생에너지를 일률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경직성 문제는 당연히 본질적인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한 보완 작업을 같이 하겠다라고 하는 게 기후부의 발표 내용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수진 위원** 희망사항이겠지요.

그다음에 용수 한번 볼까요? 다음 페이지 보면 지금 용수가 대통령이나 기후부장관께서 문제없다, 그리고 하루에 100만t 가능하다 이런 또 희망적인 말을 발표하셨습니다.

저는 그냥 팩트체크하고 싶습니다. 2025년도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서 보면 영산강, 섬진강의 물 부족이 심각하다 이런 리포트가 정부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정부의 보고서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지금 대통령이 말한 ‘가능하다’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현재도, 지금 보면 영산강 여기 연간 7000만t 물 부족하고요. 섬진강 5000만t 물 부족합니다. 그리고 댐 상태가 이미 100% 다 차 있습니다. 그리고 등급을 보면 3.4등급, 이게 1부터 5등급까지 있는데 5등급으로 갈수록 아주 안 좋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 괜찮다?

우리가 그러면 생산을, 항상 장마 때만 생산합니까? 겨울에 간헐기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것에 대한 대책 있습니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기후부의 분석에 의할 때 동북댐의 증고 등을 통해서 지금 저기에 있는 일 65만t 정도의 물량은 충분히 확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무조건 기후부의 얘기만 듣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근거 없이……

저는 근거에 대한 자료를 정부가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계속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욱 위원** 안녕하십니까?

광주 동남갑 국회의원 정진욱입니다.

장관님, 광주 반도체클러스터 투자 유치 성공시킨 이재명 대통령님 그리고 산업부를 비롯한 정부의 정책적 결단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중요한 건 대통령님의 결단 또 기업들의 결단을 착공으로 얼마나 빨리 연결시키느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가 첨단전략산업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 지을 반도체산업을 둘러싸고도 여전히 60년대, 70년대의 사고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광주냐고 묻는 위원님이 있습니다.

제가 거꾸로 여쭙겠습니다. 왜 광주가 아니어야 됩니까? 광주특별시는, 그러면 전남·광주·전북은 농사만 지어야 됩니까?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박정희와 그 일당들이었습니다. 영남 관료들이었습니다. 경부 축의 산업 발전을 하겠다, 국민들께 물어봤습니까?

포항제철, 지금 포항이 큼니까, 광양이 큼니까? 광양이 훨씬 더 크지요. 입지도 훨씬 더 좋지요. 그런데 왜 광양에 처음부터 짓지 않았습니까? 영남 지역에 먼저 산업시설 투자하겠다, 국민 여론 물어본 것도 아니고요 입지를 조사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찍어서 한 겁니다. 호남을 의도적으로 차별한 것입니다. 그러면 호남에, 새만금에 수십조 그리고 광주에 수백조 이게 영남에 그동안 투자해 온 역사적 누적 투자액은 수경 원에 이르는데 그야말로 새 발의 피입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돼서 제 지역구인 광주 남구의 제조업 비중을 봤습니다. 여러분, 몇 퍼센트일 것 같습니까? 1.8%였습니다. 영남 지역 어디가 제조업 1.8%인 곳이 있습니까? 어디 군 단위를 가도 있습니까?

차관님, 기업이 결정하는 순간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먼저 준비해야 되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그렇습니다.

○정진욱 위원 먼저 부지입니다. 아까 제가 부지 말씀드렸는데, PPT 한번 띄워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대만입니다. 아마 여러분, 대만이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서 가는 나라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저 타이베이 옆에 신주라는 곳이 바로 TSMC가 시작된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230km 떨어진 가오슝이라고 있습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신주가 용인이고요 가오슝이 광주쯤 됩니다, 거리가. 지금 가오슝에 신공장 두 곳이 연내 시공인데 이미 세 곳을 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다섯 기가 들어섭니다. 그러면 저기는 무슨 편을 위해서 가오슝에 짓습니까?

그리고 무슨 수도권을 벗어나면 죽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신주를, 수도권을 벗어나서 가오슝에 새로 지었는데, 구마모토에 새로 지었는데 대만이 망했습니까? 우리 국민들을 속이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계속 지적하는 것처럼 부지, 전기, 물, 인재, 교통인프라 이런 게 갖춰져야 됩니다. 광주 군공항만한 부지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평탄한데? 지금 반도체, 물 들어왔을 때 배를 저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가장 빨리 반도체공장을 세울 수 있는 곳, 광주 군공항입니다. 그래서 선택한 겁니다.

기업들도 지금 빨리 짓고 싶습니다. 지금같이 돈 벌기 좋은 때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서 못 팔고 있습니다.

전기 말씀하시는데 전기 충분합니다. 호남 발전설비 용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3.3GW입니다. 지역 전력수요가, 산업이 없어서 5GW입니다. 한빛원전이 6기가 있는데 1기가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기가 올해 쉼 예정입니다. 이것 다 하면 6GW입니다.

재생에너지, 태양광발전설비 기준으로 11GW입니다. 전남에 있는 해상풍력 21.3GW입니다. 뭐가 부족합니까?

물 문제 이야기하셨는데……

저도 1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성원 예, 1분 더 드릴 테니까 마무리해 주십시오.

○정진욱 위원 예.

동북댐, 주암댐, 장흥댐, 보성강댐, 나주댐 물은 있습니다. 거기에 또 영산원은 수억t입니다. 물은 있는데 이걸 얼마나 빨리 관로를 묻어서 가져올 것인가 그게 지금 과제입니다. 그다음에 광주하수처리장에 재이용수 30만t 있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공장들 안에서 물을 재이용합니다. 현재 30%인데 이게 아마 앞으로 60%, 80%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 추세입니다. 물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국민의힘이 이것 발표하자마자, 반도체는 표심으로 짓는 게 아니냐고 발표한 걸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부울경이 산업화의 심장이라는 겁니다. 제조업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산은 항만·물류·금융·전력반도체, 울산은 자동차·조선·석유화학·에너지·2차전지 산업 중심이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경남은 원전 제조, 기계·방산·항공우주산업의 핵심 거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리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삼성, 이천 반도체공장 지을 때 이런 게 있었습니까? 화성 동탄에 뭐가 있었어요? 평택에 뭐가 있었습니까? 이천, 청주에 뭐가 있었습니까?

부울경에 있는 퍼지컬 AI를 추상적 구호라고 하는데 자율차·로봇·AIDC, 로봇이 앞으로 반도체보다 더 많이 팔리고 더 큰 산업이고……

○위원장 김성원 1분 더 드릴 테니까 마무리해 주십시오.

○정진욱 위원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60년대·70년대 생각하지 마시고 가장 준비된 곳, 전기·물·인재·부지·교통인프라, 모든 것을 갖췄습니다.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첨단 제조 역량만 없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반도체공장은 첨단 제조 역량이 있는 곳에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건 가오슝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광주 반도체에 대해서 시비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은수 위원 차관님, 3대 메가프로젝트, 지금까지 우리나라 역사에서 존재했던 사업인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지금까지 했던 프로젝트 규모로는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전은수 위원 그렇다면 기존의 해법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전은수 위원 맞습니다.

지난 9일 이재명 대통령께서 민관 합동 점검회의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해서 기존의 속도전을 넘어서 전격전을 말씀하셨는데요. 대한민국을 대전환시킬 수 있는 이 프로젝트가 속도에 달려 있다, 속도가 성공의 전략이기 때문인데요.

어제 저희 더불어민주당 메가특위에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현장을 찾아서 SK하이닉

스 그리고 삼성,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었습니다. 기업들이 말하기를 부지·전력·용수 확보에 있어서 정부의 빠르고 전폭적인 지원 협조를 구하고 있었는데 이런 내용들, 기업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소통하고 계시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전은수 위원 어떤 애로사항들이 있으신가요? 말씀해 주실 사항들 있으실까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용인 부분 쪽은 여전히 전력·용수 부분 쪽을 생각했던 것보다, 7년에서 11년을 당겨 달라라고 하는 게 기업의 수요이기 때문에 원래 지금의 저희 시스템이 당초 계획대로 세팅이 되어 있는 문제를 다 바꿔서 거기를 맞춰 줘야 되는 문제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서 그 부분을 맞춰 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전은수 위원 맞습니다.

아까 대만 이야기도 많이 나왔는데 대만 TSMC가 일본에 반도체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한 2021년 10월 구마모토현은 9일 만에 반도체산업 집적 강화 추진본부를 꾸렸습니다. 그리고 3년 만인 2024년 말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중국 CXMT는 국가 주도로 10개월 만에 부지·전력·용수, 공장까지 완성해 버리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 지금 전 세계가 인프라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 정부에 어떻게 요청하고 있나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지금 말씀해 주신 인프라, 그러니까 부지·용수·전력 부분 쪽만 최대한 빨리 해 주면, 그래서 넘겨주기만 하면 2년 이내에 훨씬 당겨서라도 칩이 생산될 수 있게 하겠다, 또 최대한 빨리 해 달라라고 하는 게 기업의 현재의 요구 사항입니다.

○전은수 위원 맞습니다.

우리 기업들 역시 전 세계에서 치열하게 벌어지는 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우위를 가져가기 위해 정부에 더 빠른 속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본인들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데 어제 SK하이닉스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이 이보다 더 빠른 적이 있었나 한다면서도 그래도 부족하다, 더 빨랐으면 좋겠다고 저희가 애로사항을 청취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일진대 아직까지 부지 선정과 관련해서 기업의 팔을 비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메가프로젝트 가로막기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나 기존처럼 부지부터 정하고 그다음 단계 공장을 짓고 전력 넣고 용수 넣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한다면 세월이 흘러가든 말든 천천히 하면 될 텐데요.

지금 속도가 생명인 이 반도체시장에서 메가프로젝트,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 정부에서 역할을 상당히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 부처가 지금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지만 더욱더 세심하게, 부처별 칸막이 없애는 건 계속적으로 나오지만 조금 더 세심하게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전은수 위원 더 이상 정치가 대한민국 대전환의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저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0초 정도 남았는데요.

어제 저희가 소부장 기업에 대해서도 한번 청취를 한 적이 있었는데, 대기업을 중심으로 반도체사업이 유례없는 호황을 맞고 있지만 그 성과가 소부장산업 전반으로 충분히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걸 대기업에서도 요청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소부장까지 우리가 계속적으로 성장을 시켜야 된다, 생태계를 조성해야 된다. 그래서 민간의 상생 투자를 정부가 적극 뒷받침하면서 첨단장비 확충은 물론 공동 테스트베드와 R&D, 실증, 사업화, 인력 확보까지 아우르는 소부장 동반성장 전략을 보다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저도 그 부분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안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전은수 위원 그 부분에 유념해서 준비해 주십시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민 위원 세종시 국회의원 김종민입니다.

산자부차관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메가프로젝트 관련해서 반도체 입지와 관련된 논란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김종민 위원 차관님은 오래 계셨으니까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2년 전부터 K-반도체 트라이앵글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국정감사나 산자위 회의 때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그렇습니다.

○김종민 위원 사실 그대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좀 아쉬운 게, 호남에 반도체 팹을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걸 당연히 해야 되고 왜 해야 되느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아까 정진욱 위원님이 정리를 잘해 주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보태면, 호남에 전력 기반이 있다는 것도 중요한데 이 전력이 RE100 전력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TSMC와 경쟁이 제일 핵심인데 RE100 경쟁력이 중요한데 1순위가 호남입니다.

그리고 아까 국민의힘에서 계속 이것을 전력 문제를 제기하면서 송전망 얘기도 하시는데 저는 답답한 게 용인에다가 지으려고 할 때는 송전망 얘기를 안 해서 제가 너무 답답했어요. 지금 300km를 송전망을 끌고 오는 것을 가능하다고 다 박수를 치거나 지지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30km, 100km도 안 되는, 한 50km밖에 안 되는 송전망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저는 그래서 너무 정치적으로 볼 일이 아니다.

호남에 반도체 들어가는 건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수도권에서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트라이앵글로 가자는 거예요. 왜 트라이앵글이나 하면 영남에도 기본적으로 원전 전력이 있지요. 이게 RE100 이슈가 있기는 합니까만 하여간 당장 쓰기에는 원전 전력이 있고 용수도 있고 포항 앞바다의 심층수가 또 냉각수는 되게 양질이에요.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볼 때 영남에도 들어가야 되고.

영남은 제조기반이 있잖아요, 첨단 제조기반. 그래서 요새 특화반도체라는 게 되게 중

요한 이슈입니다. 특화반도체의 비전을 영남을 거점으로 해서 앞으로 펼쳐 나가겠다, 이런 산자부의 비전 전략을 얘기를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 트라이앵글로 가겠다는 걸 애초부터 전제하고 이 계획을,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게 어떠냐. 왜 호남 반도체 얘기 막 불쑥 꺼내 가지고 이게 마치 무슨 영호남 간의 정치적 결정으로 오해받게 만드냐, 이 점이 좀 아쉬워요.

그래서 저는 산업의 쌀이라고 그러잖아요. 철이 산업의 쌀일 때는 포항제철 하나 만들었다가 안 되니까 당진제철 그다음에 광양제철, 이것 트라이앵글이잖아요. 철강이 20세기의 기반산업이었다면 21세기 지능산업 시대에는 반도체가 기반이잖아요. 이것도 역시 트라이앵글로 분산 전략으로 가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산업부는, 기업은 선택을 어디다 하는지는 또 다른 문제예요. 하지만 산업부는 우리 반도체 전략은 분산 전략, 트라이앵글 전략으로 가겠다. 그래서 영남에는 이런 특화반도체 위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그리고 그런 기업이 있으면 정부도 같이 뛰어들겠다, 이런 비전과 전략을 제시해서 기업을 거기로 유도하고. 그러면 지금 구미라든가 창원이라든가 부산의 전력반도체라든가 창원의 방산반도체라든가 이런 게 다 한번 해 볼 만한, 몸을 풀게 돼 있어요. 이것 산자부가 할 일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가산업 전략적으로 한번 잘 검토해서 보완 좀 해 주시고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김종민 위원 그다음에 메가프로젝트에 보면 피지컬AI가 또 하나가 있어요. 반도체, 피지컬AI, AI데이터센터 세 가지 아닙니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그렇습니다.

○김종민 위원 피지컬AI가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앞으로. 반도체를 발판을 해서 AI데이터센터를 거쳐서 피지컬AI로 가는 거예요, 메가프로젝트. 결국 여기에 열매가 열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피지컬AI 관련된 거버넌스가 제가 불안해요. 피지컬AI 그러면 지금 과기부 업무가 돼 있어요.

그런데 전 세계 어디를 가도 피지컬AI를 R&D나 소프트웨어 산업으로 보는 데는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과기부 업무 보면 기술연구 분야하고 소프트웨어, 서비스웨어 이쪽을 과기부 업무라고 지금까지 생각을 해 왔어요.

그런데 피지컬AI, 예를 들면 휴머노이드가 소속이 어디입니까, 업무 소속이, 휴머노이드 산업은?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산업부입니다.

○김종민 위원 휴머노이드가 피지컬AI 아니에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가장 종합적으로 대표적인 게 휴머노이드……

○김종민 위원 그런데……

조금만 더 주세요.

○위원장 김성원 1분 더 드릴 테니까 마무리하십시오.

○김종민 위원 피지컬AI가 과기부 소속이에요. 휴머노이드는 산업부 업무입니다. 현장에서 얼마나 헛갈리겠어요. 이것 정리를 해야지 우리가 1600조의 막대한 자금을 투입한다고 말은 하는데 투입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불안정해요.

그래서 산자부는 어쩔 수 없이 M.AX라는 말을 만들었어. 이게 K-용어인데 한국만 쓰

는 용어예요. 밖에 나가면 M.AX 그러면 몰라요. 미니맥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피지컬AI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업무 분장이 필요한데 주도는 물리 아녜니까, 물리. 소프트웨어, 서비스웨어가 과기부 업무예요. 물리 관련된 것은 기본적으로 제조든 비제조든 피지컬AI는 산자부가 주관하고 피지컬AI와 관련된 서비스웨어와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술개발 관련된 또는 그것 관련된 산업, 이쪽을 과기부가 같이 연결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쪽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결국은 과기부 업무는 파운데이션 모델이나 이런 여러 가지 AI 업무가 많아요, 지금.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거버넌스 차원에서 정리정돈을 해야 메가프로젝트가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만약에 이게 복잡하잖아요. 그러면 과기부의 그 부분, 기술 부분하고 산업부의 산업 부분이 합쳐야 됩니다. 연구 부분은 교육부에 떼 주고 자원 부분은 에너지부에 떼 주고 이 기술·산업 부분을 하나로 가서 대한민국 메가프로젝트를 주도하는 거버넌스를 좀 집중적이고 안정화시켜야 됩니다. 1600조 투입하기 전에 이 논의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돼요.

한번 간단하게 답변 좀 해 보세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자세한 것보다 산업부가 결기를 갖고 거버넌스 문제를 좀 추진하고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중위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꼭 좀 부탁드립니다.

○**김종민 위원** 제가 1년 전부터 한 얘기인데 그동안에는 결기가 왜 없었어요?

○**위원장 김성원** 차관님 답변 잘하셨습니다. 답변하려면 한 10분 걸리니까 답변 잘하시고 나중에 별도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위원** 이것을 서면으로 이 문제에 대한 의견, 계획 이걸 좀 보내 주세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공개적인 것보다는 차분히 좀 별도로 앉아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제가 일단 평가를 해 보고 전략을 세워야지 1년 동안 지금 메아리가 없잖아요.

.....

○**위원장 김성원** 무소속 배려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자근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자근 위원** 구미갑의 구자근 국회의원입니다.

앞서 먼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진욱 위원께서 발언하실 때 ‘박정희와 그 일당’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산업화의 공로를 어떻게 그렇게 비하하는지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의 공을 높이 평가했던 것

모두 선거용 립 서비스였습니까?

광주라고 안 된다고 한 적 없습니다. 지역으로 오면 좋지요. 그런데 미래 먹거리, 분명히 절차적 정당성이나 여러 가지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것은 가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 국회에서? 그래서 유감이라고 표현을 드립니다.

그리고 차관님, 반도체 입지는 경제 논리로 해야 되는 거고 정치적 논리가 아니지요. 그렇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그렇습니다.

○구자근 위원 공감하시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구자근 위원 좀 전에 모두에 민주당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반도체특별법 관련해서 왜 늦었냐고 추궁도 하셨는데 저희들 무수히 논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장관님께서도 작년 7월에 임기를 시작했는데 저희들 반도체특별법 관련해서 왜 지연이 됐습니까? 주 52시간 R&D 관련해서 예외 허용하자는 것 그것 저희들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주야장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왜 안 됐습니까? 용인이라서 안 됐습니까? 용인이기 때문에 주 52시간 안 된 겁니까? 지금 광주이기 때문에 왜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걸 묻는 겁니다. 왜 그때는 안 됐고 지금 와서 왜 그렇게 말이 바뀌었는지 국민들이 궁금해하시고 묻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더 명확한 답변이 필요한 겁니다. 장관님, 차관님 이 자리에 계셨지 않습니까, 그 지난한 우리 토론 과정에서.

오늘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차관님,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기 위한 반도체 메가특별법 속도전이 중요하다. 그렇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그렇습니다.

○구자근 위원 그게 1번이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구자근 위원 그리고 정부에서 호응한 것은 그래도 지역균형발전적 차원에서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한 부분도, 측면도 있다. 그렇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그렇습니다.

○구자근 위원 그리고 지금 여러 민주당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광주 군공항 부지에도 완료돼 가 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진행이 된다 이런, 빨리 갈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30년도 시제품 나올 수 있고 몇 년 걸리지 않는다. 구마모토 TSMC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맞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그렇게……

○구자근 위원 그런 것들 여러 여러 고려를 하면 가장 빨리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곳이 최적지 맞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기업들이 그렇게 판단해 있는 상황입니다.

○구자근 위원 그렇지요? 기업들 판단 플러스 정부의 여러 가지 협력도 그렇지 않습니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그렇습니다.

○구자근 위원 그래서 그 샌드박스 안에 넣어서 그래서 모든 절차적 부분들을 해소해 가면서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그냥 빨리 가고 싶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그렇습니다.

○구자근 위원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께서 오전 질의 중에 또 우재준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기업들이 땅의 수요가 필요하고 우리 정부에서 제안했다, 부지를. 그런데 영남인지 호남인지 전국에 어디라도 지원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그 자료들은 충분히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되어야지 국민들 동의를 얻을 것입니다. 앞으로 국감을 통하고 예산을 통하고 해서 이 상임위 자리에서 지난하게 진행이 될 겁니다. 충분히 명분을 갖출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리면서,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돌아갑니까? 3년·4년 필요 없습니다, 우재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한번 띄워 보세요.

PPT 띄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한번 보세요.

광주 군공항 250만 평이지요? 구미 200만 평입니다. 지금 용인 몇 기입니까? 팽 6기에 한 240만 평, 35만 평 되지요? 광주에 4기 들어간다고 지금 계획돼 가 있지요. 기당 40만 평입니다. 그러면 4, 4, 16, 160만 평이면 되는 걸 아까 좀 전에 김정관 산업부장관께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재준 위원의 질의에 답변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2년, 3년 필요 없습니다. 용지 그대로 그냥 들어가면 됩니다, 국가산단에. 200만 평 그대로 있습니다. 물, 손만 뻗으면 물 있습니다. 원전, 전력 대한민국에서 경북이 250% 넘어갑니다. 왜? 대한민국 원전의 12기가 경북에 있습니다. 남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차관님이나 산업부처에서는 여러 부지를 제안해서 속도성, 시급성, 적정성, 부지……

○위원장 김성원 1분 더 드리세요.

○구자근 위원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지정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명확성을 가지고 앞으로 차관님이 부처에서 저희들을 설득시키고 국민들 동의를 얻어야 될 것입니다. 왜? 기업이 투자를 하는 부분들에서 많은 부분이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는 국고예산이 지금, 밝히지도 못할 국고예산이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남는 돈입니까? 대한민국의 여러 국민들이 피땀 흘린 세금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투명성을 요구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가지라고 설득을 시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광주 가는 걸 뭐라 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왜 박정희 대통령이 나오고 왜 정치적 논리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지적을 계속하고 앞으로 전력·용수 부분은 더없이 많은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겁니다. 재생에너지가 많아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지역을 선정했다라는 부분도 포함된다, 어느 전문가들이 재생에너지로 반도체를 24시간 돌린다는 그 말을 누가 믿습니까? 그 가능성, ESS 저장장치 지금 새벽에 돌릴 수 있습니까? 실효성이 적어도 25~3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다른 투입해야 될, 지금 당장 그런 것 필요 없이 할 곳이 있는데도 그렇게 인프라, 여러 가지 다른 부처와 협의를 어렵게 거쳐 가면서 이렇게 가냐 이 말입니다. 왜 그랬는지, 왜.

앞으로 산업부에서 충분하게 이 부분을 고민해서 저희 야당을 설득시키고 국민을 설득시켜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철민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희 위원 간사님들은 원래 길게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김성원 아니요. 잠깐만요. 오해 있을까 봐 그러는데 오전에는 장관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할 수 있게끔 약간 시간을 타이트하게 드렸지만 오후에는 위원님들 질의 마무리하실 수 있게끔 하고 있는 겁니다.

하십시오.

○장철민 위원 장철민입니다.

오늘 광주 반도체 팹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제가 사실 아까 인사말씀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국가산업 정책이 변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어떤 틀 중의 하나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수십 년간은 우리가 기업이 자율적으로, 기업활동은 기업이 결정하는 거였다는 그런 시절이었지요. 그리고 세계질서도 그랬고요.

그리고 아까 지금 박정희 대통령 얘기도 나왔지만 박정희 대통령 때는 그냥 정부가 다 결정하는 거였지요. 기업은 따라오는 거였고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그냥 기업들이 알아서 의사결정하면 세계에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냐. 특히나 반도체 시장에서 지금 상황에서 중국은 따라오고 공급부족 현상은 굉장히 심하고 슈퍼사이클 내에서 국부는 가장 많이 창출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한테 그냥 두면 되냐.

저는 사실 지금 이런 어떤 산업정책의 의사결정의 틀이 바뀌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정부가 제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래야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 가지의 상황이 저는 크게 변한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재작년 정도까지만 해도 저희가 반도체 팹의 요건이라고 하면 전력, 물, 인재 딱 이것만 얘기하는 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순간에는 가장 중요한 게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지요. 지금은 시간이 어마어마한 돈이지요.

실제로 삼성이나 SK도, 저도 어제 삼성, SK 용인 현장에 다녀왔는데요. 정말 하루라도 빨리 착공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차관님, 그렇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그렇습니다.

○장철민 위원 실제로 여러, 저도 앞으로의 메모리나 AI 관련된 수요에 대한 보고서가

나올 때마다 조금 챙겨 보려고는 하는데 지금 슈퍼사이클이 얼마나 갈까, 다음 슈퍼사이클은 언제 올까 이런 게 사실 어떻게 보면 하느님만 알 수 있는 영역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대한민국 전체나 기업들한테 진짜 중요한 얘기잖아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그렇습니다.

○장철민 위원 그래도 조금 유의미한 내용들이 올해, 내년 정도까지 슈퍼사이클이 내년, 내후년 정도에 약간 소강상태로 갔다가 또 AI데이터센터 수요가 지금 착공하고 완공되는 한 30년, 31년 되면 다시 슈퍼사이클로 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실제로 올해 지금 메모리 중의 한 22% 정도가 HBM에 들어가고 있는데, D램 생산하면, 내년만 해도 한 30% 정도 그리고 그 이후에 거의 한 5년 안에 한 50~60%까지 늘어나는, HBM 쪽으로 들어가는 메모리, 그러니까 메모리 공급부족이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장기화될 수도 있고 AI데이터센터가 어느 정도까지 지금 계획되는 게 현실화될지는 모르겠지만 31년 정도의 슈퍼사이클이 다시 올 수도 있다 이런 어떠한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2030년까지 지금 삼성이나 SK가 준비하고 있는, 특별히 준비된 게 대한민국 전체에 정말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렵지요. 2030년이라고 하는 게 제가 어제 삼성한테 들어 보니 팹 딱 짓는 데 정말 타이트하게 공사해도 26개월 걸린다고 하잖아요. 그것은 도저히 물리적으로 줄일 수 없는 시간이지요, 공사해야 되니까 물리적으로. 그러면 26개월 동안 아무, 팹 하나가 120조짜리인데 120조짜리 짓는 데 물리적으로 26개월이 걸리는데 그러면 착공하는 데 1년 걸려도 거의 한 4년 걸리는 거지요. 2030년까지 어려운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용인도 얘기하고 용인도 당기려고 하고 광주 군공항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250만, 350만 평을 가장 빨리 시작할 수 있는 광주공항 부지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지금 가장 중요한 요소인 시간, 가장 중요한 시간을 맞출 수 있는 부지를 정부가 제안하고 기업이 선택하고 국가산업정책의 새로운 틀을 만들어 나가는 게 메가프로젝트의 아주 중요한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사실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오늘 저희 당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조금 질투가 나요. 저도 좀 질투가 나요. 광주에는 이런 것 하네, 청주에는 이런 것 하네, 어느 지역은 이런 것 하네 할 때마다 현실 정치인으로서 사실 우리 지역에도 뭐 해야 된다는 생각이 당연히 들고 우리 지역에 뭐 가져와야 된다는 생각이 당연히 듭니다.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게 맞고.

하지만 정말 메가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사실 저희가……

○위원장 김성원 1분 더 드리십시오.

○장철민 위원 더 주신 거지요?

○위원장 김성원 예.

○장철민 위원 저희가 메가프로젝트라는 게 광주만 하려고 용인만 하려고 영남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메가특구법이라고 하는 게 용인에 적용이 되나요, 아직 우리가 발의는 안 했지만. 차관님, 용인에는 적용 못 하잖아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장철민 위원 저희가 사실 메가특구법이라는 게 특히 4극 3특, 충청이든 영남이든 사

실 지역의 성장 엔진을 결정하고 그 성장 엔진의 틀을 지역의 메가특구에서 확실한 새로운 어떤 비전으로 만들어 나가는 작업들을 하려고 저희가 지금 메가특구법을 논의하고 있는데 정부 안에서도 메가프로젝트가 이게 약간 광주 거다 이런 오해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면 저는 사실은 정말로 앞으로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 산중위가 그래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저부터 노력은 하겠지만 우리 메가프로젝트도 그렇고 앞으로 4극3특, 이 지역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결정하는 성장엔진과 그 성장엔진을 통해서, 아까 김종민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그게 피지컬AI가 됐든 무슨 반도체가 됐든 저희 대전에서 얘기하는 국방반도체가 됐든 그런 내용들이 정말로 대한민국 곳곳에서 균형적으로 결정되고 그 비전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간다라는 그런 비전들을, 사실 산업부도 그냥 지금 너무 급하니까 용인, 너무 급하니까 광주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폭넓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역들의 첨단산업들이 두루 발전할 수 있는 틀을 산업부에서 확실하게 자리 잡아갔으면 좋습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반도체가 전국 거점화가 될 수 있도록 산업부가 확실하게 책임지고 짊어지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순서에 따른 주질의가 종료되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 한마디만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발언 또 질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매우 존중하고 또 그것이 행정부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발언 중에 본인도 모르게 과한 발언이 나왔다고 생각했을 경우에는 항상 속기 삭제를 통해서 좀 바로잡아 주실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 간사 간 협의에 따라서 질문시간이 있습니다라는 제가 1분 시간을 더 요청하면 드리는 것은 추가질의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1분을 통해서 질문을 좀 마무리해 달라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바로 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오전 회의에서 말씀드린 것같이 질의답변을 포함하여 5분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 김도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읍 위원 차관님, 오늘 업무현황 자료 있지요. 이거 공문서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김도읍 위원 12쪽에 보면 호남권 반도체 성장거점 투자액이 삼성이 425조, SK가 470조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어요. 이게 확정된 투자액입니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아닙니다. 이 부분은 당연히 각 사가 투자 방향을 결정한 사항인 거고 투자 확정은……

○김도읍 위원 아니, 그런데 왜 차관님은 이 문서에 지방투자계획이라고 발표를 했습니

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계획은 확정의 의미보다 이러한 이정표와 목표를 갖고……

○김도읍 위원 차관님, 말장난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투자계획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투자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각 사 공시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시장상황에 따라서 이 내용이 변동될 수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한 가이드라인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확정된 투자는 아니라는 거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당연히……

○김도읍 위원 그리고 광주를 지정한 것은 정부였다는 거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양쪽이 같이 협의를 했고 광주를 포함한 여러 지역에 대해서 양사와 정부가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김도읍 위원 최태원 회장은 끝내 광주라는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서남권이라는 말을 쓰지. 이 부분이 아픈 부분이에요, 정부 입장에서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저희들이 국가산업단지로……

○김도읍 위원 차관님, 정부 입장, 대통령 입장에서는 광주를 지목한 당사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게 아픈 부분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갑시다.

저희 국민의힘에서 광주여서 안 된다는 이야기 누가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많은 위원들께서 지금은 속도전이 중요하다고 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 그 전제가 되는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이 인력, 물, 전기, 그게 전제가 되는 상태에서 속도전 맞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그렇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래서 하는 이야기예요.

차관님, 2026년도 올해 전반기 우리 수출 총액을 볼 때 반도체 수출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제가 통계를 보니까 38.7%예요. 전례 없이 비중이 높아요. 수출로 경제를 지탱하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효자 중에 효자입니다. 맞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그렇습니다.

○김도읍 위원 이게 왜 그렇습니까? 정부가 속도를 안 내 줘서 또 속도를 내면 더 좋아집니까?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기업이 끊임없이 투자하고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아닙니까? 차관님, 맞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우선은 기업의 공로입니다.

○김도읍 위원 그런데 기업이 주도적으로 자기들이 입지를 선택을 하지 않고 정부가 지정을 해 주고 거기에 가라는 거예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2040년도까지 단계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맞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그렇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런데 이게 상당히 위험한 게 대통령께서는 8월 10일 날 군공항 2028년 상반기까지 다 비워라, 산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압박인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차관님, 세계시장에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제조사마다 차이가 있습니까, 비슷하거나 균일합니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수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수렴하는 경향이 아니고 거의 범용제품으로서 시장가격은 거의 같잖아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고객이 어떤 고객이나에 따라서 계약 내용들이 달라져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도읍 위원 그런데 이게 생산하는 자국에서 국부 창출은 뭘로 합니까, 이 제조사들이?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소부장까지의 연관 효과가 포함되어 된다고 봅니다.

○김도읍 위원 기술력, 생산원가를 얼마나 경쟁력 있게 가져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삼성과 SK하이닉스의 국부 창출이 좌우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그렇습니다.

○김도읍 위원 재생에너지 전기가 비쌌니까, 원전 전기가 비쌌니까? 답할 필요 없이 당연한 거잖아요. 원전이 싸잖아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원가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위원장 김성원 1분 더 드리십시오.

○김도읍 위원 이게 지금 원가 싸움이예요, 국부 창출을 위해서는.

그러면 또 물이 풍부한 강을 끼고 있는 지역이 유리합니까 아니면 지금 광주 같은 경우는 동복댐을 비롯해서 댐 4개에서 매일 65만 톤을 공급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초순수로 만들 때 비용은 또 어떨까요? 댐물을 반도체 용수로 쓰려면 얼마나 정수해야 됩니까? 전문가들이 말하는 대로 하면 초순수 아닙니까?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삼성이든 SK든 지금까지 해 왔듯이 본인들이 원가를 가장 경쟁력 있게 갖추면서 자기들이 시장에서 점유를, 시장에서 이겨 낼 수 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걸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정부가 입지를 이렇게 지정해서 하는 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 광주여서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김성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원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이 위원 차관님, 산업부차관님 계속……

태양광이 한 10년 전에 발전단가가 어느 정도였지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거의 10년 전이면 한 200원 가까이 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김원이 위원 그때 석탄발전소 단가는 얼마였어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한 80원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김원이 위원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태양광 발전단가하고 석탄 발전단가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되나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지금이 아마 태양광이 한 80원 정도까지 내려온 것 같습니다.

○**김원이 위원** 예, 그렇지요. 지금은 아마 석탄 발전단가보다 더 싼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정확한 액수는 제가 기억 안 나는데 얼마 전에 뉴스가 석탄 발전단가보다 태양광 발전단가가 더 낮아졌다 이런 뉴스를 본 기억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은 발전단가만 따지면 원전이 더 낮겠지요. 그런데 거기에 폐기물 단가까지 치면 어떻게 되나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거기서부터는 많은 논란들이 있는 내용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김원이 위원** 저는 그래서 원전에 대해서 닫혀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이재명 정부가 실용주의를 표방했고 사실 에너지 믹스를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필요하다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원전들에 대해서 사용연한이 다 된 원전도 안전성이 확보되고 주민동의만 있으면 연장해 주려고 하고 있잖아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그렇습니다.

○**김원이 위원** 거기에 따라서 지난번에 또 필요하다면 신규 원전도 가능하다는 유연한 입장을 밝힌 거 아니에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기후부에서 그렇게……

○**김원이 위원** 저는 논란할 필요가 없다, 에너지원은 충분히 많이 확보하는 게 굉장히 지금 중요하다, 뭐 하나에 고정돼 있는 시각이 아니라 좀 열려 있는 시각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인데 어떤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기후부도 다행히 원전뿐만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LNG나 복합화력까지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하는 입장으로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김원이 위원** 그래서 지금은 원전이나 재생에너지나 싸움이 아니라 어떻게 많이 확보해서 믹스를 잘할 거냐 이런 시대 아닌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그렇습니다.

○**김원이 위원** 그렇게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논란이 안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구요.

지금 기업이 투자를 결정하는데 왜 정부가 나서서 감 놔라 배 놔라 하냐, 부지 얘기 왜 하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수도권 규제를 왜 하지요? 기업이 하던 대로 넓워 버리면 될 것을 우리 정부가 수도권 규제를 언제부터 했지요? 제 기억으로는 90년대니까 아마 김영삼 혹은 이 전후에 우리가 수도권 규제를 정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쯤에 아마 수도권이 워낙 팽창하니까 수도권 발전을, 확장을 더 이상 막기 위해서 수도권 규제라고 하는 칼을 꺼내 든 거였잖아요. 그러다가 우리가 결국 풀어 준 게 용인 아닙니까? 용인 반도체. 하도 SK가 외국으로 나가겠다고 그래서 용인 허용해 준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그렇습니다.

○**김원이 위원** 그러니까 정책이라고 하는 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옛날에는 기업에 맡겨 놓으면 그냥 알아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어느 날 정부가 주도해서 정부가 꼭 쥐고, 박정희 개발독재 시대에 꼭 쥐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 안 들으면 기업 없애 버리고 그랬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흐름이 바뀌어서 어느 한 주체만의 힘 가지고는 돌파하기 어려운 산업환경이 온 거지요. 왜? 특히 반도체 관련해서는 이게 산업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거잖아요. 반도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시대가 와서 그 반도체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국가 전략자산화되었다고 봅니다.

○김원이 위원 그렇지요. 대만·한국·미국·일본·중국 이런 나라들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밀리면 미래가 없다는 판단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산업에 대한 관심에다가 플러스 투자의 규모가 이거 옛날에는 막…… 평택에 있는, 기흥에 있는 삼성 팹이 그때 당시 조성할 때 얼마였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아주 예전에는 10조 정도밖에 안 됐던 게……

○김원이 위원 지금 얼마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지금은 150조 정도까지로 올랐습니다.

○김원이 위원 한 팹에 한 150조, 많이 잡으면 200조까지 잡는단 말이지요. 이렇게 투자 규모가 늘어나면서 한 기업한테 모든 걸 다 부담시키기는 어려운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도와서 SOC 깔아 주고 도로망 깔아 주고 용수·전력 깔아 주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옛날 같았으면 그냥 기업 알아서 하라고 그 부담을 다 전가했겠지요. 기업이 너네가 부담해라 이랬겠지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안 되는 시대가 온 거잖아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그렇습니다.

○김원이 위원 그래서 이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문제에 대해서도 기업과 정부와 지방정부와 투자자들이 함께 의논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그렇습니다.

○김원이 위원 그것을 잘못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시대적 흐름 아닙니까. 산업 세계의 글로벌 환경이 그렇게 바뀌니까 거기에……

저도 1분만 더 주면 안 됩니까?

○위원장 김성원 예, 1분 더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십시오.

○김원이 위원 그런 시대적, 세계적인 글로벌 경쟁 환경에 놓여 있는 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그렇습니다.

○김원이 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하나 관심 가져 달라고 부탁하고 싶은 게 뭐냐면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뿐만 아니라 충청권·영남권을 위해서라도 지금 뭐가 풀려야 되냐면 국가첨단산업법 풀려야 되는 거 차관님 아시지요? 지금 현재 SK하이닉스가 투자하고 싶어도 공정거래법상 투자 못 하잖아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원이 위원 그래서 뭘 풀어야 되지요? 지금 예를 들어서 SK하이닉스가 손회사 아닙니까, SK주식회사의? 이 손회사가 증손자에 투자할 때 투자금의 100%를 자기가 자부담해야 된단 말이지요. 이거 풀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그렇습니다.

○김원이 위원 법 발의가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그 문제는 또 넘어서 여수산단의 석유화학단지 조정하는 문

제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쪽은 저희 산업부가 다시 한번 결기를 갖고 공정 위하고 꼭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원이 위원** 이것은 진짜로 우리 여야가 같이 공동으로, 왜냐면 이게 충청권, 영남권, 호남 다 걸려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산업부가 진짜 의지를 가지고 여야 위원님들도 잘 설득해 주셔야 되고 다른 공정거래위원회나 설득하셔서 빨리 추진하셔야 됩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원** 수고하셨습니다.

문 차관님, 많은 결기를 오늘 굳게 가지고 가십시오. 혼자만 하지 말고 장관도 좀 결기 있게 하라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원** 다음 김의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의겸 위원** 군산·김제·부안갑의 김의겸입니다.

오늘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거 들어 보니까 광주 반도체 선정, 입지 문제를 놓고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지요. 예를 들면 메가특구 어디로 선정하느냐 또 RE100 산단 어디로 지정이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연말에 법안이 통과되고 내년 초면 아무래도 선정 문제를 놓고 또 한 번 진통을 겪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는 좀 더 객관적이고 명확하고 투명한 잣대를, 기준을 미리 제시를 해서 그 기준에 맞는 지자체들, 그 기준에 맞는 지역이 경쟁에 뛰어들지 말지 결정해서 매몰비용도 없애고 또 결과가 나왔을 때 깨끗이 승복할 수 있는 그런 과정 관리를 미리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제 옆자리 김원이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법 보면 10조에 그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법에 보면 ‘충분한 재생에너지 공급과 기업의 입주 수요 확보 가능할 것’ 이런 기준이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사실 조금 구체적이지는 않지요.

그래서 말하자면 ‘재생에너지’ 이렇게 나오면 어느 정도의 발전용량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어느 시점에 어느 정도의 설비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명확한 기준을 좀 밝혀 주시고 그리고 또 ‘기업의 입주 수요’ 이것도 예를 들면 앵커기업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앵커기업이 들어온다면 또 그 앵커기업의 투자 규모라든지 또 구체적인 투자 절차 이런 것들을 미리, 물론 법에는 담을 수 없겠습니다마는 시행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서 객관적이고 정량화될 수 있는 내용들을 미리 좀 밝혀 주시면 어디로 가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논란을 아주 피할 수는 없겠지만 그 논란을 그래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점을 좀 염두에 두십사 하는 문제고요.

이어서 또 말씀을 좀 드리자면 RE100 산단 특별법, 재생에너지자립도시법인데요, 거기

에 지금 네 가지의 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RE100 산단의 어찌 보면 4개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중에 3개는 저는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중에 하나 분산형전력망지구가 있는데 이걸 지금 우리가 그만큼 여건을 갖추고 있느냐라고 하는 데 있어서 조금 고개가 갸우뚱거려집니다.

저희가 미리 한번 좀 확인을 해 보니까 이 분산형전력망지구에 대한 사전검토나 연구 용역, 실증 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한 적은 없다고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런 상태에 서라면 이 분산형전력망지구 구축을 위해서는 계통시스템이 있어야 되지요. 또 전용망이 있어야 하지요. 또 ESS, 막대한 비용이 들고 또 이 법은 그런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라고 사실상 지불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 이게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특히 AI데이터센터 같은 경우에는 전용망도 필요하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또 한전의 공용망에 백업 시스템을 갖추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그렇습니다.

○김의겸 위원 그랬을 경우에는 이중의 부담이 들기 때문에 이 문제, 아까 네 가지의 기둥 가운데서 분산형 전력망지구 그 하나의 기둥에 대해서는 한번 조금만 중장기적 과제로 돌려서 연구를 마치고 여건이 갖추어지는 걸 보면서 시행하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 나온 김에 저도 1분만 더 주면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원 예, 더 드리겠습니다.

○김의겸 위원 SAF 있잖아요, 지속가능항공유. 이 문제는 지금 내년에 1% 하도록 되어 있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그렇습니다.

○김의겸 위원 그리고 현재 30년에 3~5%를 한다 이렇게 레인지만 잡아 놓고 있는데 이것 결정을 안 지어 주시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구용역은 들어갔으리라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석유관리원에서 아직 발주를 하지 않았다고 제가 답변을 들었어요.

석유관리원 나오신 분 계신가요?

아직 안 들어간 거지요?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최춘식 예, 그렇습니다.

현재 준비 중에 있고 지금 석유대체연료 생산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김의겸 위원 이러다 보니까 지금 SAF가 국제적으로 시급한데 정부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느 정도일지 정해 주지 않으니까 관련된 기업들이 또 어느 정도 투자를 하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게 계속 늦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산업부에서 언제쯤 결정할지 한번 검토를 거치셔서 답변을, 명확한 시기를 밝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SAF 얼라이언스도 지금 기존에 있었던 정유업체들만 들어와 있고 여기에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체들은 배제되어 있어서 정작 주인공들이 빠져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SAF 얼라이언스 문제도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몇 %인지 그리고 얼라이언스 어떻게 구성할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지영 위원 차관님, 오전에 제가 장관님께 질의했을 때 부지 지정을 어떻게 했는가라는 과정에서 장관께서 ‘여러 부지를 기업에 제안했고 기업이 최종적으로 이 부지를 선정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지를 제안했는지 오후에 보고를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하시지요. 어느 부지를 제안했습니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지영 위원 다양한 부지를 제안했다고 했습니다. 다양한 부지, 몇 개의 부지, 어느 지역입니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부지에 대해서 기업들도 부지 검토를 하고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정부에 요청해서 저희들이 제공을 했고요.

○서지영 위원 그런 얘기는, 지금 불필요한 얘기 하지 마시고요. 다양한 부지가 어디입니까, 몇 군데?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저희들도 필요한 정보를 주면서 부지에 대한 것들을 같이 제공했었습니다.

○서지영 위원 그건 지금 의미 없는 얘기시고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그리고 답을 드리는 말씀이……

○서지영 위원 그런 얘기는 지금 의미 없는 얘기시고, 장관께서 얘기한 다양한 부지가 어디였는지, 몇 군데였는지를 보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하신다고 아까 하셨지 않습니까, 장관께서?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제가 기억하기로는 ‘부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검토해서 오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취지인 것으로……

○서지영 위원 그래서 검토해서 오후에 말씀하셔야지요, 지금.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그래서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투자 결정과 관련해서 검토했던 그러한 사안들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는 광주지만 그 전에 검토했던 내용들을 제가 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사안들이 이렇고 저렇고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지영 위원 그러면 지금 차관님께서 아까 장관께서 얘기한 다양한 부지를 제안한 것에 대해서 몇 개인지, 어느 부지인지 지금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씀하시기는 어려우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그렇습니다.

○서지영 위원 그러면 의원실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간사님, 이것은 확실하게 다짐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대통령 주재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2차 민관 합동 점검회의가 있었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그렇습니다.

○서지영 위원 어제인가요? 거기에서 아까 제가 장관께 말씀드렸을 때 주 52시간 유예와 관련한 여러 가지 노동 규제 완화에 관한 얘기가 비공개상에서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어제 회의에 대한 브리핑도 다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알고 있습니다.

○서지영 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다는 얘기는 허용하자 규제하자 이런 얘기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각 부처도 있고, 입장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어떤 말씀 하셨습니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오전에 장관님께서 말씀드렸듯이 비공개 회의로 된 사안들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저희 쪽 산업부가 뭐라고 말씀드리는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지영 위원 그러면 대통령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언급은 하셨습니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제가 그 자리에 참석을 하지 못했다는 말씀 우선 드리고 그 부분까지 말씀드리는데는 좀 적절치 않다고……

○서지영 위원 알겠습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죄송합니다.

○서지영 위원 그런데 이 합동회의가 끝나고 나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브리핑을 했어요, 공식적으로.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청와대 고위관계자발로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황당무계한 보도가 나왔어요. 한번 띄워 주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 노동 규제 완화와 관련된 이슈에 대한 질문이었던 것으로 압니다.

‘해당 지역과 노동계가 함께 논의해 공간을 열어 낼 때다’, ‘지역주민의 동의를 받을 때 가능한 문제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지역주민의 동의라는 것에 대해서 청와대와 정부간에 이러한 논의 있습니까? 이걸 뭘 의미하는 겁니까? 노동 규제 완화하는데 지역주민 동의받아야 되는 문제입니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저도 이 기사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저도 무슨 말씀인지……

○서지영 위원 차관님, 이따가 장관님께도 말씀하시고 산업부 차원에서 이 청와대 고위관계자 누구인지 확인하십시오. 도대체……

문명사적 대전환기에 있는 사업이라고 지금 여당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에 있어서 노동 규제 완화와 같은 핵심적인 이슈가 지금 여러 가지 본격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청와대 고위관계자 이 사람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해당 지역과 노동계가 함께 논의하는 것도 이것도 좀 약간 제가 볼 때는 정부 고위관계자가 할 수 있는 얘기인가 싶고요.

지역주민의 동의를 받는다, 그러면 반도체 특별법 통과시킬 때 관교에 있는 주민들 동

의받고 통과시켰습니까? 만약에 이 반도체 산단에 생겨서 특구에 해외 노동자들도 올 수 있고 고급 노동자들도 올 수 있습니다. 인도의 엔지니어들도 올 수 있고, 그 사람들 인도 주민들한테 동의받을 겁니까?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는 노동 규제 완화 동의하면 해 줄 겁니까?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서 이러지요, ‘대통령이 지휘하거나 청와대가 지휘해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숙고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대통령 주재로 이런 회의 왜 합니까? 누가 수사 지휘하라고 했습니까?

문명사적 전환기에 있는 메가프로젝트 하신다면서요, 정부에서.

저도 30초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성원 예, 더 드리겠습니다.

○서지영 위원 저는 산업부에서 여러 가지 정말 대전환의 산업 프로젝트 하기 위해서 애를 쓰신다는 것 압니다, 공직자들께서. 굉장히 응원합니다.

그러나 이 청와대 고위관계자 누구인지, 이 분은 앞으로 이 논의 대상에서 제외시키십시오. 오늘 청와대에서 듣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군공항이 언제까지 이전한다 이런 것 확실하게 얘기하면서 마치 엄청나게 청와대가, 대통령이 선물 주는 듯이 얘기하면서 왜 이런 중차대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청와대는 쪽 빠지려고 합니까? 생색내는 것은 대통령이 하고 자기 지지층의 반발을 일으킬 것 같은 것은 쪽 빠지고 이게 뭐니까, 도대체? 지역주민 동의라니요. 굉장히 무책임한 겁니다.

그러니 이런 무책임한 소리 하는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앞으로 이 논의 대상에서,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건의해서 제외시키십시오. 국민들이 얼마나 한심하게 생각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지영 위원 그리고 그 자료는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만……

○위원장 김성원 예, 하십시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다른 말씀 답변드리는 것보다는 지역주민 동의 부분 쪽이 아마 제 생각에는 메가특구법 안에 보면 해당 신청을 하고자 하는 데가 메뉴판식의 규제 완화 조치들이 있으면 거기에서 선택해서 신청해서 심의해서 결정하는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해당 지자체가 신청하는 경우라는 것을 생각하고 하는 말 아닌가 싶기는 한데 표현들이 저렇게 표현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서지영 위원 노동계가 함께 논의해서 공간을 열어 내야 된다잖아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그 뒷부분, 지역주민 동의하고 관련해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서지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원 알겠습니다.

차관님, 여기 답변하실 때요 추정에 근거해서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원 그때 참석도 안 하셨는데 그런 추정에 의해서 지금 위원들 질의에 답변하시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유념해 주십시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원 다음, 차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차규근 위원 산업통상부차관님, 장관님이 아직 안 오셔 가지고 아쉽기는 한데 장관님 안 계시니까, 메가특구 노동시간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 기후에너지환노위뿐만 아니라 산자중기위 위원 중에서도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위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리기 위해서 관련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작년에 SK하이닉스가 특별연장근로 활용할 때 대상 연구개발인력 380명 중에 주 60시간 이상 일한 사람이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은……

○차규근 위원 4명입니다. 1.1%에 불과했습니다. 기존 예외 제도로도 충분히 대응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차관님, ‘996.ICU’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996은 들어 봤습니다만.

○차규근 위원 996.ICU는 잘 모르십니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차규근 위원 996은 아시지요? 중국에서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주 6일 일하는, 그게 최근에 김정관 장관님께서 중국에서 996을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노동자들이 더 일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도 그런 근로의 자유를 주어야 되지 않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셔 가지고 노동부가 반박하고 지금 이렇게 논쟁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996.ICU는 뭐냐 하면 ICU가 인텐시브 케어 유닛(Intensive Care Unit)입니다. 중환자실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996 제도 해서 나왔을 때 개발자들이 996을 하면 중환자실에 간다 그래 가지고 중국 노동자들이 996 제도를 비판하기 위해서 만든 사이트예요.

2019년도에 이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996.ICU, 중국에서.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반향을 불러일으켰고요. 마이크로소프트 등 유수의 IT기업 개발자들이 연대의 뜻을 공개적으로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도 996.ICU 사이트에 996 기업이 공개가 됐어요. 개발자들이 그것을 기피하는 겁니다, 이왕이면 996 아닌 데로 가려고. 우수 인재를 갖다가 유치해야 반도체 사업도 잘될 것 아닙니까?

지금 중국에서 996 불법인 것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공식적으로는 불법이라고……

○차규근 위원 불법이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차규근 위원 그리고 996.ICU 첫 페이지 맨 마지막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Developers’ lives matter(개발자들의 생계는 중요하다)’.

지금 장관님 계셨으면 내가 이것 장관님한테 직접 질의하려고 했는데 안 계셔 가지고

부득이 차관님한테 관련되는 내용을 질의했는데 나중에 장관님 오시면 제가 이런 관련된 질의를 했다고 꼭 보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규근 위원 중소벤처기업부차관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행 노용석 예, 위원님.

○차규근 위원 한국은행이 최근에 우리나라 중소기업 현황과 지원제도 개선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냈는데 혹시 관련된 보고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행 노용석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차규근 위원 중소기업 현황과 지원제도 개선 관련해서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들을 많이 담아 왔더라고요. 그중의 하나가, 시간이 많이 부족하기는 한데 오늘 잠깐 질의를 하자면 지금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사업 성과를 평가하는 핵심 지표가 매출액과 고용 증가지요.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행 노용석 예.

○차규근 위원 그런데 한국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그 매출·고용 증가가 사실상 생존 연장 효과일 뿐이고 기업의 체력인 생산성과 투자는 오히려 후퇴했다고 평가를 했더라고요.

특히 저업력 기업일수록 매출·고용효과가 크게 나타난 반면에 한계기업에 대한 지원은 매출·고용효과조차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 지원이 정상 기업에는 통하지만 한계기업에는 생존 연장 그 이상의 의미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의 성과 평가체계에 생산성, 설비 투자 같은 질적 지표 그리고 한계기업 여부를 구분하는 지표가 실질적으로 반영되어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행 노용석 예, 저희가 최근에 성장 가능성 평가 위주로 시스템을 개편하고 있습니다.

○차규근 위원 개편 중입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행 노용석 예, 그렇습니다.

○차규근 위원 그러니까 한국은행의 이런 분석과 평가 차관님께서도 일리 있다고 동의하시는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행 노용석 예, 저희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차규근 위원 그러니까 매출·고용 중심의 성과체계 자체가 지원 방향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그런 평가인 것 같아요.

시간 부족으로 오늘 여기까지만 여쭙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개편되는 대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행 노용석 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차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장관님 오셨는데요.

김정관 장관님, 잠깐만 일어서시겠습니까?

저 지금 상당히 유감입니다. 저희가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요, 위원님들……

○박희승 위원 아니, 그런데 장관님을 일어서시게 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벌써게 하

는 것도 아니고.

○**김원이 위원** 앉아서 얘기하시지요.

○**위원장 김성원** 잠시만요. 잠깐만요.

첫 상임위 회의를 하는데 저희가……

○**김원이 위원** 위원장님, 앉아서 듣게 하면 되지요.

아니, 위원장님, 이것은 아니지요. 어떻게 일국의 장관을 저렇게 세워 둥니까?

○**송재봉 위원**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김원이 위원** 앉으세요! 앉으세요!

장관님, 앉으세요.

이건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아니, 그런데 무슨 말씀을 하실는지도……

○**위원장 김성원** 잠깐만요, 저 말 아직 안 끝났습니다.

○**김원이 위원** 위원장님, 앉아서 듣게 하시면 되잖아요.

○**박희승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은 예의가 아니지요.

○**송재봉 위원**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장내 소란)

○**위원장 김성원** 첫 상임위를 하는데 여유 있게 시간을 주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김원이 위원** 위원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장관님한테 저게 뭐…… 이걸 무례하지요.

○**위원장 김성원**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아니, 당초 계획보다 행사가 오래 진행돼서, 마치자마자 돌아왔습니다.

○**위원장 김성원** 아니, 어쨌든 제가 유감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김원이 위원** 아니, 위원장님, 앉아서 듣게 하세요. 무슨 별섭니까? 일하다 오신 분이예요.

○**위원장 김성원** 예, 앉으십시오.

○**김원이 위원** 일하다 오신 분을……

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장관이 그렇게 중요하면 위원장도 좀 존중해야지.

○**김원이 위원** 아니, 놀다 오셨습니까?

○**박성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어 보라고, 무슨 말씀하는지 들어 보라고.

○**위원장 김성원** 아니, 말씀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김원이 위원** 위원장님, 대한민국 정부의 산업부 수장입니다. 놀다 오셨습니까, 김정관 장관이? 위원장님이 허락해서 일 보고 오신 것 아닙니까? 그만큼 중요한 일이어서 여야 간사와 위원장님이 허락해서 가지고 일을 처리하고 오신 분 아닙니까? 공무를 처리하고 오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경고를 하고 싶으면 정당하게 하면 되는 거지. 아니, 어떻게 세워져 말씀을 하십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위원장님, 앞으로 이렇게 의사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 김성원 예, 알겠습니다.

○김원이 위원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성원 다음, 박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승 위원 남원·장수·임실·순창 국회의원 박희승입니다.

지식재산처장님, 아무도 질문을 안 하셔서 제가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식재산처장 김용선 고맙습니다.

○박희승 위원 최근 AI·피지컬 AI·바이오 등 첨단기술 분야의 기술개발 속도가 매우 빨라지면서 특허 심사의 신속성이 기업의 시장 선점과 직결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처도 2026년부터 피지컬 AI·합성생물학 등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확대하고 전체 특허 심사 대기기간을 14개월로 단축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사기간을 단축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특허 심사의 정확성과 품질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특히 AI 분야는 기술 변화가 빠르고 선행기술의 범위가 광범위해 심사 속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부실 심사나 권리범위 판단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지식재산처가 제시한 특허 심사 평균 대기기간 14개월 단축 목표가 단순한 처리기간 단축에 그치지 않고 심사 품질 향상과 함께 달성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2026년 현재 분야별 심사기간과 특허 등록률, 심사 품질 관련 지표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습니까?

○지식재산처장 김용선 심사 대기기간은 작년에 14.7개월이고요, 올해 상반기는 출원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14.4개월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 품질 관련해서도 등록률과 재심사 청구율이 일정 수준으로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박희승 위원 우리 기업이 해외 경쟁사보다 신속하게 핵심 특허를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특허 심사와 해외 출원 분쟁 대응을 연계하는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후속 대책이 있습니까?

○지식재산처장 김용선 요즘같이 기술 변화 속도가 굉장히 빠른 시대에 지금 14.7개월, 평균이 14.7개월인데 특허 심사 처리기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반 모두가 심사 처리기간을 단축시키기는 현재 시점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AI랄지 바이오 분야랄지 전략적인 산업에 대해서는 자원을 우선 배분해서 신속하게 심사를, 초고속 심사 대상으로 지정해서 한 달 내에 심사를 처리하도록 하고, 특히 청년 창업가에 대해서도 초고속 심사 대상으로 지정해서 가능하면 1개월 내로 특허 심사 결과를 받아 볼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희승 위원 모태펀드 특허계정 예산 규모가 2024년에는 114억 원, 25년에는 80억, 작년에는 아예 예산이 0원이었는데요. 이렇게 모태펀드 특허계정 예산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되면 우수한 IP를 보유한 기업이나 IP 자체에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책이 있습니까?

○지식재산처장 김용선 위원님, 그 지점은 저희도 굉장히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특허기술 거래랄지 사업화 차원에서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태펀드 조성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올해 모태펀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이 점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박희승 위원 그다음에 메가프로젝트 광주 지정과 관련해서 계속 위원님들 질의도 많았고 그랬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 우리나라의 국가 균형발전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장소가 이제 정해졌는데 다시 바뀔 리도 없고요. 아까 광주 지정을 반대하지는 않는다고 어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더 이상 그런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제가 작년의 지자체 수출입 통계 현황을 보니까 2025년에 경기도 퍼센티지로 25%, 올해 상반기는 32%, 부울경이 25년에 21%, 상반기가 15.9%, 충남·대전이 25년에 14.4%, 26년에 20.2% 이런 순위로 되고 있고 제가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전북은 작년에 0.9%, 올해는 상반기 0.7%, 사실은 전북 같은 지역은 엄청나게 소외되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우리가 산업화 과정에서 변화 추이를 보면 65년, 66년 인구통계를 보면 전국 20대 도시 중에 전북이 한 5개, 전남이 5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산업화를 거치면서 지금 전북에 있는 전주가 제일로 큰 도시인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40년 전에 60만이었는 데……

1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 김성원 예, 1분 더 드리겠습니다.

○박희승 위원 그때도 60만이었는데 40년이 지난 지금도 60만입니다. 이렇게 산업화 과정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부울경이라든지 수도권 중심으로 개발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역이 굉장히 편파적으로 한쪽은 발전하고 한쪽은 침체된 게 현실입니다. 저는 현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이런 큰 메가프로젝트를 기획한 것은 정말 잘한 것이라고 보고.

아까 존경하는 정진욱 위원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국민 모두가 골고루 균형성장을 이루는 게 국가의 정책 목표로서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더 이상, 자꾸 지역 가지고 서로 간에 왜 광주로 갔냐 이렇게 따지는 것은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는 이 반도체 정말 호황기에 빨리 반도체 팹을 완성해서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좀 대승적 견지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민 위원 장관님 수고 많습니다.

광주 반도체를 광주라서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산업화 과정에서 사실은 부산, 울산, 경남, 경북 그쪽 벨트가 굉장히 오염되고 또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특히 원전 관련해서는 원전이 전부 다 거기 깔려 있습니다. 방사능이고 뭐고 전부 다 주민들이 완전 노출 상태에 있는데 그렇게 전력을 생산하는 기지만 거기에 해 놓고 결국에는 수혜가 없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어쨌든 광주 반도체 관련해서는 부지라든지 혹은 인력 또 전기, 용수 관련해서 서면질의를 드릴 테니까 빠른 시간 내에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어떤 욕구를 좀 충족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미 관세에 관련해서 장관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완화됐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직까지 그렇지 않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지금 통상환경은 불확실성이 위원님도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계속 지속되는 상황이고 그 불확실성을 관리하는 나라입니다.

○**박성민 위원** 그런데 정부에서 장관님을 비롯해서 거의 열다섯 차례에 걸쳐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완화됐다 이렇게 자랑을 계속하고 있어서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저는.....

사실 우리는 한미 FTA를 통해서 자동차라든지 이런 관세가 거의 제로였는데 지금 15% 물고 있고 일본은 2.5% 물고 있다가 지금 15% 물고 그렇게 보면 우리는 일본보다 훨씬 더 불합리한 관세를 지금 현재도 체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시장의 수출도 줄어들고 있고 또 15% 관세가, 지금 현재 누적된 관세액만 해도 한 6조 정도 현대자동차그룹에서 물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일단 15%는 지금 물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래서 15%를 트럼프 정부 2기 와서 갑자기 그렇게 하고 있는데..... 또 미국 트럼프 정부는 한 가지 법안 막히면 또 한 가지 내놓고 또 한 가지 법안 막히면 또 한 가지 내놓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끌려다닌다, 너무 방어 태세다, 오히려 사전에 우리가 예견하고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필요가 없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15% 하다가 언제 25% 올릴지 모르지요, 장관님?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지요. 지금 미국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박성민 위원** 거기에 대한 대비는 그냥 미국 상황만 보고 그때그때마다 대처를 합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진짜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하고 싶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런데?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지금 상황은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미국이 변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계속 소통도 하고 미국의 그런 영향이..... 미국의 대응이 우리나라만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박성민 위원** 우리가 제일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하여간 우리나라가 경쟁국에 비해서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렇게 우방국이라고 하면서 미국의 정보가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최소한 미리 대비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중기부차관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행 노용석** 예, 위원님.

○**박성민 위원** 지금 홈플러스 67개 점포가 내일 가오픈한다고 합니다. 한 달짜리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행 노용석** 예,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2000억 무슨 보증 가지고 이게 가능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행 노용석** 아무래도 저희는 입점기업 소상공인하고 협력업체 금융지원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박성민 위원** 문제는 정부 지원이, 물론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이 과거의 소상공인들, 과거의 기준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이게 사실은 홈페이지에 특정된 자금이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행 노용석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1400억 원을 점포에 배정했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렇지요? 홈페이지에 특정된 자금인데 그 조건이 보면, 예를 들어 채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게 보면 과거하고 동일하게 돼 가지고 결국에는 이게 실효성이 없어요. 이게 긴급경영안정자금이라고 하지만 사실 승인율은 38%에 불과하다, 그러면 ‘빛 좋은 개살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승인율을 좀 높여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행 노용석 예, 저희가 매출이나 영업이익 10% 이상 감소 요건 이런 부분은 폐지를 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원 1분 더 드리세요.

○박성민 위원 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행 노용석 추가적으로 요건 완화할 부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고.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 드리기 뭣합니다마는 제 지역구는 사실 대형마트가 홈페이지 하나밖에 없어요, 인구가 24만 명인데. 이게 문을 닫으니까 지금 온 주민들이 생필품을 살 수가 없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선별적으로 하든지 정부에서 맞춤형으로 적극적으로 정책을 내봐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행 노용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아시겠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행 노용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박성민 위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혜련 위원 장관님, 이제 반도체 특별법이 시행돼서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게 돼 있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백혜련 위원 지금은 기존의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만이 아니라 용인, 평택, 청주 기존 반도체특화단지나 조성 중인 곳도 반도체클러스터로 지정할 수 있게 돼 있지요, 법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습니다.

○백혜련 위원 그러면 첫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발표는 언제쯤으로 예상하세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저희들이 지정 절차를 거치고 나면 거의 연말 가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백혜련 위원 연말 정도에?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백혜련 위원 그런데 지금 법에 따르면 일반 산업단지 또 첨단산업법상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돼 있는 곳 또 반도체클러스터로 지정됐을 때 혜택이 다 다르다는 건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백혜련 위원 반도체클러스터로 됐을 때는 총사업비의 50% 이상, 100%의 범위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그 조성비용을 부담할 수 있게 돼 있고 첨단산업법에 대해서는 30~50%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이에요. 일반 산단, 산업집적법에 따른 것은 아예 없지요, 규정이?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백혜련 위원 그러면 이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반도체 기업이 입주해 있음에도 적용되는 법적 근거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국가 지원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 굉장한 문제가 있는 거지요. 저희가 산업환경이 굉장히 바뀌면서 계속적으로 법을, 어떻게 보면 특별법을 계속해서 발의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실제로는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반도체클러스터로 지정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특히 평택과 용인 같은 경우는 지금 조성을 하고 있고 이미 조성된 곳도 있는데 반도체클러스터로 지정이 될 때는 총사업비에 엄청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제외되는 그런 문제가 있지요. 그런데 지금 시행령에서 지방의 균형발전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수도권에 대해서는 굉장한 배제 조치랄까 그런 것들이 조금 고려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반도체 특별법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지난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반도체라는 우리나라의 전략자산을 어떻게 하면 육성하고 발전시킬까에 대한 그 관점에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참으로 소중한 법인데 거기에는 용인, 평택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관련된 클러스터는 어느 단지든지 오픈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안에 들어 있는 조문 중의 하나가 ‘비수도권에 대해 우선 고려한다’ 그 조문 하나가 있는 건데 그건 지금 논의되는 메가프로젝트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지금과 같은 반도체 외의 국가균형이라는 또 다른 국가의 중요한 목표를 고려한다는 취지이지 예를 들면 용인, 평택을 차별한다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혜련 위원 지방의 균형발전이라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진짜 산업의 직접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수도권에서 이미 조성되어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역량들을 살릴 수 있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용인과 평택의 반도체 산단들이 국가적인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반도체클러스터 지정에서 객관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혜련 위원 그리고 노용석 중기부1차관님, 저도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보니까 중기부에서 1400억 원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실제 집행률이 6.8%예요. 이것 사실 거의 진행되고 있지 않은 거거든요. 옛날 티메프 사태하고 비교하면 티메프는 그때 접수 개시 30분 만에 100건 접수했는데 지금 홈페이지는 접수 개시

1~3주 경과 시점의 집행률이 6.8%입니다.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행 노용석 저희가 위메프 같은 경우에는 금융위를 통해서 피해업체들 리스트를 다 확보를 할 수 있어서 직접적으로 저희가 연락도 드리고 했는데 홈플러스 입점업체나 협력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 정보 파악이 좀 어려워서 신청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님.

○백혜련 위원 정보 파악이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 홈플러스 상거래 공익채권단 협의회가 있잖아요. 여기에서는 자기네들이 자체로 지금 공익채권이, 미지급 납품대금이 2026년 5월 31일 기준 약 7939억 원이다 이렇게 자체 집계를 발표했더라고요.

○위원장 김성원 1분 더 드리십시오.

○백혜련 위원 그렇다면 이 단체에 연락을 해서 그런 자료를 공유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이 있는 것 아니에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행 노용석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자료 확보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백혜련 위원 너무 지금…… 아니, 하고 나서 집행률 6.8%가 됩니까? 이것 10%도 안 돼요. 1400억 집행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전혀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조치 검토하시고요. 집행률 높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행 노용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백혜련 위원 실제로 중소기업부가 전혀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실패 파악을 못 하고 있다면 그것도 더 문제인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행 노용석 그 부분 저희도 계속 관련 기관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제도상 좀 어려운 점 다시 한번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백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재봉 위원 오늘 업무보고해 준 산자부 자료 2페이지에 보면 디지털 관련 분야에서 미 하원 법사위에 한국의 미 기업 차별 중간보고서가 발표됐고 미 조야에서 국내 디지털 입법 규제에 따른 미 기업 차별 우려가 확산 중이다 이렇게 보고서에 쓰여 있어요.

이렇게 미국의 우려가 정말 확산 중인가요? 우리 정부가 쿠광을 미국 기업이라고 해서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차별적으로 조사를 한 게 맞나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전혀 아닙니다.

○송재봉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신 거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말씀하신 대로 쿠광이라는 회사가 저희들이 보기에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광범위하게 요소요소에, 미국의 정치권, 행정부에 대해서 로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저희들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에 오해가 있을 때마다 계속 풀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설명을 듣고 나면 쿠광 측의 의견을 듣고 좀 다른 생각을 하셨던 의원님들이나 그런 분들도 ‘아, 그런 현실이냐?’ 이렇게 오해를 풀기도 하고 멀어졌던 간극도 좀 좁히고 하는 그런 과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재봉 위원** 사실 장관님도 그렇게 여러 차례 만나서 논의하고 통상교섭본부장님도 노력을 하고 설득을 했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런 보고서가 나왔고 그 이후에도 계속 이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고 또 그렇다고 우리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예요. 당연히 대응 논리를 가지고 설득을 하고 계실 거라고는 보는데.

사실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한 건수만 해도 3370만 건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자신들이 밝힌 것은 3000여 개 계정이다, 이게 사실관계가 엄청나게 잘못돼 있다고 하면 이런 것이 로비만으로 설명이 잘 안 되는 건지 정말 답답하긴 해요.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것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쿠팡은 국내 최대의 산업재해를 발생시키고 있고 노동조건도 부단히 계속 악화시키고 있고 또 그것을 은폐하려고 했던 시도도 했었고 또 검색 순위 조작, 납품업체에 부담 전가, 불공정거래, 한두 건의 문제가 아닌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좀 더 단호하게 설명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정부가 설명한 자료를 봤더니, 이것은 제가 자존심이 상해서 그래요. ‘우리 정부는 디지털 시장에서도 공정한 경제를 장려하고 있고 보고서에 언급된 플랫폼기업의 독과점을 규율하는 법안들은 국회에 발의되었으나 현재 논의가 중단된 상황임’ 이렇게 설명서를 보냈더라고요.

이 논의가 중단된 건가요? 저는 중단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입법 주권에 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충분히 논의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차별하지 않는, 그런 불공정행위에 대해서 정당하게 규율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내용도 제가 보고 참 기가 막혔는데 쿠팡이 미국에서도 개인정보 보호 위반으로 지금 미국 시민권자로부터 소송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뉴욕 주재 미국 시민에게? 그런데 여기에서 쿠팡 측 변호인이 답변한 답변서 있잖아요. 여기 보면 정보 유출 사태는 한국법인에서 발생한 것이고 이는 미국 지주회사라고 선을 그었다, 그래서 쿠팡의 서비스는 대부분 한국어로 제공되며 배송 서비스도 한국 주소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쿠팡 이용약관에는 분쟁은 한국법에 따라 한국 법원에서 해결해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소송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한국법을 따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행위에 대해서도 저는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쿠팡의 잘못된 행태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추가적인 대응 계획이 있으신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지금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그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저희들도 반박하거나 오류를 정정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현재는 우리 한국에 있는 뿐만 아니라 주미대사관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송재봉 위원** 저는 우리 정부가 이 문제만큼은 보다 당당하게,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위원장 김성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재준 위원** 대구 북구갑의 우재준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호남 반도체 관련해서 조금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장관님 잠깐 안 계실 때 존경하는 서지영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셨던 것들이 있습니다. 오전 중에 장관님께서 호남 반도체 광주로 선정함에 있어서 다양한 부지를 검토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관련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공할 수 있나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저희들이 아마 답변이 된 것으로……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여러 가지 기업 경영이나 경쟁력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제공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임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재준 위원** 대부분의 국가산단이나 이런 것은 다 공모를 하잖아요. 다 공모를 하고, 그래서 다 오픈이 되잖아요. 이 건에 있어서는 그 다양한 후보지에 있어서 그것을 오픈할 수 없는 이유가, 다른 특수한 경우가 있나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건 저희들이 지금 있는 국가산단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기업이 일단 저희들한테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땅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 땅을 추천하는 과정이었습시다.

○**우재준 위원** 아니, 부지 선정에 대해서는 먼저 일단 제안을 했다고 했잖아요. 기업 쪽 자료 말고 부지 선정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에서 먼저 제안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정부에서 어떤 곳은 어떻게 어떻게 장단점이 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 부지가 있다고 했으니까 적어도 공개할 수 있는 범위의 최소한의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내용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재준 위원** 정말 기밀인 부분은 좀 줄이더라도, 가리더라도 나머지 적어도…… 아주 크게, 어느 지명 정도만, 아니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정도는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한번 다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이 내용들이 좀 더……

○**우재준 위원** 이재명 정부에서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도의 자료도 공개하지 못합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저희는 이 정도의 정보라고는 생각하지는 않고요, 굉장히 민감한 정보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재준 위원** 오전 중에 제가 구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요. 장관님이 계시지 않을 때 존경하는 구자근 간사님께서도 구미가 배제된 것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사실 제가 오전 중에는 장관님께서 ‘168만 평 부족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저도 사실 좀 당황해서 즉답을 못 해 드렸는데 점심시간에 구미 쪽이랑 이야기를 해 보니까 난리를 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그것보다 훨씬 부지가 많다, 사실상은 최대 400만 평까지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보더라고요. 혹시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게 168만 평, 그 숫자를 듣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400만 평 이야기는 제가 오늘…… 그때 실장님이시던가, 누구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우재준 위원 소통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구미와?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제가 직접 소통은 한 적 없습니다.

○우재준 위원 그러면 구미는 검토를 안 한 거네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하여간 그때 다양한 지역들에 대해서 검토는 했었는데……

○우재준 위원 구미는 산업부랑 같이 소통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하는 것 같던데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여하간 다양한 지역들과 소통을 했습니다, 다양한 후보지를 놓고.

○우재준 위원 어떤 다양한 후보지…… 그 후보지조차도 공개가 안 되는 겁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재준 위원 저는 장관님 말씀하신 것에 너무나 동의합니다. 반도체산업 우리나라에 너무나도 중요한 산업이고 무엇보다 빨리 돼야 한다는 점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국가의 조력도 적절하게 필요하고 필요하면 적절하게 지역균형발전 이런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것은 일정 부분 투명성과 공정한 경쟁입니다.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게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궁금증을 계속 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이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적절한 부분에 대해 공개를 좀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위원님, 이게 지금 저희가 어떤 산단을 놓고 지역을 경쟁을 시킨 과정이 아니라 기업이 필요한 부지를 요청을 해서 저희가 한 내용입니다.

○우재준 위원 아니, 그 검토하는 과정에서 여러 부지를 검토했으면 최소한의 자료는 있을 것 아니에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그리고 최종 결정은 기업이 했습니다.

○우재준 위원 먼저 제안을 했다면서요? 그 제안한 부지들에 대한 검토 자료를 제가 달라는 거예요. 제안을 했다면서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조차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느 특정 지역 이슈가 나오면, 예를 들면 어느 특정 지역은 후보에 들어갔느냐 못 들었느냐부터 다양한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재준 위원 오히려 배제된 지역도 그렇게 설명해 줘야지 수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이슈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IRA 관련해서 발표가 있었지요. 국내 생산 세액공제에 관련된 발표가 있었습니다. 장관님,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우리 법 말씀하십니까?

○우재준 위원 예.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우재준 위원 관련해서 전기차가 이번에 빠졌더라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약간 업계에서나 산업계에서는……

1분만 더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김성원 1분 더 드리십시오.

○우재준 위원 좀 우려를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여쭙보겠습니다.

혹시 최근에 우리나라의 중국 전기차 점유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제 기억에 한 30, 40 정도 머릿속에 있습니다.

○우재준 위원 굉장히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중국 브랜드를 많이 보지 못해서 중국산 전기차가 우리나라를 이렇게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을 수 있는데, 사실 테슬라의 상당수가 중국에서 생산돼서 현재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고……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재준 위원 아주 빠르게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국내 생산 생태계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IRA 같은 이런 부분은 전기차 부분에 적용이 됐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계속 논의를 하겠습니다.

○우재준 위원 많이 설득을 해 주시고요.

특히나 이 부분, 세금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국회에서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회에서도 또 많은 설득을 해서 국내 전기차 생산 생태계가 보호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저도 그럴 거고, 위원님께서 필요할 때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문영 위원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임문영입니다.

질의 순서를 바꿔 주신 오세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장관님, 현재 AI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선도국가 G2를 이야기하라고 그러면 어디어디를 말해야 됩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미국, 중국이지요.

○임문영 위원 중국이 지금 AI G2 국가로 성장하게 된 것은 엄청난 속도라고 생각하는데 정보화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먼저 앞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보화에서 앞섰는데 중국이 이렇게 빨리 우리나라를 제치고 AI에 있어서 G2 국가로 성장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다른 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정부와 기업과 그리고 우리로 치면 국회가 어떻게 보면 한 조직 같은, 아주 혼연일체가 돼서 움직이는 부분들이 참 부럽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힘이 됐던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임문영 위원 중국은 권위주의 국가로서 우리하고는 좀 체제가 다릅니다마는 정부와 기업이 혼연일체가 돼서 이렇게 산업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우리도 배워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2016년에 중국보다 먼저 알파고하고 바둑을 두면서 AI 쇼크를 먼저 받았습니

다. 그리고 1년 뒤에 중국의 커제 9단하고 알파고하고 다시 바둑을 두게 될 정도로 우리가 먼저 앞서 있었는데요. 현재는 지난해 1월에 우리가 딥시크(DeepSeek) 충격을 받았고 올해 이미 키미 K3가 막강한 AI 능력을 보여 주면서 미국과 중국의 격차가 두 달 이내로 줄어들 정도로 엄청난, 빠른 속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최근 CXMT 같은 경우는 DUV를 양산한다든지 EUV에 대한 특허 출원을 내는 등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굉장히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새로운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위협이 계속 생기고 있고 우리나라가 현재는 메모리 반도체에서 가장 앞서고 있지만 이 우위를 계속 지켜 갈 수 있을지 정말 걱정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습니다.

○임문영 위원 따라서 우리의 AI 능력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의 양산, 커패시터를 늘리는 일도 중요하고 또 선도적인 기술을 국가가 기업과 함께 협력을 해서 계속 늘려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에 우리는 TDX-1이라고 하는 전전자교환기를 만들어 내면서 정보화의 물꼬를 텃고 이를 통해서 정보화 선진국으로 올라섰습니다. 경제학자 마리아나 마추카토는 임무지향적 기업가형 국가를 얘기하면서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를 새로운 기술 협력을 통해서 극복해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는 정부와 기업의 역할, 특히 산업부에서 새로운 선도적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중에서 저는 특히 CPO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가 지금 현재 GPU나 MPU 등에 특화되어 왔던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수요가 결정되고 있다가 HBM이라고 하는, 병목을 해결하는 문제로 주도권을 잡았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인터커넥트 또 네트워크 병목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 CPO, 공동 패키지 광학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용어가 좀 어려운데 이런 광학기술을 최대한 활용한 새로운 광반도체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맞습니다. 지금 반도체 기술이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엔비디아나 TSMC도 다 CPO 기술 확보 경쟁에 돌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반도체 법에 따른 반도체특별회계가 만들어지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CPO도 R&D부터 실증까지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임문영 위원 이미 양산과 실증 단계까지 들어서고 있는데 우리는 이를 표준화하거나 실증할 수 있는 기관들이 부족해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산업부에서 충분히 지원을 해 줄 생각 있습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런 부분에서 산자위에서 만들어 주신 반도체법이 그리고 그 법에 따른 반도체 특별회계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분야에 좀 더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한홍 위원** 장관님, 오늘 반도체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그런데 간단간단하게 확인만 한 번 더 하겠습니까.

지금 용수 공급에 문제가 없다고 그랬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윤한홍 위원** 지금 남부지방의 극심한 가뭄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윤한홍 위원** 이게 올해만 우연히 있는 게 아니고 거의 해마다 반복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한강에는 과거에 댐을 많이 만들어 놔어요. 그런데 낙동강이나 섬진강, 영산강에는 하류에 내려가면 댐이 없어요. 그동안 환경단체들의 지속적인 반대 그다음에 4대강 보를 만들 때도 못 하게 반대를 해 가지고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가뭄이 들면 물 공급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겁니다. 댐을 안 만들어도 괜찮겠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지금 현재 저희가……

○**윤한홍 위원** 아니, 댐을 안 만들어도 괜찮겠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윤한홍 위원** 그다음에 전력도 현재 상태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윤한홍 위원** 그러면 주로 호남의 전력이, 전기 공급이 재생에너지입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재생에너지도 있고 한빛원전 있고……

○**윤한홍 위원** 문제가 없다는 얘기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윤한홍 위원**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저는 뭐…… 장관님이 여기서 거짓말할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믿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전에 다양한 부지를 정부에서 제안을 했고 기업에서 군공항 부지를 초이스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윤한홍 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그 다양한 부지에 새만금도 들어갑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제가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께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윤한홍 위원** 그렇습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윤한홍 위원** 하여튼 말씀 못 할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새만금 부지 같은 것도 나는 당연히 검토됐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모든 정부의 숙원사업이 새만금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하는 거였거든요. 군공항 부지를 초이스했는데 새만금이 검토가 안 됐다, 안 됐다는 아니겠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다양한 부지들을 검토했습니다.

○**윤한홍 위원** 그러니까 그 속에 들어 있겠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똑같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과거의 탈원전 때문에 거의 4년 내내 논쟁을 하다

가 정권이 바뀌고 나서 산업부 공무원들이, 탈원전 앞장서서 하던 공무원들이 많은 피해를 봤어요. 그래서 이것도 기업에서 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출발하지 않고 정부가 톱다운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아마 산업부에서도 먼저 시작하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청와대 대통령실에서 내려간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산업부에서 합리화하고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하다 보면 스텝이 꼬이는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공무원이 또 책임을 지거나 다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석유 최고가격제도 지금 전쟁을 명분으로 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3월 5일 날 지시를 했어요. 해 가지고 산업부가 3월 13일 날 시행하기로 했다. 이것도 톱다운으로 위에서 내려간 겁니다. 산업부에서 하자고 한 게 아니에요. 과거에도 많은 이런 유사 전쟁이 있었지만은 석유최고가격제를 해 본 적이 없어요.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석유 최고가격제를 하게 되면 세금이 들어간다는 것을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을까요, 장관님?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지금은 최고가격제……

○**윤한홍 위원** 세금으로 그 가격을 보전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유업계에서는 보전되어야 될 돈을 7조, 8조로 생각을 하고 산업부에서는 5000억, 6000억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고가격제라는 것은 우리가 교과서에서 봤잖아요. 거의 공산국가에서 하는 거잖아요, 공산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에서 하더라도 아주 짧게 해야 되는 건데 이게 3월 13일 날 해 가지고 지금 벌써 8월 12일이면 만 5개월이 됐어요. 언제 끝내지요? 1년 내내 합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일단 전쟁 상황이 되고 있어서 거기에 지금…… 저도 정말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윤한홍 위원** 그러니까 전쟁이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다 이 말씀이시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습니다.

○**윤한홍 위원** 그러면 전쟁이 안 끝나면 1년 내내 세금으로 석유판 보전해 줄 겁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전쟁이 지속되는 한,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최고가격제가 있는 게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윤한홍 위원** 그러니까 최고가격제라는 게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국가에서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원의 정상적인 이용을 방해하는 거예요. 비싼 자원은 덜 쓰고 싼 자원을 써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최고가격제를 하니깐, 세금으로 보태 주니까 비싼 자원이 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약을 해야 되는데 절약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 교과서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트럼프하고 이란 정부에 맡겨 놓고 거기에 따라서 끝까지 최고가격제를 1년 내내 한다, 그러면 그것은 시장경제가 아니잖아요, 장관님. 그것은 산업부에서 대통령께 건의를 하세요. 왜 시키는 대로만 합니까? 아닌 건 아니라고 건의를 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장관님, 일 잘하시잖아요. 유명하시잖아요, 일 잘하는 걸로. 건의하세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존경하는 위원님, 최고가격제는 사실 지금 현재 취약계층, 서민생활에 어떤 최소한의 방파제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위원님처럼 기업에도 있었기 때문에 기업 사정도 잘 이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원유를 가져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기업들과 같이 협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전쟁 상황에서 민생 그리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데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휘발유나 이런 부분들이 최고가격제를 도입하더라도 지금 현재 가격이 전쟁 전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도 지금 감소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윤한홍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걸 국민들한테 알리세요. 이게 세금으로 보전해 준다는 것을 알리시라고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한홍 위원** 세금으로 보전되고 있다는 것을 널리 알려야지. 일종의 포퓰리즘 정책을 보이기 때문에 장관님이…… 당부를 드리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톱다운으로 지시를 많이 하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지시를 해 버리면 대통령의 정책에 문제가 있어도 공무원들이 이의제기를 못 해요. 그러면 나중에 정책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공무원이 나중에 다친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장관님 일 잘하시잖아요. 그렇게 하세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희 위원** 지식재산처 김용선 처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높아지는 지식재산권 보호에 맞추어 특허·상표 부분의 심사기간 단축 그리고 초고속 심사 도입에, 그런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지식재산처장 김용선** 고맙습니다.

○**오세희 위원** 그런데 디자인권에서는 권리 보호의 사각지대가 있다고 다들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지난주인가요. 국가유산 활용상품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했어요. 거기에서 나온 게, 요즘 국립중앙박물관 인기가 좋지 않습니까? 못즈라는 국가유산 활용상품인데 관심이 높은데 이 부분에 디자인 도용, 중국의 위조상품 그런 문제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기업들이 현실에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면 단청 키보드잖아요. 너무도 유사하고 복사품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식재산처가 디자인 심사, 심판기간을 좀 단축해 보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지식재산처장 김용선** 저희도 요즘…… 특히나 디자인 같은 경우는 라이프 스타일이 점점 짧아지고 있기 있기 때문에, 현재 디자인 심사 처리기간이 6개월이 넘는데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세희 위원** 사실 우리나라 고유 상품들이 너무 모방이 많이 돼서 그런 아이디어들이, 그런 것들이 변질되는 게 굉장히 안타까웠고요. 이런 법적 심사, 심판기간이 지나는

동안 디자인의 가치성은 굉장히 떨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제안드리는 것은 디자인 유사 여부를 지식재산처에서 빨리, 유통 차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제도를 신설할 수 있을까요?

○**지식재산처장 김용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안은 굉장히 획기적인 아이디어라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오세희 위원** 그래서 디자인 권리자들이 많은 것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의 권리, 이런 것들이 침해되지 않고 내 상품이 보호를 받는 것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디자인이 모호하잖아요.

○**지식재산처장 김용선** 예, 그렇습니다.

○**오세희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제도도 하고 업계에 대해서, 디자인에 대해서는 차별화를 뒤서 내 것을 모방했다 그런 차이점을 줌, 그런 것도 지도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식재산처장 김용선**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면 플랫폼사에서도 빨리 차단할 수 있고 디자인 권리도 더 확실히 보호될 수 있는 좋은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세희 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타임 스케줄을 정해서 저희 의원실하고 얘기를 교환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식재산처장 김용선** 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입법 과정에서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희 위원** 예, 그것 하겠습니다. 법률을 발의하겠습니다.

○**지식재산처장 김용선** 예, 알겠습니다.

○**오세희 위원** 다음, 중기부2차관 이병권 차관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기부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하는 온라인 전통시장관을 갖고 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 이병권** 예, 그렇습니다.

○**오세희 위원** 거기에 대기업이 작년부터 진출한 것 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 이병권** 예, 대형 플랫폼이 들어왔습니다.

○**오세희 위원** 지금 PT가 있는데 대기업 다섯 곳의 매출액이 384억 원이에요. 중소기업은 24곳인데 207억 원. 롯데ON, 11번가, 현대홈쇼핑, 그렇지요? 현대이지웰, 신한은행 이런…… 10%가 늘어서 63%입니다.

예를 들어 매출도 나와 있는데 롯데는 온라인, 오프라인 쇼핑의 강자인데 시장에 진출했는데 계속 소비자가 몰려서 벌써 온누리상품권 쇼핑 분야 1위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중기부 답변은 뭐냐 하면 소비자가 다수 이용하는 온라인 플랫폼이 많을수록 매출이 올라가는 만큼 요건을 갖춘 온라인 플랫폼의 참여는 확대가 바람직하다. 이것 맞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이것하고 내용이 다른니까?

○**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 이병권** 그 취지는 온누리관에 대형 플랫폼들이 들어오더라도, 대형 플랫폼들이 매출이 잡히긴 하지만 결국은 거기 플랫폼에 가맹한 소상공인들에게……

○**오세희 위원** 그러니까 중기부 답변대로면 우리나라 온라인 쇼핑, 소비자 유입이 많은 쇼핑몰 1위·2위 쿠팡과 네이버쇼핑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입점을 해도 좋

지 않을까 이런 의도인데 온누리상품권의 취지가 있지요. 왜 나왔어요? 전통시장, 상점가 매출을 늘리고 보호하기 위한 건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변하고 있는 중기부에서……

1분만 주시지요.

○위원장 김성원 예, 1분 더 드리겠습니다.

○오세희 위원 대기업 쇼핑몰이 온라인 전통시장관을 독점하도록 내버려둔다면 지금 백화점에서 온누리상품권 쓰는 것과 똑같지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백화점에서 온누리상품권 쓰는 것과 똑같잖아요. 이런 것을 왜 중기부가 그걸 앞장을 서십니까?

온라인 전통시장관에 소상공인시장공단에서 매년 계약을 갱신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 이병권 예.

○오세희 위원 이것은 정말 심각하게 한번 고민하셔서 중기부가 대기업 쇼핑몰을 계속 갱신할 것인지, 온누리상품권을 편법으로 쓰게 해야 되는지. 그러면 백화점도 풀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목적과 취지에 맞게 고민해서 저희 의원실하고 얘기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세요?

○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 이병권 제가 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세희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 이병권 아까 위원님께서 PPT에 보여 주셨지만 25년 기준으로 대기업 플랫폼과 중소 플랫폼의 매출 합계가 약 45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형 유통 플랫폼들이 좀 성장을 많이 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오세희 위원 10%가 올랐지요?

○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 이병권 올해 7월까지 합계가 600억이거든요. 그래서 약 33%의 매출이 증가를 했는데 올 연말까지 추산을 해 보면 아마 50~60% 정도 매출 규모가 늘 거라고 보고요. 중소 플랫폼들만 보더라도 올해 7월 달에 이미 작년 매출액을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생각해 보면 중소 플랫폼들도 한 30% 이상 매출 규모가 커질 것이라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롯데……

○오세희 위원 아니, 매출이 아니라 제 말은 이걸 온누리상품권을 그렇게 현대홈쇼핑, 롯데 이렇게 다 입점을 하게 해서 여기에서 사용하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 이병권 저희가 이제 최초로 의도한 것은 더 많은 소비자를 접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 주었던 것이고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무슨 네이버, 쿠팡까지 다 넣어 가지고 대기업 플랫폼에 다 몰아주자 이런 취지는 아니기 때문에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계약을 할 때 적절하게 너무 대형 유통 플랫폼에 쏠림 현상이 있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오세희 위원 아니면 그렇게 그걸 유입을 원한다면 매출 규제를 한다든지 일정의 매출 규제로 해서 그걸 차단을 시키든지 어떤 규제가 나와야지, 똑같이 선수가 뛰면 당연

히 강자가 이기지요. 온누리상품권을 여기서 편법으로 쓰는 거예요, 지금. 꼭 좀 의견 교환 좀 하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 이병권 예,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원 수고하셨습니다.

2차관님은 오늘 첫 답변이기 때문에 답변 길게 하셔도 제가 좀 가만히 있었는데요. 나머지 장차관님들은 좀 간결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지연 위원 경북 경산의 조지연입니다. 장관님 잘 다녀오셨습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조지연 위원 메가프로젝트 속도전 얘기 많이 하셨습니다. 이 속도전에 반대하실 위원님은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지역의 어떤 산업 여건들이 충분히 고려됐는지, 검토됐는지 그리고 절차적 정당성이 충분히 확보됐는지 이러한 문제제기들을 하는 것이고 저는 충분히 이 문제제기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잘 새겨들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메가프로젝트 왜 합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산업의 경쟁력 약화 상황, 저성장 침체를 업그레이드하자 그래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자는 취지와 두 번째는 이왕이면 지금 현재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지방을 살리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지연 위원 그래서 저는 산업경쟁력 강화 그리고 지역균형발전 이 2개 축이라고 보는데 지역균형발전에 영남이 따로 있고 호남이 따로 있고 대구가 따로 있고 광주가 따로 있고 전남이 따로 있고 경북이 따로 없습니다. 그렇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조지연 위원 대구도 대한민국이고 경북도 대한민국입니다. 그 연장선에서 아까 전에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 자료만 봐도 AI 전쟁에서 승리해서 성장률 반등해서 전 지역에, 전 국민에게 성과를 확산한다라는 게 궁극적인 이 메가프로젝트의 목표입니다. 그렇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지요, 궁극적으로.

○조지연 위원 그 연장선에서 장관님께서 아까 전에 로봇 차르를 자처하셨어요. 그렇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조지연 위원 제가 로봇산업에 대해서 좀 여쭙볼게요. 로봇산업 육성을 어떻게, 무엇을 목표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냐 물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없으니까 제가 메가프로젝트로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메가프로젝트에 피지컬 AI 그리고 AI 로봇 3대 강국을 목표로 하겠다라고 하면서 생산기지로써 새만금 그리고 대경권을 양대 축으로 생산기지를 확충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새만금에 파운드리 구축하고 새만금에 부품 클러스터 조성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대경권에 로봇 실증을 위한 테스트필드 구축하고 대경권의 자동차 업계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동차 업계가 로봇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그런 지원들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양대 축이라고, 장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실제 다 뜯어보니까 양대 축이라기보다 새만금 1축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지금 대구·경북 쪽에 있는 많은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아직 저희들이 완성된 품목은 아닙니다마는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로봇 부품 회사로 전환하는데 저희들이 굉장히 긴밀하게 그 업체들하고 지금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실증 테스트베드라고 하지만 로봇산업진흥연구원이 지금 대구에 있어서 긴밀하게 그쪽 부품, 특히 주요 부품 부문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지연 위원** 메가프로젝트가 이게 바이블이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변경 여지가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조지연 위원** 그런데 아까 전에 여당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로봇산업이 우리끼리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각국과 경쟁을 하는 것인데 세계 각국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클러스터의 조성 그래서 역동적인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야 된다는 그 취지에 저는 되게 굉장히 공감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경권이, 특히 경북 같은 경우에 아까 전에 자동차 부품업체 얘기했지만 경북만 해도 1900 업체가 넘고 대구에는 로봇업체가 한 250여 개 있지 않습니까? 그 업체만 해도 충분히 인프라가 잘 갖춰진 대경권인데 부품 클러스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새만금에만 조성할 것이 아니라 대경권에도 조성하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그것을 저는 적극적으로 대통령께 건의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지금 현재 로봇 분야는 어떤 클러스터 단지가 조성되었다 그 상황은 아닙니다. 앞으로 지금 진행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논의를 할 텐데 산업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단지들을 할 때…… 그리고 대구가 로봇산업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고 대구의 로봇기업들 여러 번 갔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잘될 수 있도록, 두 축이라고 정말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조지연 위원** 1분만 좀 추가……

○**위원장 김성원** 예, 1분 드리겠습니다.

○**조지연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오늘 이 업무보고를 보니까요 그것도 연장선에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 성장엔진을 선정하겠다 이걸 8월 중에 선정하겠다. 그리고 권역별 성장엔진 투자는 메가특구와 7대 패키지로 전폭 지원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메가특구는 뭐고 도대체 권역별 3~4개의 산업 선정은 뭐며 이게 어떻게 메가프로젝트와 정책적인 어떤 적확성이 있습니까? 그리고 메가특구가 언제 지정될 건지에 대한 어떤 스케줄이 있습니까, 정부의?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지금 메가특구는 메가특구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정을 하는데 최대한 빨리 법안을 내서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지연 위원** 아까 전에 연내에 입법화를 목표로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당정협의를 7월 달에 하셨잖아요, 그 법안을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메가특구특별법으로?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안 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지연 위원 아니, 그러면 기사가 난 것은 다 오보입니까? 7월에 당정협의를 한 걸로 언론보도가 많이 나 있던데 그런 취지라면 이게 민주당 메가프로젝트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메가프로젝트라면 야당 위원들에게도 공유 안 해 줄 이유가 없다 그리고 빠른 통과를 위해서라도 야당 위원들에게도 설명을 해 줘야 된다는 지점이고 또 한 가지는 메가특구에 이어서 메가특구가 형성되는 배후 산업을 이렇게 수용하기 위한 협력사 집적형 연계 특구 이 부분도 부처 내에서 검토되고 있는지 여부도 같이 의원실에 보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제가 아는 한 메가특구법 내용에 대해서 당정협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메가특구법이라는 것을 앞으로 정부가 입법을 하겠다는 내용 정도로 아마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당정협의를 한 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연히 이 법은 우리 산자위든 법 자체가 대한민국을 위한 법이기 때문에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하고도 긴밀히 협의해서 모두가 다 같이 찬성해서 가게 만들겠다는 게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배후단지나 이런 내용들도 특구가 잘 되기 위해서는 관련되는 지역뿐만 아니라, 규제뿐만 아니라, 정부 지원뿐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간 학교 이런 부분 다 같이 맞물려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안이 나오게 되면 정부가 일단 저희들이 보완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하고 긴밀히 상의하겠습니다.

○조지연 위원 다시 한번 보고를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메가특구법은 아니고 산자위 현안 관련해 가서 메가특구를 포함한 현안, 아마 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은수 위원 메가프로젝트는 호남 프로젝트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바라보고 호남에서 시작되는 프로젝트라고 한 번 더 짚으며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산업부 김정관 장관님, 과중한 업무에 오늘 굉장히 피곤해 보이십니다. 건강관리 잘하시면서 업무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장관님께서도 권역별 성장엔진과 메가특구를 통해서 지방을 새로운 성장의 축으로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 역시 그 방향에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지방이 새로운 성장의 축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업과 산업을 유치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투자의 성과가 지역의 정주여건과 주민의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는 구조까지 함께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나 향후 사업계획이 있으신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에 역대 정부 어느 정부든 지역 성장을 위해서 해 왔는데 저희들도 정말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 가지고 지금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지금 메가특구법에 일단 다 담습니다. 일단 필요한 학교, 의료, 문화 이런 내용까지 다 담아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은수 위원** 저도 같은 취지에서 1호 법안으로 산업도시 지역상생법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기업이 의료·교육·돌봄·교통·주거 등 지역의 생활 인프라 개선에 자발적으로 기여하면 이를 지역상생지수로 평가하고 우수기업에는 세제·정책·금융·인허가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자는 내용인데 함께 적극 같이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은수 위원** 노용석 중기부1차관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행 노용석** 예, 위원님.

○**전은수 위원** 오늘 아마 모니터링을 하셨을 건데요. 한성숙 총리님께서 중소·벤처·스타트업 토론회에서 메가프로젝트 성공에 중기도 중요하다 그래서 규제합리화위원회 산하에 창업벤처 규제혁신위원회가 곧 신설될 예정이라고 하면서 창업과 제도전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리스트업하고 어떤 것부터 해결할지 우선순위도 정하는 그런 창업벤처 규제 전담기구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특히나 그중에서 제도전이라는 이야기를 한 번 더 언급하셨습니다. 아마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스타트업 간담회를 해 보니 제도전을 지원하기 전에—아마 아까 업무보고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폐업을 잘하게 하는 데 지원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실까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행 노용석** 저희가 사업 정리 같은 것을 사전에 잘 하실 수 있도록 사업 정리 컨설팅 같은 걸 해서 전문가를 통해서 실패 비용을 최소화하실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은수 위원** 좀 실질적으로 간담회나 이런 소통을 많이 해서 스타트업들이 정말 원하는 폐업 지원이 무엇인지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오늘 또 N차 창업가 인터뷰를 봤는데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의 다섯 가지 정도를 이야기하면서 그중에서 창업의 숫자보다 성장을 지원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저희도 이제 아까 업무보고 12쪽에 보면 지역 유망기업 등 스케일업 촉진 이러면서 몇 개, 몇 개 이렇게 개수로 평가하는 부분이 있던데 사실 몇 개 법인이 새로 생겼는지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장에서 가능성을 입증한 기업이 지속적으로 그렇게 성장을 지원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그래서 질적 평가도 우선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행 노용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전은수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식재산처 김용선 처장님, 출원 관련해서 심사 대기 기간 지연이 대한민국이 많이 지연이 되고 있던데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한 결과 감소세로는 이어진다고 하는데 특허의 경우에 일본은 9.1개월, EU는 5.5개월 그런데 대한민국은 14.7개월이더라고요, 아직도. 그리고 상표의 경우에도 일본은 6.9개월, EU는 0.5개월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11.9개월. 상당히 차이가 많은데 자구노력을 하면서…… 제가 듣기로는 심사관 피로도도 높고 심사 품질 저하 우려도 오히려 굉장히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 혹시 목표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지식재산처장 김용선**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 특허심사관들 업무 강도가 이례하면 심사처리 절대 숫자가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 3배 정도 됩니다. 물량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심사 처리 기간이라 할지 품질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 전체적으로 현재 인력 확충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법제도도 개선하고요. 무엇보다도 AI 기술을 활용해서 검색이라 할지 또 번역이라 할지 자료 탐색하는 데 있어서 효율화를 도모하는 쪽으로 계속 열심히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전은수 위원** 이게 중기도 다 연관돼 있는 부분이라서 같이 함께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식재산처장 김용선** 예,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이 가장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전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수진 위원** 저 자료 요청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원** 예.

○**최수진 위원** 제가 지난 8월 5일 상임위, 일주일 전에 얘기를 했는데 한 장도 안 오다가 지적을 하니까 4시 40분경에 자료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부 자료가 하나도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제가 그러면 뭇 하러 자료 요청합니까, 이미 다 오픈된 자료 가지고.

그래서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 관계 부처 회의록 주십시오. 그다음에 사업 관련 관계 부처 내부 검토보고서 주십시오. 그다음 세 번째, 지금 현재 정부에서 발표된 지원액은 30조 원입니다. 아까 장관님 모르신다고 했지만 30조 원으로 발표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 구체적인 자원 조달 방법 그리고 어디에 쓸 건지 방안 내십시오. 그다음 마지막, 아까 서남권 입지 선정 시 검토된 대안 후보지 목록, 기업이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저한테 그 자료 그렇게 써서 왔습니다. 그것에 대한 비교평가 자료 해서 네 가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수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떡볶이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처음 2025년 12월에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 해서 호남·충청·영남권에 대해서 당초 구상을 발표하셨습니다. 그러다가 6개월 후에 갑자기 호남으로 바뀌었습니다. 충청권 81조 원, 호남도 그 정도 투자했는데 갑자기 800조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영남권은 반도체 팹 투자 아예 빠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바뀌었는지 설명 가능하실까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반도체 팹 투자는 정부가 하는 건 아닙니다. 일단 기업이 한

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호남권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부지, 그리고 여기에는 일단 용인이나 수도권이 빠져 있습니다만 충청권의 패키징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영남권도 마찬가지로 전력반도체, 부산 그대로 있습니다. 소부장, 그대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수진 위원 그러면 호남 퍼주기 정책으로 바뀐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최수진 위원 아까 윤한홍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탈원전 시즌 2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호남에 몰아주기 했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호남이 됐든 어디가 됐든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없는 상태로 2023년에 무조건 하겠다 이래서 국민들과 지금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한 명백한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앞서서 계속 뭐가 문제고 이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할 거냐, 그것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계획도 없습니다. 항상 먼저 지르고 어떻게든 그 계획을 맞춰 가겠다, 상당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국민들에게 30조 원이 투자된다고 1차 발표했습니다. 저는 30조 원 이상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예타 면제하겠다고 하고 벌써 법안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 예타 하실 거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제가 30조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800조 원을 정부가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퍼주는 게 정부가 퍼주기를 하는 건데, 예를 들면 그런 개념이지 기업이 투자를 하는……

○최수진 위원 제가 기업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30조 원에 대한 얘기만 하시면 됩니다, 장관님께서. 그리고 정책펀드 150조 원 조성도 하겠다 하고 청사진을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숫자가 나왔으면 최소한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근거도 있을 거고. 정부가 그렇게 만만하게 일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쭙는 겁니다.

그리고 28개월 얘기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구마모토가 28개월 만에 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물론 좋은 얘기지요. 그런데 상황이 다릅니다. 구마모토 같은 경우는 TSMC에서 결정한 겁니다. 일본 정부가 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구마모토를 선정했을까요? 이미 거기는 반도체 네트워크가 구축돼 있었습니다. 실리콘밸리와 같은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물 부족이나 송전선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미 있는 산업단지에서 확장 모델로 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속도전 너무 중요합니다. 아마도 반도체 사이클이 곧 꺾일 겁니다. 그래서 2030년에 대한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실행 가능한 지역, 실행 가능한 전략을 갖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순히 겉으로 28개월만 보고 ‘우리도 할 수 있다’, 너무 용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여쭙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저는 답변을 원합니다. 산업단지 가동 실행계획이 아니라 저는 지금 정치적인 구호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장관님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가능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최수진 위원** 그러면 만들 수 있는 근거와 만들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저희하고 의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수진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장비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장비에 대한 얘기는 아무도 하지 않더라고요.

이것 되게 걱정입니다. 지금 모든 장비…… 잘 아시지요? 지금 이것을 플래시 메모리로 할지 디램으로 할지 아직 결정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디램 메모리 자체가 부족한 현상입니다. 잘 아시겠지요? 지금 ASML 한 군데밖에 생산 못 합니다. 현재 생산량 70대도 채 안 됩니다. 어디서 하는지 아시지요? 삼성, SK, TSMC, 마이크로뿐만 아니라 지금 테슬라까지 덤비고 있습니다. 이번에 삼성에서 7대밖에 못 들어갑니다, 2027년. 지금 이 노광장비 없으면 아예 못 합니다. 2030년 지었다고 칩시다. 30년까지 이 장비 못 들어갑니다. 계획도 없습니다. 선주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 체크하셔야 됩니다, 정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보고서에 삼성이나 이런 데서 실행 가능하다고 자신감 있게 얘기를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저희는 너무나 염려스럽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용수나 전기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인력 당연히하고 인프라, 정부, 이것 다 누가 합니까? 밤을 새워서 해도 안 될 계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답, 답변 당연히 못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부탁인데 진짜 탈원전 시즌 2가 아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장비는 기업들하고 이미 확인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인프라나 그리고 인력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가 이 속도전에서 이겨 낼 수 있도록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지방 성장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도 많이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성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욱 위원** 광주 동남갑 정진욱 국회의원입니다.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가 정말 잘될 것 같습니다. 우리 광주 국회의원들이 그동안 준비하고 걱정을 많이 해 왔는데 민주당뿐만 아니고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도 나서셔서 꼼꼼하게 챙겨 주고 계셔서 잘될 걸로 봅니다.

그런데 접근해서 이 문제를 보면서 지역에 내려가서 이야기할 때 음모론으로 이야기하면 참 잘 먹힙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방식으로 지금 문제 제기를 하시면서 접근하고 있는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예를 들면 52시간 이것도 메가프로젝트, 특히 호남 메가프로젝트를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님께서 52시간을 어떻게든 한번 해결해 보기 위해서 52시간 토론회 할 때, 대표를 하던 당시에 직접 사회를 봤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선견지명이 있어서 호남 메가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먼저 52시간을 없애야겠다 이렇게 했을까요? 전혀 아니겠지요.

그리고 호남 퍼주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혹시 이런 말 들어 본 적 있습니까? 영남 퍼주기, 충청 퍼주기, 강원 퍼주기. 없지요? 호남에 대해서 뭔가가 되려고 하면 이렇게 경기를 일으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호남도 대한민국이라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인에서 전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LNG를 가지고 해결을 합니다. 가장 비싼 겁니다. 그럴 때 누가 나서서 ‘왜 수도권에서 하나’, ‘왜 용인에 가장 비싼 LNG로 반도체를 하나’ 이런 것 물어본 적 있습니까? 그런데 원전도 있고 재생에너지도 있고 그래서 RE100 기준도 충족하기 좋은 호남에서 광주에서 반도체를 생산한다고 하니까 경기를 일으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반도체 공장과 관련해서 여러 분들께서…… 이 자리에 계시는 김종민 위원님 그리고 허성무 위원님, 저 셋이서 반도체 트라이앵글, 꼭짓점을 수도권 그리고 구미·창원 그리고 호남 이렇게 세 꼭짓점으로 해서 반도체가 지방으로 내려와야 된다는 전략을 세운 바가 있습니다. 용수와 전기가 가장 잘 준비되어 있는 곳에 먼저 왔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데 반도체 공장은 한 곳에 지었다고 해서 그걸 마르고 닳도록 쓰지 않습니다. 특히 첨단 공정은 5년이 지나면 사실상 내부를 개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면 다른 곳에 지어야 됩니다. 그동안에 기흥, 화성, 평택에 지었고 이번에 광주로 왔는데 마르고 닳도록 광주에만 있을까요? 구미에 갈 수도 있고 울산에 갈 수도 있고 대구에 갈 수도 있고, 언젠가 다 가게 돼 있습니다. 10년 뒤에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준비돼 있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전기와 물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영원히 한 곳에만 계속 갈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반도체 공장, 특히 팹에 대해서 잘 모르셔서 그러신 것 같은데 팹이 그렇게 한 곳에, 계속 그곳에만 지어야 되는 그런 것 아닙니다.

그리고 물의 질에 대해서도 한 분이 말씀을 해 주셨어요. 초순수를 말씀하셨는데 초순수는 그야말로 울트라 퓨어 워터라고 이걸 어떤 물이든 가져다가 다 초순수로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하수 재처리한 물도 갖다 초순수로 만들고요. 댐 물도 갖다 만들고 공업용수도 갖다 만듭니다. 그런데 호남은 공업이 아예 없어서 웬만한 댐들이 전부 농업용수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목적댐으로 바뀌어서 공업용수로도 쓸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물 그냥 먹어도 될 정도로 깨끗한 물입니다.

그래서 무슨 호남에 있는 물이 굉장히 문제가 있어서 초순수 만드는 데 장애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아주 나쁜 물도 반도체 공장 안에서 다 초순수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모론으로 그리고 사갈시하는 하는 그런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저 1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 김성원 예, 드리겠습니다.

○정진욱 위원 중기부차관님, 청년 재직자의 자산 형성 그리고 장기근속 지원방안, 제가 줄기차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걸 느닷없이 금융위가 가져가서 청년미래적금이라고 해서 하고 있거든요. 가입자가 납입금 대비 얼마를 가져가냐 이걸 보면 이자를 제외하고 1.12배를 가져갑니다. 그런데 그 전에 2018년부터 22년 중기부가 했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이자를 제외하고도 최대 4.16배를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자산 형성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재직 기간이 길어졌는데 그게 거의 2년 반 정도 더 길어졌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인력난에 시달리는 데 이게 가장 좋은 제도였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서 없어졌습니다. 이거 반드시 살리시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기획예산처가 반대해서 못 했지 않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돈이 없어서 못 했는데 이제 미래대응기금이 100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네 군데 투자하는데 그중의 하나가 청년입니다. 그래서 저도 적극적으로 주장하겠습니다마는 중기부에서 그 100조 중에서 저는 상당 부분을 첨단전략산업에만 쓸 게 아니고 우리 미래…… 진짜 미래 투자가 어디입니까, 청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청년의 자산 형성 또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막는 일에 써야 되고,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그냥 다시 살리기만 해도 됩니다, 따로 정책을 만들 필요도 없고. 가장 효과가 좋았던 정책이거든요.

○위원장 김성원 마무리해 주시지요.

○정진욱 위원 이 정책 반드시 중기부, 살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성원 짧게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정진욱 위원 답변 부탁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행 노용석 저희가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예산당국하고 긴밀히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청년미래적금이 아시는 것처럼 국정과제로 돼 있기 때문에 일단 거기서 가 있는 거고요. 지방정부하고 같이 지원해 드릴 수 있는 지방정부 우대형 공제 도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성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성무 위원 지식재산처 처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가첨단 전략기술 그리고 또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산업부·중기부·지식재산처 등 여러 부처에서 기술 보호와 수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료 좀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를 보면 산업부가 하고 있는 것, 중기부가 하고 있는 것, 지식재산처가 하고 있는 것 이렇게 나누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부와 중기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사경은 없습니다. 지식재산처만 특허법·부정경쟁방지 영업비밀 법에 근거해서 특사경 가지고 있지요?

○지식재산처장 김용선 예, 4개 과 61명이 있습니다.

○허성무 위원 그래서 다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특별히 지식재산처 특사경의 역할이 수사까지 하면서 강조되고 있고, 특히 현 정부에 와서 그 역할이 좀 확대되고 있지요, 인원도 늘어나고?

○지식재산처장 김용선 예, 그렇습니다.

○**허성무 위원** 다음 자료 좀 보여 주십시오.

그래서 저 자료를 보시면 그동안에 지식재산처의 기술 경찰, 특사경이 입건한 입건자 수입니다. 입건자 수가 다 통계가 나와 있는데 함께 보면 1393명이 지난 3년 반 동안 입건됐어요. 이 가운데 122명은 경찰하고 검찰이 수사를 하다가 이거는 지식재산처 특사경들이 더 잘하니까 또 그 해당 분야니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이송시켜준 거지요?

○**지식재산처장 김용선** 예.

○**허성무 위원** 그만큼 특화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상당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그 해당 법률에 의해서 수사할 수 있는 범위가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지식재산처장 김용선** 예, 그렇습니다.

○**허성무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한계도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는 상황에 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과거에는 수사를 하다가 자기 범위 밖에 거는 인지하게 되면 직접 못 하고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서 해결을 해왔지요?

○**지식재산처장 김용선** 예, 그렇습니다.

○**허성무 위원** 그러면 보완수사는 없어지고, 또 보완수사가 없어지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고 그 오랜 세월 경험 동안에 보완수사가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것이 더 낫겠다 하는 판단 때문에 그렇게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완수사가 없어지기 때문에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허점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위원회나 세 부처와 관계없는 거는 다른 데서 하면 되는 거고, 특히 지식재산처와 관련해서. 그러면 그동안 검찰을 통해서 해결했던 부분이 안 되니까 지식재산처는 어떻게 그 대응책을 갖고 계신가요?

○**지식재산처장 김용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특사경의 직무범위는 사법경찰 직무에 관한 법률, 사직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영업비밀을 수사하다가 국외 유출되게 되면 산업기술보호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건 범위가 없기 때문에 검찰이 그동안 보완수사를 통해서 기소를 할 때 그걸 덧붙여서 했었습니다, 배임죄도 마찬가지로요. 그런데 이제는 보완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수사가 지연되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부터 경찰과 함께 협업하고 또 필요하면 합동수사까지 해서 경찰과 같이 수사를 하게 되면 그런 수사 공백이나 지원 문제는 어느 정도 보완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허성무 위원** 글썄요, 저는 지식재산처 소속 특사경들의 수사 범위나 역할을 조금 확대할 필요가 없는지, 그게 법률 개정을 하든 아니면 시행령을 바꾸든. 뭘 해야 될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거를 지식재산처에서 조금 연구를 하셔 가지고 미리 대비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식재산처장 김용선**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특사경의 직무범위를, 기존에 어차피 저희가 영업비밀이 국외 유출되면 90%가 산업기술보호법을 적용하거든요. 그걸 사직법에, 사법경찰 직무에 관한 법률에 반영하면 됩니다. 그리고 같은 경합범죄인 사기 같은 거, 보통 영업비밀 유출에 대해서는 배임죄 적용을, 경합범죄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

합범죄를 사법경찰의 직무범위에 반영하면 그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방안을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하겠습니다.

○허성무 위원 그러면 법률 일부개정이 필요하다. 그렇지요?

○지식재산처장 김용선 예, 그렇습니다.

○허성무 위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질문을 드리는 거는, 우리가 어쨌든 국민과 기업인들을 위해서 다 일하는 공직자들이기 때문에 예상되는 또 혹시 있을지 모를 허점들을 미리 막아 내고 철저하게 대비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식재산처장 김용선 예, 그렇습니다.

○허성무 위원 적극적인 노력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식재산처장 김용선 예, 알겠습니다.

○허성무 위원 그리고 의원실에도 수시로 소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식재산처장 김용선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위원님,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허성무 위원 예, 장관님.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산업부에서도 고민이 하나 있는 게 저희가 법을 다루고 사실 그 분야, 전략 기술 관련해서는 가장 많은 기술에 대한 노하우라든지 업계라든지 현황을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런 특사경 기능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던 것을 그동안은 경찰이나 검찰이나 아니면 국정원을 통해서 이렇게 해 왔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게 굉장히 빨리 유출되는 경우도 생기고 해 가지고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우리 내부에서도 특사경이 필요하다는 그런 굉장히 넓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한번 위원님과 같이 상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성무 위원 같이 의논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민 위원 장관님, 아까 안 계실 때 차관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장관님 오셨으니까 다시 한번 다짐을 받는 의미에서 퍼지컬 AI 관련된 거버넌스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데 자세한 얘기는 아까 드렸기 때문에 차관님하고 한번 나눠 보시고요.

메가프로젝트의 3대 프로젝트 중에 지금 당장은 반도체 때문에 여러 가지 말들이 많고 반도체가 당장은 이슈입니다. 그런데 메가프로젝트가 수확을 거두는 분야는 결국 퍼지컬 AI가 될 거다. 그래서 저는 퍼지컬 AI가 이번 메가프로젝트의 궁극적인 핵심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거버넌스가 과기부·산자부로 돼 있는데 실제로 제가 여러 번 얘기해 봤지만 퍼지컬 AI의 대한민국 공식 주무부처는 과기부입니다. 잘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스피지컬 AI 그러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휴머노이드가 앞으로 과기부의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굳이 용어를 MAX라고 만들어서 이상하게 막 어정쩡하게 봉합하는 것보다 퍼지컬…… 그러니까 서비스웨어 소프트웨어는 과기부가 하고 그다음에 퍼지컬 AI는 산자부가 주도하되 서비스웨어하고 소프트웨어 관련된 것만 서로 협력해 나가는 구조로 가든지 궁극적으로는 기술산업부로 가야 된다고 저

는 봐요.

그래서 연구 분야는 교육부랑 합치고 자원 분야는 에너지부랑 합쳐서 기술산업부가 해야 되는 이유가 예전처럼 기술이 개발된 다음에 산업으로 이관되는 게 이제 10년, 20년 걸리는 시절이 아니에요. 기술 나오면 바로 산업이 바뀝니다. 기술과 산업이 부처가 달라서 현장에 혼선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 AI 풀스택 관련해서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는데 이거는 차관님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고 기조실장님하고도 대화를 많이 해서 잘 아실 거예요, 나중에 보고를 받아 보시는데.

지금 우리 국민성장펀드에서 5000억, 6000억씩 우리나라 유니콘들에 투자를 해요. 리벨리온이나 퓨리오사나 업스테이지에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면 반도체 칩 그다음에 LLM 그다음에 플랫폼 그다음 클라우드 이거 다 묶어서 풀스택으로 어디다 납품을 들어가요.

그런데 이게 결국 여기에서 수출을 해야 이 5000억, 6000억이 회수되는 겁니다. 국내에 서는 시장이 이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면 이 수출이…… 유니콘들이 독자적인 수출 능력이 없습니다, 기술력은 있는데 수출 역량은 떨어져요. 그래서 대부분이 대기업에 켄거루로 같이 엮여서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이 유니콘들이 글로벌로 크지를 못해요. 여기에 대한 대외 수출 네트워크나 수출 전략을 산자부에서, 과기부에서 같이 협력해서 서포트를 해 줘야 되는데 제가 이 문제 가지고 한 6개월 스터디를 해 보니까 당장 해외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 한국, 기술 좋다는 건 아는데 너네 이거 실증해 봤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퓨리오사하고 업스테이지하고 같이 한번 맞춰 봤냐는 거예요. 안 맞춰 봤어요 각자가 다 세계에서 괜찮다는 거예요. 이거 갖고 안 되거든요. 그러면 해외에서는 이 실증도 안 된 걸 가지고 자기들이 덤석 계약을 안 합니다. 한국에서 국민성장펀드 5000억, 6000억 투자한 회사들 있잖아요 이 회사들 다 엮어서 풀스택으로 실증하는 프로젝트를 빨리해야 됩니다. 이거를 시장에 맡겨 뒀 갖고 5년, 6년 걸리고 이삼년 걸리면 안 돼요. 이걸 산업부가 빨리 해야지요.

아니, 5000억, 6000억씩 투자해 놓고 실증이 안 돼 갖고 해외에서는 나중에 하자, 나중에 계약하자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빨리 우리 산업단지에 하든 뭘 하든 이 AI 풀스택 실증 프로젝트를 빨리 만들어서 국민성장펀드의 투자받은 유니콘들을 묶어서 실증 사이클 한번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두세 번 하면 저는 반드시 제3세계, 미국·중국 빼고 나머지는 우리 수출 시장이 다 될 수 있을 거다. 자, 이거 실증사업 하나 꼭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해외에 미국·중국 말고 다른 나라는 대부분 대관 네트워크이 되게 중요합니다. 정부 네트워크이 있어야 돼요, 이 AI 풀스택 영업을 하려면. 이거는 개별 기업 차원에서 뚫을 수가 없습니다. 산업부에서 전직 상무관 했던 분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KOTRA에서 좀 오래됐던 분들 그다음에 국정원에서 경제 관련했던 분들, 외교부에서 각 나라별로 관하고 대화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직들 네트워크를 모아 가지고 포럼이라도 만들어서 이분들한테 이 AI 기업 해외 수출하는 거 지원하는 지원 네트워크를 산업부에서 좀 만들어 주세요. 저는 그거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없이 유니콘들한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너 기술도 개발도 하고……

○위원장 김성원 시간 더 주십시오.

○김종민 위원 국가 영업도 해라, 이걸 저는 가능성 없다고 봐요. 그래서 빨리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중기부차관님, 우리 기술 탈취 문제가 되게 중요한데 한국판 디스커버리 한다고 장관님이 되게 자랑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거 진도 안 나가는 거 아시지요? 실효성이 없어요.

PPT를 한번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전체 기술 탈취 관련해서 신고 건수가 16건, 소송 건수가 209건, 즉 무슨 말이나면 신고를 잘 안 해요. 왜, 신고해 봐야 실효성이 없으니까요. 절차도 복잡하고 결론 나도 형사처벌이 안 되니까 숨방망이에요. 신고 안 합니다. 다 민사로 가버려요. 그래서 빨리 저거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해서 형사처벌 조항 집어넣고, K-디스커버리 관련해서 상생법 하나만 통과됐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행 노용석 예, 그렇습니다.

○김종민 위원 부정법·특검법 이거 빨리 통과시켜야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 김성원 무소속이니까 1분 더 주십시오.

○김종민 위원 위원장님이 아주 회의 진행을 너무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꼭 하셔야 되고.

인산가라는 회사 아세요, 인산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행 노용석 죄송합니다.

○김종민 위원 이거 1심, 2심 다 판결 났잖아요. 대법원 가서 3년을 아직 판결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대법 가 가지고 이쪽에서 김앤장을 썼더라고 그래 갖고 네 번에 걸쳐서 판결 일정 잡히면 또 자료 요청하고 이렇게 해서 네 번 연장을 시켜서 3년을 끌어요. 그 사이에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부도 나서 채보를 했어요. 이 사람 지금 구속돼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이런 거는 중기부가, 이렇게 문제가 되고 언론에도 여러 번 보도가 됐잖아요. 이런 건 중기부가 나서서라도 대법원에다 협조 요청도 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 협조 요청해서…… 이거 좀 억울한 거 아닙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나이 70 넘은 사람인데. 가서 법무부에다가 설시 요청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중소기업들 마음이 움직여요. 이게 중소기업들한테 엄청난 상처가 돼 있습니다, 대한민국 안 되는구나. 이거 좀 한번 챙겨 보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행 노용석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행정 제재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징금도 최대 50억까지 올리려고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소송으로 안 가도 행정조정제도를 강화해서 그런 부분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리고 말씀하신 대로 법무부에는 사실 재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기는 어려운 면이 있지만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법무부는 재판이 아니고요 거기는 형량 관련된 거니까, 재판은 대법원에서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이건 대법원 판사들도 이해를 못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게 무슨 재판 개입이 아니에요.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건. 대법원 판사가,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봤어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나 그랬더니 도저히 이해가 안 간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행 노용석** 법무부처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지식재산처장 김용선** 위원님, 지재처장인데요. 추가적으로 좀……

○**위원장 김성원** 그렇게 하십시오.

○**지식재산처장 김용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재처에서도 특허법 등에 증거개시 제도(K-디스커버리) 반영토록, 연내에 입법토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술탈취와 관련해서 형사처벌이 안 된다고 했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지재처 특사경이 바로 기술탈취범에 대한 형사처벌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존의 1개 과 17명을 4개 과로 확대해서요, 기술탈취범을 근절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한테 맡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자근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자근 위원** 구자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오전 오후 해서 여야 위원님들께서 광주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관련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장관님, 이게 절차적으로 공정했는지, 그 과정이 투명했는지 이런 부분들인데 그게 그렇다라고 치면 장관님께서 오히려 이 부분을 공개하고 국민적 동의와 예를 들어서 야당의, 국민의힘의 협조를 얻는 게 맞지 않나요? 그걸 감춰서 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이게 밝혀질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관님, 차관님한테도 제가 물었습니다만 이게 정치적 논리가 아니고 경제적 논리로 진행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습니다.

○**구자근 위원** 그런데 왜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에서는 이게 핫이슈가 되어 있을까요? 예를 들어 김민석 후보가 김어준 방송에 나가서 ‘정청래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호남 메가프로젝트가 흔들릴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 부분은 없겠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저는 사실 이것하고 그런 정치적 일정하고 연계된다는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구자근 위원** 참 공교롭게도 그런 겁니다. 내가 참 보기 민망한데 김민석 당대표후보형 김민웅 씨라고 혹시 들어 보셨어요, 촛불혁명의 대표인데? 여러분들께서는 정치적인 논리로 접근하지 않는다 이야기하지만 지금 그분께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 땅을 즉각 내놓지 않는 미 7공군 박살 내자’라며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지금 8월 15일 날 광주에 ‘호남총궐기, 광주 군공항 에워싸기’ 이렇게 해서 지금 선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진욱 위원 그걸 누가 한다고요? 그게 지금 김민석 총리님이 하시는 것처럼 말씀하고 계시는데……

○구자근 위원 아니, 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형. 김민석 총리의 형 김민웅 씨, 촛불행동 대표.

○정진욱 위원 아니, 그런데 대한민국에 연좌제가 있습니까, 지금?

○구자근 위원 질의 중이고 이야기하는 중이잖아요.

○위원장 김성원 시간 잠깐만 멈춰 주시고요.

우선은 질의에 집중을 해 주시고, 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구자근 위원 모두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치적 논리 개입 없이 경제적 논리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많은 언론에서, 저희들이 아닙니다, 자당 내에서 후보 간에 이런 이야기가 오가는 것들을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계속해서 저희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광주에 결정된 부분들이 시급성, 그리고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광주에 전력 풍부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지요? 원전 없이 됩니까? 원전 없이 재생에너지만으로 충분히 가능한지 묻고 싶고, 그리고 용수 충분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럴 것 같으면 특별하게 특별법 갈 것 뭐 있습니까, 바로 진행해 버리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왜 어려운 길을 둘러 둘러 돌아가십니까, 시급성, 적격성 그것 다 준비되어 있는데? 지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장관님께서 여러 후보지를 검토했다고, 그래서 그중에 픽을 기업들이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구미에 400만 평…… 모르겠습니다. 검토해 봤는지 안 해 봤는지 나중에 가면 그게 분명히 밝혀져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용지 200만 평, 아까 168만 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턱없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용인이 지금 몇만 평입니까? 250만 평 아닙니까? 팍 1기당 40만 평 하면 $4 \times 6 = 24$, 240만 평. 그러면 광주에 팍 4기 같으면 $4 \times 4 = 16$, 160만 평이면 됩니다. 구미 200만 평 제공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것은 절차도 필요 없습니다. 국가산단이 조성되어 있으니까 바로 들어가면 됩니다. 전력 남아둡니다. 물 바로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절차적 정당성을 가지고 광주가 된 건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국민의 혈세가 수도 없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인프라, 전력 부분도 분명히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려면 전력계통도 들어가야 되고 나중에 가면 ESS 저장장치부터 해서 저희들 설득을 수도 없이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과정 속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무리한 요구 하는 겁니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국민적 동의가 왜? 소중한 혈세가 다 들어가니까.

그래서 계속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언젠가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부지를 검토했다고 이야기를 말씀하셨고 그중에 기업이 픽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될 것이라는 것들 때문에 저

희들이 계속 반복해서 지적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위원장 김성원 예, 더 드리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주 52시간 계속 이야기하시고 하시던데 장관님 계실 때 저희들 지난해에 반도체 특별법 늦게 제정된 것 아시고 8월 11일 날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구자근 위원 그것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주 52시간 R&D 연구인력들 예외 하자고 기업 현장에서 물론 삼성·SK가,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요구했던 것 아닙니까? 장관님 들었지 않습니까? 그것 지금 결국 포함되었습니까? 포함되지 않았지요? 그때는 왜 포함되지 않았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노동부장관하고 아직까지 여러 가지 이견이 있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습니다.

○구자근 위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에 25년 5월 1일 날 한국노총 정책협약식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당시에 민주당 여당에서 노동법이 개악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깐 더 나가지를 못했던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렇게 발언하셨네요, 후보 시절에. ‘주 52시간 예외 실익 없다. 쓸데없는 예송논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특별법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상임위에서 한 발치도 못 나갔던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잖아요. 왜? 왜 그렇습니까? 광주에는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휴식시간 없이 장시간 없다? 그 당시에 정책위의장도 다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 52시간 예외 필요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한테, 불과 몇 개월 전에 있었던 그 이야기들을 저희들을 설득시키고 동의를 구해야 되고 국민들을 설득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 아프지 않아요?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께서 탈원전, 주 52시간, 예를 들어서 보, 여러 가지 부분을 뒤집어야 되는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 논리를 개발하려면? 그렇지 않습니까?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철민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철민 위원 장철민입니다.

사실 광주 반도체 얘기 그만하고 싶기는 했는데 어쨌든 전당대회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전당대회 이슈가 될 수 있지요. 왜냐하면 전당대회에서 우리 당과 정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당과 정부의 관계에서 지금 메가프로젝트를 얼마나 정말로 제대로 잘 해낼 거냐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게 전당대회 이슈가 됐다는 것만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게 사실 무슨 문제인지 전혀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만큼 사실 우리 전당대회 과정에서 그런 정책적인 문제가 다루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얘기는 저는 이 정도만 하고요.

어쨌든 메가프로젝트가 됐든 다른 메가프로젝트 안에 AI 관련된 부분들이 됐든 저희가 AX에 대한 굉장히 많은 노력들과 정책들, 앞으로의 계획들을 지금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장관님, 그런데 제가 약간 수요자 관점에서, 국민들이나 기업들 관점에서 지금의 AI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고 접근을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오늘은 약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AI, 지금 제공되는 LLM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클로드나 제미나이나 이런 서비스들. 그런 서비스들에 우리 정부는 지금 얼마나 잘 대응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당장 산업통상부장 중기부나 지금 오늘 여기 계신 부처들이나 기관들의 홈페이지나 아니면 기관들이 제공하는 정책자료들이 클로드나 제미나이에서 검색이 되는지 안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장관님, 혹시 아십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저희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들은 LLM에서 대부분 검색이 되고 있습니다.

○장철민 위원 안 됩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되는데……

○장철민 위원 바로 확인해 보십시오. 클로드나 제미나이에 산업자원부 홈페이지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찾아볼 수 있는지, 직접 크롤링이 되는지 그러면 안 된다고 나오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장철민 위원 안 됩니다. 스니펫(snippet)이라고 일종의 미리보기 키워드 정도만 검색이 되고 안에 있는 내용은 다 검색이 안 돼요. 예를 들면 저희 국회의원들이 법령에 대해서 조금 찾아보고 싶어 가지고—산업통상부 관련된 법률—우리 법령정보센터라고 있잖아요. ‘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해서 찾아 줘’라고 하면 ‘검색이 안 됩니다’라고 나오니까. 안 됩니다. 우리 정부에서 제공하는 것 중에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공공 사이트들이 직접 검색이 안 됩니다. 신기하지요?

저도 그렇고 장관님, 차관님 여기에 있는 모든 기관장님, 간부님들이 대부분 사실은 보고받으시기 때문에 직접 안 해 봐서 이것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우리 법령도, 법령을 유권해석한 자료도 아니면 우리가 예산 만들고 예를 들면 정책금융 같은 것 하잖아요. 지금 소진공, 중진공 다 안 됩니다. 말도 안 되지 않나요?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이 ‘우리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소진공이나 중진공에서 제공하는 정책금융이나 서비스를 찾아줘’라고 하면 기사 검색 같은 것들을, 2차적으로 검색한 자료를 AI가 보여 줍니다. 직접 검색이 안 됩니다. 황당한 얘기이지 않습니까, 장관님?

중기부차관님, 아셨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행 노용석 저희는 웹크롤링이 안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

○장철민 위원 크롤링 안 돼요. 크롤링이 안 되기 때문에 AI가 2차 자료를 검색한 자료로 보여 줄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정말로 저는 큰 문제라고, 설명 안 해도 큰 문제인 것 아시겠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유권해석 같은 것들이 되게 헛갈리잖아요, 어렵고. 그런 부분들은 사

실 AI 통해서 찾아보려면 당연히 가장 신뢰도 높은 정부의 직접 자료를 검색해서, 그것을 통해서 어떤 자료를 찾았을 때 그게 의미가 있는 걸 거고 지금 우리가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금융이든 여러 가지 정책 서비스도 그럴 텐데 실제로는 이게 되지 않습니다.

여기 혹시 뒤에 있는 기관장님들 중에 우리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AI에 검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고 있다, 한 분이랄도 계십니까? 오늘 사실 업무보고하는 자리잖아요. 우리 홈페이지나 우리가 지금 제공하는 공공서비스가 AI에서 검색이 된다. 디테일한, 예를 들면 미리보기 자료들 말고요, 실제로 제공하는 구체적인 자료들이 검색이 된다. 아시는 분 한 분이랄도 계십니까?

예를 들면 중기부의 기업마당이라고 기업들의 여러 가지 정책 서비스를 모아 놓은 곳 있습니다. 기업마당은 될까요, 안 될까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행 노용석 저희가 HWP 외에는 HWPX나 PDF는 웹크롤링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장철민 위원 일종의 크롤링이 되는데요. 크롤링의 제한적인 영역만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스니펫이라고 일종의 미리보기가 얼마나 디테일하게 제공되고 있느냐, 아니냐. 물론 이것도 제가 정확한 게 아닌 게 이것 클로드한테 물어봐서 확인한 겁니다. 클로드가 지금 이것 저것 확인해 봤는데, 스니펫이 구체적으로 제공되는 영역 정도만 되는데 ‘기업마당도 그 정도만 됩니다’라고, 사실은 제가 지금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다 모르시는데 소진공, 중진공은 제가 지금 확인했을 때는 재미나이나 클로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기보나 신보는 돼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기보·신보 이사장님은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기는 한데……

사실 우리가 기업들이나 국민들이 정부의 어떤 내용들을 AI를 통해서 확인한다고 했을 때 이게 얼마나 쉽게 정확하게 신뢰도 있게 잘 확인될 수 있는지 확인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다음 국정감사, 한 두 달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모든 부처와 모든 기관들 다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서 법상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면 어떻게 하면 AI가 확실하게 신뢰도 있게 접근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께 제대로 된 내용들,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대책까지, 제가 좀 길게 드릴게요. 한 두 달 정도 드릴 테니까 정말로 다 확인해 보시고 조치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계획 만들어 가지고 이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원 수고하셨습니다.

두 달 뒤에도 안 되면 정말 문제 있는 겁니다.

오늘 두 분 간사님 끝으로 위원님들 질의는 끝났습니다마는 제가 정리 차원에서 간단하게만 조금 말씀드릴게요.

장관님, 3대 메가 프로젝트라고 이렇게 명명을 지어 가지고 하는데 오늘 모든 질의를

이렇게 다 들어 보니까, 답변과 질의를 들어 보니까 거의 반대하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추진해야 되고 속도전도 가져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과연 이게 우리가 1600조 규모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그러면 검증이라도 하고 어떠한 절차적 정당성이 있었는지 투명성이 어떻게 확보가 되는지 최소한의 그런 것은 담보가 돼야지 협조를 해 가지고 속도전에 같이 함께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장관님 제가 딱 하나만 확인을 할게요. 반도체가 다시 호황이 되면서 부지가 필요하다는 것은 작년서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입니다, 작년 초서부터요. 그런데 그 부지를…… 그러면 아까 오늘 오전중에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부지에 대해서 정부가 먼저 사전조사나 아니면 어떤 예시를 기업에 제안을 해서 기업이 광주를 선택했다라고 한 것이 맞습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일단 반도체 부지 관련해서 논의의 시작은, 다시 지금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위원장 김성원 아니, 논의의 시작 말고……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국내에서 하느냐 해외로 가느냐가 일단 우선 기업들 입장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기업들이 부지가 필요하다는 신호를 보내 왔고 정부가 다양한 부지들을 검토도 해서 제안을 했던 거고 그 부지의 최종 결정을 기업들이 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성원 알겠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그리고 또 하나는 3600조 관련해서……

○위원장 김성원 잠깐만요. 정부가 다양한 부지를 검토해서 기업에 제안을 해서 기업이 선택을 했다 이거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부지에 대한 논의가 서로 간에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성원 아니, 방금 전에는 정부가 제안을 했다고……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그러니까 그게 무슨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이것을 검토하세요 이런 것보다는 굉장히 논의가 계속 있었던 거지요. 왜냐하면 기업들은 부지가 필요하고……

○위원장 김성원 아니, 말로만 하신 거예요, 문서 없이?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말로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기업들 입장에서 검토할 내용이 있고 정부 입장에서 기업들이 원하는 바가 있는 부분들을 서로 맞춰 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성원 그 맞춰 가는 과정이 문서로 돼 있을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그리고 그 내용이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정부가 1600조를 투자하는 게 아니라 1600조의 내용은……

○위원장 김성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1600조라는 것은 규모를 얘기하는 거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그런데 그 규모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1600조가 타당하냐, 이걸 왜 했느냐 그리고 어디에다 하느냐, 이게 맞느냐 이런 내용들을 정부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1600조는 전부 기업들이 하는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성원 아니, 장관님, 제가 질문하는 것을 정확하게 조금 말씀을……

1600조, 3600조 원 3대 메가 프로젝트 맞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위원장 김성원 그리고 정부가 부지를 여러 가지 논의 전에 뭐가 됐든지 간에 논의를 해 가지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정부가 부지를 기업에 제안했고 기업이 그 부지를 선택한 겁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최종적으로는 기업이 선택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성원 그렇지요. 정부가 제공을 했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그렇지요. 이런 부지 어떠냐는 이야기를 한 거지요.

○위원장 김성원 그렇지요. 하나만 물어볼게요. 거기에 구미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성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구미는 산업부랑 연락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하시겠습니까, 긍정하시겠습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그 내용을 제가 잘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구미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성원 그러면 하나만 마지막으로, 문서로는 만들어 냈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어떤 내용에 대해서요?

○위원장 김성원 부지 후보지에 대한 문서.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그런 내용들도……

○위원장 김성원 제안했을 때 그 문서는…… 말로 하지는 않았을 거지 아닙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원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보충질의가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대체토론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중에 구자근 위원님, 권향엽·김원이·김의겸·김종민·박성민·박희승·백혜련·서지영·송재봉·오세희·우재준·이연주·임문영·장철민·조지연·전은수·정진욱·허성무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각 소관 기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의 취지에 따라 답변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소위 개회 전까지 모든 의원실과 위원회 행정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 및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상정된 2025년도 회계연도 결산은 예산결산소위가 구성되는 대로 회부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마지막까지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님과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1차관님, 김용선 지식재산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 산자중기위원회 공직자 여러분과 보좌진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0분 산회)

○출석 위원(24인)

구자근 권향엽 김도읍 김성원 김원이 김의겸 김종민 박성민 박희승 백혜련
서지영 송재봉 오세희 우재준 윤한홍 이언주 임문영 장철민 전은수 정진욱
조지연 차규근 최수진 허성무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전문위원 박병섭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산업통상부
장관 김정관
차관 문신학
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통상차관보 박정성
기획조정실장 오승철
산업정책실장 박동일
산업성장실장전담직무대리 이민우
산업자원안보실장 양기욱
통상교섭실장 권혜진
무역투자실장 강감찬
정책기획관 정상용
지역경제정책관 김규성
첨단산업정책관 최우혁
무역정책관 나성화
국가기술표준원
원장 김대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직무대행 노용석
제2차관 이병권
기획조정실장 김우중
중소기업정책실장 박용순
소상공인정책실장 최원영
정책기획관 이순배
창업정책관 조경원
소상공인정책관 김정주
상생협력정책국장 이은칭
지식재산처
처장 김용선
차장 정연우

기획조정관 박현희
지식재산정책국장 김일규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 김용훈
한국가스공사
사장 홍의락
한국석유공사
사장 손주석
(주)강원랜드
경영지원본부장 남한규
(주)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 임종석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황영식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장영진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권형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인태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강석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 강경성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박경국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원장 전윤중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원장 이용필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이상훈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 최춘식
대한석탄공사
비상임이사 진길우
무역안보관리원
정책지원본부장 신재혁
한국디자인진흥원
원장 강윤주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원장 조영훈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기획조정본부장 송현규

한국세라믹기술원

원장 윤중석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원장 김태권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원장 김용만

(주)공영홈쇼핑

대표이사 이일용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회장 원영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 박마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원장 김영신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이사 이태식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장 조주현

창업진흥원

원장 유종필

한국벤처투자

대표이사 이대회

한국발명진흥회

상근부회장 김시형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원장 신상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원장 최규완

한국특허기술진흥원

원장 김명섭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원장 윤병수

한국특허정보원

원장 강병삼

【보고사항】

○의안 회부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24. 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148)

7월 27일 회부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27.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164)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

(2026. 7. 27. 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176)

이상 2건 7월 28일 회부됨

산업도시의 지역상생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6. 7. 28. 전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189)

7월 29일 회부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29. 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16)

7월 30일 회부됨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30. 광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97)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30. 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330)

이상 2건 7월 31일 회부됨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31. 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34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31. 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352)

이상 2건 8월 3일 회부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3. 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393)

8월 4일 회부됨

미래자동차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6. 8. 4. 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4. 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16)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재생에너지 공급협력지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6. 8. 4. 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32)

이상 3건 8월 5일 회부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5. 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4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5. 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61)

이상 2건 8월 6일 회부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7. 전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10)

8월 10일 회부됨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6. 8. 10. 김의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30)

8월 11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교통기본법안

(2026. 7. 27. 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182)

7월 28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10.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22)

8월 1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행정입법 제출

구분	대통령령	부령	총리령	훈령	예규	고시
산업통상부	73	56	-	60	10	433
중소벤처기업부	37	26	-	46	4	112
지식재산처	11	12	14	57	6	61